

국립국어원 2009-01-36

발 간 등 록 번 호

11-1371028-000124-14

2009년도 민족생활어 조사 6

- 책임연구원 : 강 정 희(한남대학교)
- 연 구 원 : 배 영 환(한국학중앙연구원)
- 조사 지역 : 충청북도
- 조사 항목 : 배첩장

제 출 문

국립국어원장 귀하

“2009년도 민족생활어 조사”에 관하여 귀 원과 체결한 연구용역 계약
에 의하여 연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009년 11월 30일

연구책임자: 강정희(한남대학교)

연구 기관 : 한남대학교

연구책임자 : 강정희

공동연구원 : 배영환

협력기관: 국립국어원

제 1 부

사업 개요

제1장 연구개요	3
1. 조사 개요	3
1.1. 민족생활어의 개념_3	
1.2. 조사의 목적과 필요성_4	
1.3. 조사 방법_6	
1.3.1. 조사의 의의	1.3.2. 조사 과정의 특징
1.3.3. 조사 시 고려사항	
2. 조사 지침	7
2.1. 현장 조사 지침_8	
2.1.1. 일반 원칙	2.1.2. 조사 지점 선정 기준
2.1.3. 제보자 선정 기준	
2.2. 전사 지침_9	
2.3. 올림말 선정 지침_11	
2.3.1. 일반 원칙	2.3.2. 세부기준
2.4. 뜻풀이 지침_14	
2.4.1. 기본 원칙	2.4.2. 뜻풀이 형식
2.4.3. 뜻풀이 용어	
제2장 연구 추진 과정	16
1. 조사 계획	16
2. 조사 보고	17
2.1. 제보자_17	
2.2. 조사 기간 및 방법_18	
2.3. 조사 장소_19	
2.4. 조사 내용_19	
2.5. 조사 결과물_19	

제 2 부 연구 내용

제3장 생애 구술	23
1. 자기 소개	23
2. 배첩을 하게 된 과정	24
3. 앞으로의 바람	28
4. 풀 쑤는 과정	30
5. 배접지 이야기	34
6. 비단 이야기	37
7. 배첩과 관련된 도구	38
8. 두루마리(족자) 이야기	41
9. 액자 이야기	47
10. 병풍 이야기	49
11. 고서 장정 이야기	52
제4장 조사된 어휘	57
1. 배첩이란?	57
2. 재료	58
2.1. 풀_58	
2.1.1. 주 재료에 따른 분류	2.1.2. 물의 양에 따른 분류
2.1.3. 풀의 재료	2.1.4. 풀 쑤는 과정
2.2. 한지_64	
2.3. 딱(닥)_64	
2.4. 황기초_65	
2.5. 잣물_65	
2.6. 종이류_65	
2.6.1. 건조 방식에 따른 분류	2.6.2. 그 밖의 분류
2.7. 천과 비단류_67	
2.7.1. 명주	2.7.2. 인조비단
2.7.3. 금사비단	2.7.4. 삼베

2.8. 나무류__70	
2.8.1. 미송	2.8.2. 홍송
2.8.3. 오동나무	2.8.4. 참죽나무
2.9. 밀랍__71	
3. 배첩의 구조	72
3.1. 두루마리의 구조__72	
3.1.1. 두루마리(족자)	3.1.2. 천장(저고리)
3.1.3. 치마(마루)	3.1.4. 귀
3.1.5. 귀마개	3.1.6. 중선
3.1.7. 화지(주지)	3.1.8. 기둥
3.1.9. 반달	3.1.10. 반달집
3.1.11. 축	3.1.12. 봉집
3.1.13. 승대(족자끈)	3.1.14. 족자뭇(동비)
3.2. 액자의 구조__78	
3.2.1. 액자틀	3.2.2. 액자테
3.2.3. 속살	3.2.4. 겉살
3.2.5. 중간대	
3.3. 병풍의 구조__80	
3.3.1. 병풍기	3.3.2. 병풍틀
3.3.3. 마무리선	3.3.4. 발
3.3.5. 경첩	3.3.6. 병풍거죽
4. 제작 도구	83
4.1. 귀얄류__83	
4.1.1. 문지름귀얄	4.1.2. 물귀얄
4.2. 칼__85	
4.2.1. 주걱칼	4.2.2. 대칼
4.2.3. 일자칼	
4.3. 송곳__87	
4.4. 기억자__88	
4.5. 고운톱__88	
4.6. 대패__89	
4.7. 건조판__89	
4.8. 삼각대__90	
4.9. 나무망치__91	
4.10. 대바늘__91	

4.11. 능화판__91	
4.11.1. 연꽃능화판	4.11.2. 국화능화판
4.12. 호박돌__93	
4.13. 나무주걱__94	
4.14. 무쇠솔__94	
5. 제작 과정	94
5.1. 두루마리 제작 과정__94	
5.1.1. 물뿌리다	5.1.2. 초벌배접하다
5.1.3. 말리다	5.1.4. 재단하다
5.1.5. 띠대다	5.1.6. 봉집달다
5.1.7. 축달다	5.1.8. 반달달다
5.1.9. 족자못박다	
5.2. 고서화 장정__96	
5.2.1. 풀르다(풀다)	5.2.2. 실재다
5.2.3. 밀랍칠하다	5.2.4. 구멍뚫다
5.2.5. 꼬매다(꺾매다)	5.2.6. 옥접매다
5.2.7. 찜매다(묶다)	5.2.8. 문질르다(문지르다)
5.3. 병풍 제작 과정__100	
5.3.1. 구상하다	5.3.2. 틀짜다
5.3.3. 초배하다	5.3.4. 재배하다
5.3.5. 한지 발르다(바르다)	5.3.6. 광목 발르다(바르다)
5.3.7. 톱금내다	5.3.8. 물리다
5.3.9. 대패질하다	5.3.10. 테 발르다(바르다)
5.3.11. 보호대 대다	5.3.12. 작품 붙이다
5.3.13. 비단 붙이다	
6. 배첩의 종류	102
6.1. 병풍의 종류__102	
6.1.1. 작품의 구조에 따른 분류	
6.1.2. 병풍의 크기나 구조에 따른 분류	
6.1.3. 용도에 따른 분류	
6.2. 족자의 종류__106	
6.2.1. 명족자	6.2.2. 평족자
6.2.3. 이중선족자	
6.3. 액자의 종류__107	
6.3.1. 액자의 구조에 따른 분류	
6.3.2. 화지 부분의 입체 모양 등에 따른 부분	

제 3 부 연구 결과

제5장 마무리	113
참고문헌	116
부 록	117
찾아보기	135

제 1 부

사 업 개 요

제 1 장 연구개요

제 2 장 연구 추진 과정

제 1 장 연구개요

1. 조사 개요

1.1. 민족생활어의 개념

인간은 자신의 생활 속에서 문화를 만들며 그 속에서 문화를 누리며 살고 있다. 인간은 다양하고 역동적인 생활 모형을 창조하기도 하며 다른 사람이 이미 만든 생활 모형을 따르며 살아가기도 한다. 그리고 생활 속에서 관계를 맺고 소통을 위해 사용하는 매개체가 바로 언어이다.

민족생활어란 생활과 언어에 민족이란 말이 결합되어 이루어진 말이다. 민족은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지만, 우선 한 지역에서 태어나 생활하면서 언어, 문화, 역사 등을 함께 하는 인간 집단으로 정의한다. 즉 생활이란 추상적이고 논리적인 측면이 실제 삶과 연관되어 고찰되어야 한다. 생활은 사람들의 일상적인 정서, 인식, 행동으로 이루어지며, 이것의 대부분은 언어를 매개로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일상적 생활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면서 특정 집단 혹은 민족의 고유한 사고 체계와 문화 체계가 형성·발전한다. 따라서 민족의 정체성, 사고 체계, 문화 등은 그 민족이 사용하는 언어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사람들은 다양한 생활양식을 창출하기도 하며 이미 만들어진 생활양식을 따르면서 살아가기도 한다. 한 민족이 살아 온 삶의 모습, 사고체계, 정체성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동일 민족의 범주에 속하는 다양한 사람들의 생활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이는 생활어의 어휘, 형식, 의미, 용례, 담화 등의 재발견과 조사를 통해 구체화시킬 수 있다.

민족문화를 조사하기 위해 참고할 수 있는 한국 민족문화의 개념과 범위는 다음과 같다.(한국 민족문화대백과사전)

- 한국 민족문화에는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귀화한 사람과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이주한 사람의 문화도 포함된다.
- 한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이 이룩한 문화는 한민족 구성원에 의하여 연구 변용된 구체적인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국 민족문화에 포함된다.
- 한민족이 우리 강역 안에서 이룩한 문화 외에도 외국으로 일시 진출하거나 항구적

으로 이주하여 이룩한 문화도 한국 민족문화에 포함된다.

- 선사시대의 생활양상도 한국 민족문화에 포함된다.
- 자연 그 자체는 문화가 아니지만 한민족에 의하여 이용되고 의미를 부여한 자취가 있을 때는 한국 민족문화로 다룬다.
- 현대 문화의 양상은 전통 문화와의 연관이 파악되고 광범위한 영향을 끼치며, 우리나라에서의 독자성 또는 특수성이 보편성과 함께 인정되어야 한국 민족문화이다.
- 민족문화는 민족·강역·역사·자연·생활·사회·사고·언어·예술 등 아홉 가지로 크게 분류된다.

이상과 같은 한국 민족문화의 개념과 범위 규정은 앞으로 수행할 이 사업의 조사 대상과 영역을 선정하는데 중요한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사피어 워프의 가설(Sapir Whorf 가설, 언어의 상대주의 이론)에 보면 언어구조나 실제 사용하는 언어형식이 사용자의 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언어 사용자는 필요에 따라 많은 언어 형식을 창조한다. 사용자가 그만큼 사고를 많이 한다는 말이다. 북극의 이누이트족은 눈, 얼음, 바람을 아주 세분된, 수십 개의 말로 표현한다. 필리핀 민도르의 하우누족은 450종 이상의 동물과 1,500종 이상의 식물을 구분한다. 실제 공인된 공식 도감의 분류보다 400여 종이 더 많다.

어떤 언어 사용자의 죽음은 그가 가진 독특한 생활어도 함께 사라짐을 의미한다. 언젠가 아프리카에서 들려오는 소식으로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었다. “한 사람의 노인이 사망할 때마다 하나의 박물관이 사라지고, 하나의 도서관이 사라진다.” 문자가 아닌 구전으로 지식과 지혜가 전수되는 아프리카의 문화 전통에서 오래도록 살아 온 한 노인은 그 사람 자체가 박물관이고 도서관이었다(강신표, 인제대).

이러한 관점은 조사 대상과 조사 영역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해 준다. 누구를 조사해야 하고, 무엇을 조사해야 하는 지에 대한 해답을 이 관점을 토대로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민족생활어란 한국 민족이 그들의 문화 속에 담고 있는 생활 어휘, 형식, 의미, 용례, 담화 등을 모두 포함한 용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리고 민족생활어 조사란 바로 그러한 한국 민족문화 모형을 가진 인간을 대상으로 다양한 생활 어휘들을 조사해야 하는 것이다.

1.2. 조사의 목적과 필요성

한 민족 내에서 사용한 언어는 그 민족의 사고와 행동양식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이것은 사람들의 일상적 활동과 연계된 생활어에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음운

이나 문법과는 달리 어휘, 의미, 용례, 담화에는 그 시대의 다양한 특징적 상황이 반영된다. 사회구조가 복잡해지고 새로운 사물과 행동이 나타나면서 그에 합당한 어휘가 생겨나게 된다. 이러한 어휘 부족 현상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기존 언어의 의미가 더 확대되거나 기존 어휘가 새로운 의미로 변화하거나 새로운 어휘로 대체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새로운 사실이나 관념의 형성, 사물에 대한 새로운 지식이 생겨날 때 나타나는 새말이나 기존 의미의 변화, 문화변동에 직접적으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어휘이므로 어휘의 변화가 가장 심하다. 따라서 우리말의 어휘가 변화해 온 양상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사회적·정치적·문화적인 변화양상까지도 읽을 수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계층, 성, 지역, 연령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광범위한 생활어의 음성, 어휘, 의미, 용례, 담론, 사진, 동영상 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정리하고 활용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독창적인 사고력 증진과 민족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다.

광범위한 민족생활어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정리하고, 이에 기초하여 민족 제일의 문화유산인 국어와 한민족의 고유한 사유체계와 행동 양식의 역동성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사회·경제 구조와 활동이 급속히 변화함에 따라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 유지, 발전 되어온 국어의 어휘, 의미, 용례, 소통양식 등이 사라지고 있다.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자료 수집, 정리, 보관, 활용에 관해 연구를 한다.

한 민족의 삶 속에 내재한 생생한 생활어를 조사함으로써 그와 연관된 생활 자료를 보존할 수 있고, 그동안 간과되어 온 민족의 역사를 복원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당대의 올바른 시대상을 파악할 수 있고 국가발전의 가시적 성과도 제시할 수 있다.

지난 100년 동안 한국의 사회·경제 활동이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다양한 직업들이 소멸·쇠퇴하는 반면 다른 많은 직업들이 창출됨에 따라 국어의 기반을 이루고 있는 생활양식이 바뀌고 있다. 빠르게 소멸되어 가는 전통 사회·경제·문화 활동과 연계된 민족생활어를 수집·정리하고 활용하여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어 어휘, 의미, 용례의 다양성을 보존하여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한다. 이와 동시에 탈근대 혹은 지식·정보 사회·경제·문화 활동과 연계되어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는 생활어를 지속적으로 수집·정리하고 활용하여 민족 제일의 문화유산인 국어를 변화하는 시대정신에 맞추어 창조적으로 계승·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그런데 20세기 민족생활어의 조사대상이 되는 민중들은 소수의 예를 제외하면 대개 고령자일 경우가 많다. 민족생활어 조사의 긴급성은 바로 이러한 사실로부터 제기된다. 그러므로 지난 세기를 살면서 일상의 온갖 생활어를 생생히 사용해 왔던 고령자들로부터 하루라도 빨리 생활어를 긴급하게 발굴·조사하지 않으면 참으로 귀중한 지난 세기 우리 민족의 생활어가 사라져 버릴지도 모르는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지난 세기의 급격한 사회변동에 따라 곧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는 우리 민족의 생활어휘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고령자들의 구술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이를 통해

노년세대들의 소외의식을 줄이고 그들의 자존감도 회복시킨다. 또한 소외계층의 생활어나 해외에 거주하는 한민족의 생활어도 조사하여 그들의 자존감을 회복시키고 소외감을 해소한다. 아울러 당대의 고령층과 소외계층 사람들의 의식을 파악하고, 그들이 국가발전에 기여한 생생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 민족이 이룩한 문화유산과 업적을 정리 집대성하여 새로운 한국 민족문화를 창조하는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1.3. 조사 방법

본 연구를 위해 적용하는 조사 방법은 조사 대상자와 밀착하여 직접 조사하는 민속지적(ethnography) 조사 방법이다. 민속지적 조사 방법은 경험적이고 질적인 조사 방법론이며, 일정한 질문지를 만들어 질문지 안의 내용만을 조사하던 방법과는 달리 상황에 따라 조사자의 융통성과 인내가 필요하다.

1.3.1. 조사의 의의

- 행위자(제보자) 관점에서 이해한다. 어떤 일에 대해서는 행위자 자신이 다른 누구보다도 많은 지식을 지니고 있다.
- 조사 대상자와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그 사람으로부터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조건이다.
- 의식적 행위와 실제적 행위 모두 포착하고 규명해야 한다.
- 조사 대상자의 행위에 대한 심층적 인식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현상을 분석하기 위한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1.3.2. 조사 과정의 특징

- 연구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탐색조사(Pilot Study)가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연구대상에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 조사원의 체험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직접 그 일을 경험하면서 조사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 참여관찰, 인터뷰, 문헌자료 수집과 분석, 담화조사, 설문조사 등 다양한 조사기법이 동원될 수 있고, 이것은 조사원이 상황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 조사원의 중요한 자질 중에 하나는 임기응변과 융통성이다.

1.3.3. 조사 시 고려사항

- 사례가 지닌 역사적 조건이나 외부 상황적 연결을 고려해야 한다. 이런 경우에 조

사 대상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 사례가 지닌 특수성과 일반성의 양면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 윤리적 차원을 고려해야 한다. 구체적인 개인, 집단의 행동과 말이 기본 자료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배경과 과정을 고려해야 하고, 이를 선별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2. 조사 지침

조사는 민족 고유의 전통문화를 반영하는 의례·의생활·식생활 등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고유의 토속어(입말 구술 자료)를 채록하기 위한 기층생활어 조사와 산업 현장이나 생업 현장 등에서 사용되는 어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직업관련어 조사로 나뉜다.

- 기층생활어 조사 : 언어사회 구성원들이 일상생활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전통 민속(토속) 생활어 채록
- 직업관련어 조사 : 언어사회의 특정 구성원들이 그들의 생업과 연관된 생활환경, 제례의식, 민간신앙 등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특수 어휘 채록¹⁾

조사는 직접 질문 조사 방식으로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조사 목적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기층생활어 조사는 앞서 조사되지 않았거나, 표준어와 직접 대응하지 않는 전통 민속(토속) 생활어를 조사하는 것이 목적이다. 다시 말해서,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표준 어휘와 직접 대응하지 않거나, 그 외 기존의 사전류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기층생활어를 조사하는 것이므로 조사 항목을 고정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규격화된 조사방식으로 생활어 조사가 이루어질 수 없으며, 질문지도 상황에 따른 변수가 많기 때문에 미리 작성하여 현장에 나가기가 어렵다. 따라서 조사 대상자와 밀착하여 직접 조사하는 민속지적(ethnography) 조사방법론을 활용하며, 구술체 자료(입말 구술 자료)를 수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사전에 오르지 않은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입말 구술 자료와 어휘 자료를 전면적으로 조사·수집한다. 아래와 같은 분야의 어휘 자료를 현장에서 직접질문 조사방식으로 조사·수집 정리한다.

가) 입말 구술 자료 : 일생의례, 생업활동, 의생활, 식생활, 거주생활, 세시풍속, 민속놀이, 질병과 민간요법, 특수 직업 어휘농업, 어업, 임업, 광업, 목축업) 등.

나) 어휘 자료 : 민족 고유 전통문화 어휘, 직업어 자료

2.1. 현장 조사 지침

2.1.1. 일반 원칙

- 각 조사 지역에 해당하는 토속생활어와 문법형태소를 조사 대상으로 한다.
- 조사 현장에서 채록된 모든 어휘를 수집하되 같은 대상에 대한 지역적 차이를 고려하여 조사한다. 만약 조사된 어휘가 전형적인 특징(의미)을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올림말로 선정할 수 있다.
- 어휘론적 변종만을 어휘 항목으로 선정하고, 음운론적 변종들은 어휘 항목 선정에서 제외한다.
- 조사된 어휘 항목에 대해서 사전 편찬을 위한 정보가 기술되어야 한다. 또한 조사된 어휘의 용례는 2개 이상 제공하여야 한다.
- 모든 사진자료와 음성자료는 최종 어휘 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조사 대상 어휘의 실물이 존재할 경우 모두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세부명칭은 질문지의 그림에 직접 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디지털 카메라로 접사 촬영하여 제출한다.
- 올림말 선별 기준에 의해서 올림말로 등록하지 못한 어휘도 조사 자료 정리 방식에 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한 어휘 목록은 국어원에서 검토, 올림말로 선정 가능한 어휘들은 다시 조사자에게 보내 올림말로 선정할 수 있게 한다.

2.1.2. 조사 지점 선정 기준

조사 분야의 특성에 맞는 조사 지점을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정 분야의 어휘는 인간문화재나 기능 보유자를 찾아가 조사할 필요도 있다. 또한 조사 분야 중에서 지리적 변종이 예상되는 어휘들은 지역에 따라 조사하여야 한다.

- 조사 분야의 특성에 맞는 조사 지점 선정
- 지리적 변종을 조사하기 위한 조사 지역 선정

2.1.3. 제보자 선정 기준

이 사업의 성격상 기존의 방언학에서 적용하여 왔던 제보자 선정기준(NORMs)이 엄격하게 적용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생활어 조사의 제보자 선정은 조사 상황에 맞게 정하되 될 수 있는 대로 다음과 같은 기준을 지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보자는 조사 지역에서 3대 이상 거주한 50~60세 이상으로 조사 대상물에 관한 생활어를 잘 아는 토박이로 한다.
- 70세 이상의 제보자는 되도록 학력이 낮은 사람을 선정하도록 하고, 50대와 60대의 경우는 중학교 정도 졸업을 기준으로 하여 선정한다.
- 눈과 귀가 어둡지 않고 치아 상태가 양호해야 한다.
- 구술체 자료의 채록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입담이 있는 사람이 제보자로 선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직업어 조사는 조사 대상 어휘의 특성에 따라 제보자가 선정될 수 있으므로, 생활어 조사의 제보자 선정 기준을 따르되, 조사 대상 분야의 특성에 맞게 제보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조사 분야의 특성에 맞게 제보자를 선정한다.
- 직업 관련 제보자의 경우 조사 대상 직업을 10년 이상 지속한, 어느 정도 연배가 있고 관록 있는 제보자를 선정한다. 단 조상 때부터 동일 직업을 가지고 이어온 제보자의 경우 나이에 관계없이 제보자로 선정할 수 있다.
- 주변에 동일직업을 가진 사람이 있을 경우 개인어 구별을 위해 또 다른 제보자로 선정하여 비교한다.

2.2. 전사 지침

※ 어휘 수집을 위한 전사 지침을 따르되, 음운론적인 정밀 전사가 필요한 경우(구술전사 등) 국립국어원의 지역어 전사 지침을 참고할 수 있다.

- 올림말(표제항) 및 용례
 - ①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가능한 한 어간을 밝혀 적는다.
 - ② 유기음화, 경음화, ㄷ-구개음화, 유음화, 자음군단순화, 비음화 등과 같은 공시적인 음운규칙이나 음성규칙에 의한 음운변화나 음성변화는 전사에 반영하지 않는다.
예) 국또 → 국도, 가치 → 같이, 노코 → 놓고, 실라 → 신라, 감만 → 값만,
 흑또 → 흑도
 - ③ 일반적인 음운규칙이나 음성규칙에 의해서 예상되지 않는 음운변화 혹은 음성변화 또한 전사에 반영하지 않는다. 다만 그러한 어휘들이 올림말로 선정될 경우 ‘발음 정보’에 명시한다.
예) 김빡 → 김밥, 양념깐장 → 양념간장, 서울써 → 서울서, 돈또 → 돈도

- ④ 단모음 ‘기’가 이중모음 [wi]로 실현되는 것도 전사에 반영하지 않는다.
- ⑤ 단모음 ‘외’가 이중모음 [we]나 [e]로 실현되는 경우 소리 나는 대로 전사하되 해당 어휘 뒤에 ()를 두어 표준어를 밝혀 준다.
예) 차웨 → 참웨(참외), 헤이 → 헤이(회의) 등
- ⑥ 이중모음 ‘니’가 예측가능한 음성환경에서 [e]나 [i]로 실현되는 경우 전사에 반영하지 않는다.
예) 민주주이 → 민주주의
나에 → 나의
이사 → 이사(의사)
이자 → 이자(의자)
- ⑦ 이중모음 ‘니’가 [ㅡ]로 실현되는 경우에는 해당 어휘 뒤에 ()를 두어 표준어를 밝혀 준다.
예) 의사 → 으사(의사)
나으 → 나으(나의)
으자 → 으자(의자)
- ⑧ 자음 뒤에서 이중모음 ‘웨’가 [e]로 실현되는 경우 전사에 반영하지 않는다.
예) 지혜 → 지혜
해성 → 해성
- ⑨ 단모음 ‘웨’나 ‘웨’가 [E]로 실현되는 경우 해당 어휘가 기원적으로 ‘웨’이면 ‘웨’, ‘웨’이면 ‘웨’로 전사한다.
예) 대떡[E-] → 대떡
- ⑩ 단모음 ‘ㅡ’나 ‘ㅡ’가 [ㅔ]로 실현되는 경우 해당 어휘가 기원적으로 ‘ㅡ’이면 ‘ㅡ’, ‘ㅡ’이면 ‘ㅡ’로 전사한다.
- ⑪ 전설 모음 앞에서 ‘ㅅ’이 구개음으로 실현되는 것은 전사에 반영하지 않는다.
예) 샤랍 → 사람
세수 → 세수 등
- ⑫ 음장은 별도의 기호를 두어 전사하지 않으며, 다만 올림말로 선정되었을 경우에는 ‘발음 정보’에 명시한다.
- ⑬ 체언 어간말 자음 ‘ㄷ, ㅌ, ㅈ, ㅊ’ 등이 곡용 패러다임에서 마찰음 ‘ㅅ’으로 실현된 경우에는 소리는 나는 대로 전사하고 해당 어휘 뒤에 ()를 두어 표준어를 밝혀둔다.
예) 바시 → 바티(밭이)
저시 → 젓이(젓이)
꼬시 → 꽃이(꽃이)
- ⑭ 조음위치동화에 의한 음운론적 변이형들은 음운변화는 전사에 반영하지 않는다.

예) 보듬기다>보듬기다, 안기다>앙기다, 암캐>앙캐 등

- ⑮ 변자음화에 의한 음운변화는 전사에 반영하지 않는다.

예) 익꼬 → 있고, 묵꼬 → 묻고(埋) 등

- ⑯ 표준어에서 ㅅ-불규칙, ㄷ-불규칙 활용을 하는 어휘들이 정칙 활용을 하는 경우에는 소리 나는 대로 전사한다.

예) 이서서, 부서라, 지서라 등

추버서, 매버서, 짜버서 등

2.3. 올림말 선정 지침

2.3.1. 일반 원칙

- ① 모든 어휘론적 변종들은 올림말로 선정한다.
- ② 단순 음운론적 변종은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즉 음장, 장단, 비음화, 유음화, 경음화, 격음화, 자음군단순화, 위치동화, 활음화, ㄷ-구개음화(형태소 경계) 등의 음운규칙이 적용되어 기저형의 예측이 가능한 표면형은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 ③ 다음의 올림말 선정 세부기준을 참고하되, 필요시 협의 과정을 거친 후 올림말 선정의 예외를 결정한다

2.3.2. 세부기준

- ① 움라우트 실현형 : 괴기, 핵교, 호랭이, 귀경 등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다만, 게재자음 제약에도 불구하고 움라우트가 실현된 경우에는 올림말로 선정할 수 있다.(매디(마디), 쇠리(소리), 개지다(가지다) 등).
- ② 어두경음화 실현형 : 걱정(걱정), 쏘주(소주), 까지, 깨구리 등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 ③ ㄱ-구개음화 실현형 : 질(길), 지둥(기둥) 등
☞ 올림말로 선정한다.
- ④ ㅎ-구개음화 실현형 : 성(형), 소자(효자), 심(힘), 송년(흥년) 등
☞ 올림말로 선정한다.
- ⑤ 체언 어간말 자음군의 어간재구조화형 : 흑(흙), 닥(닭), 갑(값) 등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 ⑥ 체언 어간말 자음 ‘ㄷ’과 ‘ㄴ’의 음운론적 교체형 : 바대(바다), 가매(가마), 감재(감자), 봉에(봉어), 고등에(고등어), 잉에(잉어) 등

㉞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 ⑦ 치찰음화(혹은 구개모음화) 실현형 : 벼슬(벼실), 찌나물(쓴나물), 찌다(쓰다, 苦) 등

㉞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 ⑧ 모음 상승에 의한 음운론적 교체형

ㄱ. ㅏ>ㅗ : 자두(자도), 삼촌(삼촌), 사둔(사돈), 가우리(가오리) 등

㉞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ㄴ. ㅓ>ㅡ : 그지(거지), 은니(언니), 그짓말(거짓말) 등

㉞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ㄷ. ㅔ>ㅣ : 기(蟹), 세상(세상), 히푸다(해푸다) 등

㉞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 ⑨ 유음 아래서 ‘ㅡ’의 전설모음화 : 흐리다(流), 마리다(마르다), 고리다(고르다) 등

㉞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 ⑩ 순음 아래서 ‘ㅗ>ㅏ’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는 어휘 : 몰(馬), 팔(팔), 뵙다(밟다) 등

㉞ 올림말로 선정한다.

- ⑪ 어두음절에서 ‘ㅏ>ㅗ’의 교체형 : 새다리(사다리), 채곡채곡(차곡차곡), 재갈(자갈) 등

㉞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 ⑫ 순음 아래서 ‘ㅓ>ㅏ’의 변화를 반영하는 교체형 : 봉어리(병어리), 볼(벌), 보짐(버짐), 모루(머루) 등

㉞ 올림말로 선정한다.

- ⑬ 자음첨가에 의한 음운론적 교체형

ㄱ. ㅁ-첨가 : 모가지>모감지, 호맹이>흙맹이 등

㉞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ㄴ. ㄴ-첨가 : 고치다>곤치다, 까치>깐치, 무치다>문치다, 나중>난중 등

㉞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ㄷ. ㄹ-첨가 : 고르다>골르다, 도르다>돌르다(속이다, 흠치다), 지리>질리(길이) 등

㉞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ㄷ. ㅇ-첨가 : 해구다>행구다, 바우다>방우다(배우다), 베이다>벥이다(배우다)

㉞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 ⑭ 단순 모음 교체에 의한 음운론적 교체형

ㄱ. ㅏ>ㅓ : 망>명(그물), 쇠망>쇠명, 살강>설경 등

㉞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ㄴ. ㅓ>ㅏ : 구석>구삭, 흘청>흘창, 베개청>베개창, 수령>수랑, 뚜껍>뚜깡 등

㉞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ㄷ. ㅣ>ㅔ : 비늘>베늘, 비누>베누, 함씨>함쎄(할머니), 개비>게베 등

☞ 올림말로 선정한다.

ㄹ. ㄴ>리 : 고자리>괴자리, 도토리>되토리, 코>괴, 꼬랑>괴랑(도랑), 고>괴 등

☞ 올림말로 선정한다.

ㄱ. 리>래 : 괴기>계기, 괴비>계비(식물), 외우다>에우다, 피시다>메시다 등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ㄷ. ㄱ>기 : 구저리>귀저리(구더기), 굴둑>귤둑, 꾸다>뀌다, 추다>취다 등

☞ 올림말로 선정한다.

ㅅ. ㅐ>ㅑ : 껏이>꿏이, 왜홀태>외홀태, 산토껏이>산토꿏이, 껏>꿏 등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⑮ 단순 자음 교체 의한 음운론적 교체형(자음교체가 지역적 특성일 경우는 예외)

ㄱ. ㅅ>ㅊ : 자봉침>자광침, 버마제비>거마제비, 덩석>덕석, 고부리다>고구리다 등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ㄴ. ㅅ>ㅁ : 진눈껏비>진눈껏미, 버버리>버머리, 땅개비>땅개미 등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ㄷ. ㅁ>ㅂ : 나막신>나박신, 대리미>대리비, 입감>입갑, 비점>비점(버짐) 등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ㄹ. ㄱ>ㅂ : 주직>주벽, 웅구력대기>웅구렵대기(미꾸라지) 등

☞ 올림말로 선정한다.

ㄱ. ㄱ>ㅇ : 닥성냥>당성냥, 복송씨>봉송씨, 꼭다리>꿏다리(꼬리), 물팍>물팡(무릎), 어덕>어딩(언덕), 꼭사리>꿏사리(송사리), 등

☞ 부분적으로 수용한다.

ㄷ. ㄱ>ㅎ : 아곱>아홉, 똥>똥, 숙>숯(雄), 군지>훈지(그네) 등

☞ 올림말로 선정한다.

⑯ 조음위치동화에 의한 음운론적 교체형 : 안기다>앙기다, 암캐>앙캐 등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

⑰ ‘ㅡ’ 삽입에 의한 어간 재구조화형 : 앓다>안즈다, 엮다>여끄다, 앙ㄱ다>앙그다 등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부분적 수용 가능)

⑱ ‘△’의 탈락 여부에 의한 음운론적 교체형 : 여수~여시, 가슬~가실, 잇다(이서라~잇꼬), 붓다(부서라~붓꼬) 등

☞ 체언인 경우 올림말로 선정한다.

⑲ ‘ㄴ’의 탈락 여부에 의한 음운론적 교체형 : 솔~소폴~소불(부추), 장팍~장꼬방(장독대), 마름~말밤, 덩다, 춥다 등

☞ 체언인 경우 올림말로 선정한다.

⑳ ‘ㄱ’의 탈락 여부에 의한 음운론적 교체형 : 가새~가시개, 물개~모래, 생강~새

양, 시렁~실경, 개암~깨금, 질구다~지루다(기르다) 등

☞ 올림말로 선정한다.

- ②① 평음의 유기음화에 의한 음운론적 교체형 : 차꼬(자꾸), 혼차(혼자), 펥풍(병풍),
팜나(밤낮), 폴세(벌써), 탐박질(달음박질), 몬차(먼저), 클씨(글세) 등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부분적 수용 가능)

- ②② 어간말 자음 ‘ㄷ, ㅌ, ㅌ’ 등의 어간재구조화(마찰음화) : 꽃(꽃), 옷(옷), 빗(빗) 등

☞ 올림말로 선정하지 않는다.(부분적 수용 가능)

- ②③ 용언의 어간재구조화형은 한글로 표기할 수 있을 경우 : 굶다(견다), 짊다(긴다) 등

☞ 올림말로 선정한다.

2.4. 뜻풀이 지침

2.4.1. 기본 원칙

- ① 순환적인 뜻풀이를 피해야 하며 뜻풀이에 표제어의 일부나 관련 어휘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예) 고리타분하다『형』 고리고 타분하다.
- ② 한 단어로 뜻풀이를 해서는 안 된다.
- ③ 뜻풀이는 뜻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간결하게 줄여 뜻풀이한다.
- ④ 가능하면 문학작품이나 입말 자료 등에서 다양한 용례를 찾아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2.4.2. 뜻풀이 형식

- ① 정의항은 기본적으로 ‘종차+유개념’의 형식을 따른다. 이때 명사는 명사(형)로, 동사나 형용사는 각각 동사와 형용사로, 부사와 관형사는 각각 그에 맞는 용언의 활용형으로 뜻풀이한다.
예) 자배기01 #5 『명』 둥글넓적하고 아가리가 넓게 벌어진 질그릇.

└>종차
└>유개념
- ② 올림말에 대한 정보가 더 필요한 경우 부가 뜻풀이를 정의항 다음에 제시한다. 이때 ‘짧은 정의+설명’ 형식으로 뜻풀이하고 ‘설명’ 부분은 반드시 종결어미 ‘-다’로 끝나는 형식으로 한다.
예) 간01 #5 『명』 『1』 음식물에 짭맛을 내는 물질. 소금, 간장, 된장 따위를 통틀어 이른다.
- ③ 생활어 및 직업어에서 조사된 모든 올림말은 뜻풀이를 한다.

2.4.3. 뜻풀이 용어

- ① 뜻풀이에 사용되는 용어는 원칙적으로 표제어로 등재된 것이어야 한다.
☞ 단, 해당 표제어가 전문어인 경우에는 표제어가 아닌 단어를 뜻풀이에서 사용할 수 있다.
- ② 뜻을 정확하게 풀이할 수 있는 용어를 고르되, 가급적 쉬운 말을 사용하도록 한다.
- ③ 한자어와 고유어가 비슷한 빈도로 쓰이는 경우에는 고유어를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④ 원칙적으로 준말은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준말이 사용 빈도가 높거나 문맥상 준말이 더 자연스러운 경우는 준말을 사용할 수 있다.

제 2 장 연구 추진 과정

1. 조사 계획

‘배첩(裱貼)’이란 흔히 표구(表具)라는 의미로 쓰이는데 ‘표구’는 일본식 한자어이고, ‘배첩’이 우리 전통 용어라고 한다. ‘표구’의 사전적 의미는 ‘그림의 뒷면이나 테두리에 종이 또는 천을 발라서 꾸미는 일’인데, ‘배첩’ 역시 서화에 종이·비단 등을 붙여 족자·액자·병풍 등을 만듦으로써 거기에 미적 가치는 물론 실용성 및 보존성을 높여주는 전통적인 서화 처리 방법이다.

우리나라는 고려 시대 이후 불교적 작품이나 회화 작품이 많이 제작되었고, 이들을 보존하고 장식하려는 목적으로 ‘배첩’ 기술이 발달되었다고 한다. 특히, 종이나 비단에 그려지는 그림은 쉽게 망실되기 때문에 재료적인 단점을 보완하고, 오래도록 보존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배첩 기술이었다.

배첩은 조선 왕조 초기부터 제도화되어, 배첩에 종사하는 사람은 도화서(圖畫署) 소속으로 궁중의 서화 처리를 전담하였다. 따라서 ‘배첩’은 ‘표구’라는 말보다는 보다 오래 전부터 사용된 용어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표준국어대사전』(1999)에는 ‘표구’라는 단어는 올라 있지만 ‘배첩’이라는 용어가 표제어로 올라 있지 않다.²⁾

배첩장 홍종진은 1966년부터 30여 년 동안 배첩 기술을 익히고, 청주에서 ‘동신당표구사’를 운영해 오면서 액자·병풍·족자·장정 및 고서화 처리를 해오고 있는 배첩 전문인으로 알려졌다. 그 중 장지 만들기, 고서화와 손상된 회화 작품의 복원, 족자와 고서화의 장정 및 처리에 능숙하다고 한다. 그리고 지난 1999년에 충청북도의 유일한 배첩장으로 지정되어 현재 충청북도 배첩 전수관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조사에서는 충청북도 지정 배첩장 홍종진을 조사하여, 전통적인 직업인 배첩장의 생애와 배첩에 관한 어휘를 조사하여 정리한다면 잊혀져가는 배첩에 대한 어휘를 보존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2) 배첩장의 증언으로는 오늘날 보통 ‘표구’라고 불리는 용어는 일제시대 때 들어온 일본식 한자어라고 하였다.

2. 조사 보고

2.1. 제보자

조사 대상	이름	성별	나이	거주지	기타
배첩장	홍종진	남	58	충북 청주시 봉명2동 2419	충청북도 무형문화재 제7호

배첩장 홍종진은 십오 세 때인 1965년에 청주에서 표구사로 일하시던 윤병세 선생을 만나면서 배첩 작업을 배우게 된다. 윤병세 선생은 평생을 표구사를 운영하면서 배첩에 대한 기술이 뛰어났다고 한다. 더구나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중 한 명인 김표영(1925~) 선생 또한 윤병세 선생에게 배첩 제작을 전수받았다고 한다.

어렸을 때부터 손재주가 있었던 홍종진은 청주로 와서 윤병세 선생 밑에서 배첩 작업을 십이 년 동안 배웠고, 그 후로 다시 서울로 올라가 안국동이나 관훈동 쪽의 유명한 표구사에서도 대략 10년 이상을 배첩 작업을 배웠다고 한다. 그 과정에서 김표영 선생에게서도 배첩 작업을 전수받으면서 배첩 일에 대한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

처음 배첩 작업을 배운 지 20여년이 흐르고 나서 드디어 청주에 처음으로 ‘동신당 표구사’라는 간판을 걸고 독립을 하게 되었다. 청주의 중앙시장 근처의 무심천 가에 위치하였다. 표구사가 사업성이 큰 것이 아니라서 생활에 여유로운 편은 아니었다고 한다. 그래도 여러 개인이나 사찰 등의 작품을 보수하고 배첩하면서 점점 명성을 얻게 되었고, 그러면서 배첩 작업을 배우려는 여러 후학들에게도 자신의 기술을 전수하기도 하였다.



[사진 1] 배첩장 홍종진(58)

그러다가 1999년에 충청북도에서 그 동안의 여러 가지 공로를 인정하여 충청북도 지방 무형문화재로 인정되었다. 그 후로 충청북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배첩전수관도 지어 주고 그것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지원해 주고 있다.

배첩장 홍종진은 배첩 일에 평생을 종사하면서 여러 가지 긍지나 자부심을 느낀다고 한다. 망실되어 가는 고서화라든지, 문화재 등이 자기 손을 거쳐 새롭게 태어날 때 그 기쁨을 표현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하였다. 그리고 배첩 등에 쓰이는 용어도 일본이나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을 안타까워했는데, 특히 ‘표구’라는 용어를 일본식 표현이라고 꺼려 하였다.

배첩장 홍종진의 바람은 자기의 첫째 아들이 자기의 뒤를 이어서 배첩 일을 잘 해 나가기를 바라고 있다. 특히 잘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 두고 새롭게 시작하는 자기의 아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고, 나아가 배첩 작업에 대해 국가에서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

2.2. 조사 기간 및 방법

2009년 5월 26일부터 공식적으로 시작된 2009년도 민족 생활어 조사는 크게 문헌 조사와 현장 조사 두 기간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먼저 6월과 7월은 배첩에 대한 문헌 조사를 실시하여 기존의 문헌 속에 제시되어 있는 배첩에 대한 선행 연구를 검토하여 엑셀 작업을 하였다. 그리고 문헌에 기록된 조사 어휘를 항목별로 수집하고 목록화하여, 질문지를 제작하였다. 현장 조사는 9월부터 시작하여 보강 조사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

조사 일정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번	세부 조사 기간(월, 일)	비고
1	문헌조사(6.1. ~7.31.)	
2	배첩장의 사전 조사(8. 4.)	충북 청주시
3	배첩장의 생애 구술 조사(9.21.)	충북 청주시
4	배첩장의 구성 및 제작 도구, 종류 조사(10.9)	충북 청주시
5	배첩장의 제작 과정(10. 10.)	충북 청주시
6	배첩장에 대한 보강 조사(11. 7.)	충북 청주시

조사 방법은 조사 대상자와 밀착하여 직접 조사하는 민속지적(ethnography) 조사 방법을 사용하였다. 민속지적 조사 방법은 경험적이고 질적인 조사 방법론으로, 일정한 질문지를 만들어 질문지 안의 내용만을 조사하던 방법과는 달리 상황에 따라 조사자가 융통성을 발휘하여 조사하는 방식이다.

이 밖에 홍종진 배첩장이 배첩에 대해 설명할 때, 준비한 질문지 항목 이외에 질문지

의 하위 항목이나 제작 과정과 제작 도구에 관한 용어도 조사하였다.

2.3. 조사 장소

조사는 홍종진 배첩장의 전수실(충북 청주시 흥덕구 봉명2동 충청북도 배첩전수관)에서 진행하였다. 제보자의 전수관은 충청북도에서 지원한 것으로 배첩장의 작업실과 후학을 위한 전수관을 겸하고 있다.

2.4. 조사 내용

본 조사에서는 배첩을 배첩의 정의, 재료, 구조, 제작 도구, 제작 과정, 종류 등의 범주로 나누고, 그에 해당하는 하위 항목을 조사하였다.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사 내용	세부 조사 항목
배첩이란?	배첩, 배접
배첩의 재료	풀의 종류, 한지의 재료, 비단의 재료, 나무의 종류
배첩의 구조	두루마리의 구조, 병풍의 구조, 액자의 구조, 고서 장정의 구조
제작 도구	귀얄, 칼, 송곳, 자, 망치, 대바늘, 능화판
제작 과정	두루마리의 제작 과정, 병풍의 제작 과정, 액자 제작 과정
배첩의 종류	두루마리의 종류, 병풍의 종류, 액자의 종류 등

2.5. 조사 결과물

현지 조사를 통해 수집한 조사 결과는 어휘 엑셀 자료, 음성 자료, 사진 자료, 동영상 자료로 구분하여 국립국어원에 제출한다. 조사 어휘는 몇 가지 범주로 나누고, 해당 어휘의 올림말·해당 표준어·발음·품사·뜻풀이·실제 용례를 기록하였다. 음성 자료는 제보자가 실제 발화한 음성을 분절하여 저장하고, 조사 어휘에 해당하는 사진 자료도 가능한 모두 수집하였다. 제보자의 생애 구술 내용은 동영상 자료로 정리하였다.

배첩장에 대한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조사대상	조사내역 구분	조사어휘		음성자료		영상자료	
		총 어휘 수	미등재 어휘	구술/전사	분절 음성	사진	동영상
배첩장		207	122	6/6 ³⁾	*207	135	1

3) 음성파일 6개의 총 전사 시간은 3시간 9분 55초임.

제 2 부

연 구 내 용

제 3 장 생애 구술

제 4 장 조사된 어휘

제 3 장 생애 구술

1. 자기 소개

@ 어르신 그 성함이 정확히 홍?

종진이요.

@ 종 자 진 자세요. 그 올해 연세는 어떻게 되시나요?

쉬운아홉이예요.

@ 그러면 그 태어나신 해는 언제가요?

태어난 지가 오십 년. 오십 년 생이.

@ 오십 년. 고향은 어디신가요.

고향은 여기서 가차와요. 병 저저 동면, 천안, 천안시 동면 장송리 상장.

@ 그러면 언제 여기 청주로 오셨나요?

청주에 나온 지는 초등학교 졸업 맞고 십오 세 때 나왔어요.

@ 현재 슬하에 그 자녀분은 어떻게 되나요?

삼남 일녀.

@ 결혼은 그럼 언제 하셨나요?

결혼은 스물여섯 살 때 했어요.

@ 스물여섯 살 사모님은 그럼 어디 사신 분인가요?

여기 저 청주 청주, 가덕면 인차리.

@ 삼남 일녀 두셨다 그랬는데 그 자녀분들은 현재 하고 있는 일이 대충 어떻게 되나요?

큰딸은 저 지적공사 다니구요. 인제 두째, 큰아들이 대를 이어 가지고 인제 이거 할려고 지금 부여전통학교 다니고 있어요. 문화재청에서 운영하는 전통학교가 있어요.

@ 그리고 둘째.

인제 막내가 지금 석사학위하고 저 환경공학과로다 이 석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래 가지고 인제 직장, 그런 계통에 직장생활 하고 있어요.

@ 큰 아드님이 선생님 뒤를 이어 가지고 이 일을 한다고 이렇게 했을 때 선생님은 흔쾌히 해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나요?

아니 고거는 개가 참에는 한다고 소리를 안 하고 직장을 다녔었어요. 개도 거저 지적학과를 나와 가지고 지적공사를 다니다가 제가 얘기를 했죠. 직장생활 하는 것보다는 아빠 대를 물려 가지고 니가 이렇게 이런 저기를 하든 어떻겠느냐. 참에는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해 가지고 뭐 하느냐고 안 한다고 하더니. 그게 그 직장생활을 한 삼 년, 삼 년 하다가 인제 계속 그동안 삼 년 동안 계속 얘기를 한 거죠. 뭐 제가 니가 대를 이어 가지고 이 전수관이고 뭐고 전부 물려 받으든 어떻겠느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인제 삼 년 지나서 아들내미가 인자 승낙을 해고 직장 사표 내고서 배우기 시작했지 본격적으로.

@ 그러면 그 큰아드님은 올해 나이는 어떻게 되나요?

서른둘이에요.

@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예, 그렇죠.

2. 배첩을 하게 된 과정

@ 배첩이라는 일을 처음 하신 때는 언제신가요?

그때는 인제 그 초등학교 인제 졸업 맞고 바로 십오 세 때 인제 이 청주로 나온 거죠. 그래 가지고 그 뭐야 그저 표구가 뭔지도 몰르고 시골에 살다가 동면에 살다가 이렇게 그냥 농사거리도 많지 않고 이렇게 해서 좀 나가보자 이게 어린 마음에도 객지에서 나가서 뭐 기술이나 이런 걸 배워 보자고 마음먹고서 인제 그 동네 어르신들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어디 기술 배울 데 있으면은 좀 얘기 좀 해달라 그래서 에 청주에 표구사로 나오게 된 거죠. 지금 저 선생님이 윤 자 병 자 세 자 쓰시는 분인데.

@ 병 자 세 자 쓰시는 분.

예, 지금 인자 돌아가셨고 돌아가신 지가 오래 됐어요. 그래 인제 그때 열다섯 살 세부터 나와 가지고 죽 이걸 배운 거죠. 배첩 일을 배운 거죠.

@ 배첩이라는 일이 기술이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려서는 뭐 맨드는 걸 좋아했었어요. 그래 가지고 시골에서 뭐 팽이 같은 것도 직접 깎아 가지고 이렇게 돌리고 썰매 같은 거 그런 것도 직접 맨들어서 타고 초등학교 다닐 때도 만드는 걸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 일종의 스승님이 그러면 윤 병 자 세 자 쓰시는 분이라는 데 그분은 어떻게 우연히 아니면 누구 소개로 만나신 것인가요?

그렇죠. 동네 저 저 시골에 에 그 어르신네 소개로 해 가지고 그 뭐 매양(매형) 되신다고 하더라고 그 동네 어르신네. 그래 가지고 그 분 소개로 해가지고 표구사로 들어가게 됐죠.

@ 윤병세 선생님은 그러면 그 일을 그러면 몇 년 정도.

그 선생님도 평생을 그거를 한 거죠 어려서부터.

@ 이 일을 그러면 초등학교 때부터 바로 나오셔서 하시고 지금 이 일을 그럼 거의 한 사십 년 이상?

사십 년이 넘었죠. 그 인제 저 거기서 인제 그렇게 배우다가 또 인제 지금 일산에 계신 선생님 있어요. 저기 중요무형문화재로 계신 저 김 자 표 자 영 자 쓰시는 거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 선생님한테도 많이 배웠죠. 근데 그 선생님도 그 저 윤자 병자 세 자 쓰시는 분한테 배웠고 지금.

@ 말씀하신 그 윤병세 선생님이란 분이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보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걸 예전서부터 인제 그 배우서 가지고 전수를 해주신 거죠. 지금 에 김자 표자 영자 쓰시는 분은 그 일산에 계신데 그 분도 인제 그 윤자 병자 세신 분한테 배우고 또 저도 배웠고, 또 김표영 선생님한테 저도 배웠고 또, 양쪽으로 저는 배웠죠. 내일 거기를 한 번 선생님한테 찾아가 빌려고.

@ 이 일을 평생 동안 거의 해오셨는데 이 일을 하시면서 그 보람 같은 거는 어떤 게 있나요?

근데 보람도 있지만 젤 이게 힘들은 게 뭐냐면 의식주라던가 애들 공부 가르키고 이러는데 굉장히 그 빈약해 가지고 별이가 제대로 안 돼요 이게. 그 경기가 활성화가 되든은 이런 거를 찾는데 걸고 집안에 인제 환경 정리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찾는데 경기가 어려울 때는 그 일일 노가다 하는 것만큼두 돈이 안 들어와요. 그러든 그 하루 일당이 안 들어오는데 거기서 가게 세 내고 뭐 이렇게 할라든 세금 내고 할라든 운영 하기 힘들어요. 그래 가지고 요즘 같은 경우에 인제 낮에는 낮에는 저 노가다 일 하고 밤에 이런 거 하는 분들이 많죠 일을.

@ 여러 가지 요즘 뭐 경제도 어렵고 그래서 예전처럼 그렇게 그 경제적으로 넉넉하지는 못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요즘에 인제 굉장히 그 이 배첩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고생이 많고 애로점이 많은 게 우선 그 생활이 안 되니까. 그카고 생활이 안 되는데도 배울라고 하는 사람들도 별로 없어요. 그 인제 주 생활이 되나 안 되나 인제 천직이다 생각하고 하면은 되는데 그게 어렵다고 해 가지고 그만 두는 중도에 그만두는 사람이 많아요. 그카고 인제 또 보람 있는 거는 거의 그 찢어져 가지고서 버릴 정도 쓰레기통에 버릴 정도 이런 작품을 다시 그걸 전부 일일이 거 복원을 해 가지고 새롭게 이렇게 거 작품을 만들을 때 거 가 조 저 마 빨긴 분들이 그 작품을 맡긴 분들이 과연 이게 내 작품이나 깜짝놀랄 때 그때 굉장한 보람이 들고 보람을 느끼고 또 내가 만든 이 복원한 작품이 또 다음 후대 이백 년 삼백 년 이렇게 후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다는 거 이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그런 걸 만들어노든 굉장히 거 마음 자체가 뿌듯하죠. 돈은 안 되지만.

@ 혹시 선생님께서 그 작업하신 것 중에서 그래도 내로라할 만한 거 이런 작품도 해봤다 이렇게 하실 만한 건 없나요?

그런 것도 많죠 뭐. 큰 뭐 괘불 같은 거. 왜 후불탱화 뭐 괘불은 인제 그 법당에 법당에 작어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못 들어가니깐 밖에다가 걸어놓고 이게 그림을 거 부

처님이나 뭐 이런 그림 그린 걸 걸어놓고 밖에서 예물을 보는 거예요. 그게 초파일날이라던가 큰 행사 때는 법당이 쪼그매 가지고 다 못 들어가잖아요. 밖에서 걸어놓고 보는 건데 그런 그림 자체가 뭐 보통 십사 메더에 십 메더 이렇게 되는 게 많죠. 인제 그런 작품 보수를 하고 그러고 인제 국보 보물 뭐 국보로 지정된 것도 있고 보물로 지정된 것도 있고 그런 게 많죠. 그런 거는 훼손 된 거를 다시 이렇게 전부 새 거마냥 이렇게 할 때 참 좋아하고 내가 그런 거를 이렇게 거 복원을 해 가지고 이렇게 났다는 거 그런 게 굉장히 자신감도 생기고 인제 아 뿌듯하게 인제 앞으로 이거는 한 이백 년 이상 내려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 굉장히 마음이 참 좋죠 흐뭇하고.

@ 그러면 이렇게 배우고 나서 처음으로? 독립이라 그러나요? 그 처음에 배우고 나서 계속 뭐 거기서 몇 년 정도 거기서 같이 하셨나요?

거기서 같이 한 기술을 배운 게 한 십이 년. 그라고 바로 독립을 안 하고 또 그러카고 서울로 올라갔어요. 서울 안국동 관훈동 그 쪽으로다. 거기에 또 예 유명한 뭐 표구사들이 많았었잖아 옛날에는. 그래서 더 배울 배울 기술이 있나 하구선 글루 서울로 진출을 했었죠. 거기서 서울 가서도 한 십 년 그렇게 인제 배우고 또.

@ 청주에 인제 이렇게 정착해서 사업장이라든지 작업장을 만드신 건 언제쯤 되나요?

그건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냥 이런 장인들은 그 날짜 개념이 별로 없어요. 그래 가지고 일하느라고 그저 뭐 날짜 가는 지도 몰르고 몇 연도에 내가 뭘 했는지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래 가지고 장인들은 정확한 연도나 뭐 이런 걸 잘 몰라요.

@ 선생님 그 저 자료를 찾아보니깐 동신당 표구산가?

예, 옛날에 인제 춤 인제 그 서울서 배우고 또 이러카고선 내려와 가지고 인제 그 뭐 제가 참 이렇게 배첩을 배운 데가 청주니깐 고향 고향에 와 가지고 해본다고 해 가지고 원 태어난 고향은 아니지만 배운 고향은 여기 청주가 그래 가지고 청주에 내려와서 동신당이라는 간판을 걸어놓고서 인제.

@ 그게 어디쯤이었죠?

옛날 고 여기 중앙시장이라고요. 옛날 재래시장 있는 데께 있어요. 큰 도로변 거기서 했었지.

3. 앞으로의 바람

@ 그 이 일을 하시면서 그 앞으로의 바람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습니까?

인제 그 이게 그 사양사업이고 이래 가지고 많은 분들이 그 배우지를 못해요. 배울라고 하달 안 해요. 요새는 뭐 돈 되는 거나 배울라고라지 돈 안 되는 건 뭐 이기 안 할라고 하잖아요. 국가나 이런 데서 좀 이렇게 좀 도와주시고 그라면은 그런 배울라고 그런데 관심 있는 분들이 좀 배울 수 있게 조금씩만 도와주시면은 이 배첩이라는 이 저기가 사라지지 않고 영구히 그 후손들한테 물려갈 수 있는 그런 길이 되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이런 전수관 자체도 이게 개인 게 아니고 국가에서 인제 저준 거거든요. 그래 가지고 인제 제가 그 전수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힘들은 거 같아요. 그게 생활이 안 되니깐 거 배울려고 하는 사람이 우선 의식주가 해결이 되면은 그 열심히 배우는데 배우는 사람 또 제가 봉급을 또 많이 줄 수도 없고 그런 게 안씨러워요. 이게 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거는 고런 생활 터전이 좀 될 수 있는 만큼 어 나라에서 이렇게 해줬으면 고게 고런 소망이 있죠.

@ 충청북도 그 배첩장으로 지정된 거는 대체로 언제쯤 한 몇 년 됐나요?

구십구년도에.

@ 여러 가지로 어렵고 하면서도 그 결국은 또 아드님한테 다시 또 이 일을 전수하려고 하는 그 어떤 뜻 같은 거 선생님 있을 거 같은데요.

그런 거는 확실하게 있는 게 뭐냐면은 돈이란 거는 인제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한 건데 이런 문화재 복원이란 거는 한 번 그 문화재를 훼손시키면은 영구히 그 걸 되살릴 수 없는 거예요. 그 없어지는 거지. 우리가 거 남대문이 불타서 없어진 거나 똑같죠. 암만 요즘 기술이 발달되고 옛날 거같이 똑같이 복원을 한다 그래도 요즘 복원한 거지. 그게 옛날에 내려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거나 똑같이 문화재 또 이런 그런 걸 복원을 해가지고 살려놓고 이게 그라믄 본인 자신도 그 사명감이 생기고 또 그 후대 사람들도 복원을 해서 잘 물려주면 후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할 거 아녜요. 우리 선조들이 이렇기 문화재를 물려주셔 가지고 내가 구경을 지금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런 사고방식이 아니면은 이런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우선 돈 버는 게 목적이지 뭐. 이게 돈하고는 전혀 이게 그 연관이 안 되는 거 같아요. 그래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내 팔자에는 돈이 타고 나지를 앓는구나. 이런 생각도 해요.

@ 그래도 명예가 있으시잖아요.

인제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돈하고 바꿀 수 없는 게 그런 거죠.

@ 선생님 그 작은 바람대로 좀 많이 좀 지원도 되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이런 일을 계기로 뭐 또 많이 이렇게 보고 사람들도 관심 갖고 하면 더 나아지겠죠.

그래서 고런 게 인제 그 제가 그 저기 많이 이렇게 선전을 하고 인제 보급하는 의무가 저한테는 있고 그래서 매스컴이라도 내 이런 데서 자꾸 이렇게 우리나라 말 자체를 배첩이라는 자체를 이게 우리나라 좋은 말인데 그걸 지금까지도 거 표구 표구하고 있는단 말이에요. 그게 참 안씨러워요. 그게 표구란 말이 일본말인데 그거를 에 일본어라는 자체도 몰르고서 많이 시내에서 간판을 걸고 표구사 표구사 한다고 그런 게 좀 안씨러워 가지고 많은 거 매스컴에 계신 분들이나 이렇게 기록을 남기시는 분들이 그걸 빨리 그냥 우리말을 전파를 해줬으면 그런 바람이 많이 있죠.

@ 제가 사전을 찾아보는데 표구랑 배첩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인제 거의 그 같아요. 이게 왜 같으냐 하든 이 배첩이라는 자체가 중국에서 내려와 가지고 우리나라로 기술이 그 저 복원 보존이 돼 저기 그게 뭐라고 하는 거.

@ 문화 전파.

전파 그렇죠. 우리나라도 전파돼 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을 또 가리켜 가지고 일본으로 전파를 시킨 거거든요.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거의 같아요. 이게 인제 그 하는 방식이 약간씩만 틀리지. 근데 우리나라 그 배첩은 굉장히 그 투박하다고라 할까. 그카고 일본 배첩은 좀 아주 그 그 뭐라 그랄까. 좀 깨끗한 뭐 이런 식으로 다.

@ 중국은 좀 어떤가요.

중국은 거 뭐 그냥 보통 그냥 많이 그 하는 그런 식이죠. 방법에 따라서 인제 그 수명이 오래 가는데 젤 오래 가는 수명 수명을 가지고 이렇게 배첩을 하는 사람들이 옛날엔 우리나라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나라에서 배첩을 하든 보통 한 삼사백 년은 가도 이렇게 변함이 없는데 일본 배첩 같은 거는 백 년이 거의 못 가는 거 같아요. 만드는 방법에서 틀린 그라고 인제 거 또 재료 쓰는 데에다 또 틀리고. 이게 배첩에서 젤 중요한 게 풀이에요. 물론 재료도 중요하겠지만 그 젤 첫째 일 번이 풀이에요 그라고 두 번째가 재료고 세 번째가 기술이에요.

@ 아, 풀.

예, 물론 재료도 중요하겠지만 그 젤 첫째 일 번이 풀이에요. 그라고 두 번째가 재료고 세 번째가 기술이고.

4. 풀 쪼는 과정

@ 평소에 풀 쪼 때 선생님 한 번 어떻게 쪼시는지 죽 한 번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인제 풀은 인제 그 한 십 년 이상 십 년 전서부터 풀을 쪼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인제 귀한 문화재들을 그렇기 배첩을 하고 인제 이렇게 복원을 한다 그러믄 십 년 전서부터 쪼 풀을 쪼는데 그걸 어떻게 쪼는 현재 방법이 밀가루를 밀가루나 인제 보리쌀이나 이런 거를 에 물에다 담궈 가지고 그걸 썻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불순물이나 영양분 뭐 이런 게 인제 다 빠져나가니깐 다 그걸 썻혀서 버려야 되고 그라다 보믄 에 좀벌레도 좀벌레도 그 영양가가 있어야지 지가 먹는 거지. 영양가가 하나도 없는데 거 먹고 살것어요. 그런 영양가를 이런 거를 전부 썻혀서 내 비리고 그러다 십 년 동안 물을 붓고 썻후고 물을 붓고 썻혀 가지고 인제 그걸 다 버리고, 맨 마지막에 인제 거 약품 처리를 하는데 그 약품이 인제 이런 화학 약품이 아니라 이 자연 풀 뿌리 같은 거 독초 그런 걸 인제 그 물에다 담궈 놔요. 그 풀에다. 그러믄 그 풀에 인제 그 독기가 있어 가지고 거 이런 종이도 거 인제 자연이니깐 종이도 상하지를 앓는 얘기야. 그카고 풀에도 독물이 들어가 있어 가지고 그 뭐 좀이나 무슨 벌레 같은 게 그런 걸 먹을 먹지를 앓죠. 그런 벌레도 자기 그 죽을 줄은 안단 얘기야. 그런 거를 먹으 먹으면 죽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건드리덜 안 하요. 그래야 건드리들 안 해야 좀이 안 먹고 벌러지가 안 먹어야 오래 갈 수 있잖아요. 두 번째는 인제 풀이 그 뭐 당분이 나 뭐 이런 게 많으면 작품에 작품에 누렇게 변색이 와요.

@ 변색이요.

예, 게 인제 그 작품 자체를 버려요. 막 그냥 뭐 뿔긔뿔긔하게 막 이렇게 인제 거기에 그 풀에서 생기는 게 인제 뭐 여러 가지 그 있을 거 아니에요. 거 또 철분도 있고 막 이카니깐 거기서 작품이 누렇게 변해 가지고 작품을 버리는 수가 있어요. 이게 그만큼 거 풀이 중요하고 세 번째는 인제 이 그런 십 년씩 그런 썻혀서 한 풀은 풀이 살아있어요. 그래 가지고 한 백 년이나 이백 년에 이백 년에 그 붙인 거를 분리를 할라믄은 뜨듯한 물로다가 한 칠십제 도치 육십에서 칠십 도 되는 물로다가 이렇게 칠해노

은 담가노른은 싹 분리가 돼요. 그래 복원하기가 쉬워요. 그카고 이렇게 싹후지 않은 풀은 거기에 그 밀이나 이런 데 끈끈이가 있어 가지고 이게 딱딱하게 그냥 굳어 버려요. 그라몬 이거는 분리가 안 돼. 그런 차이가 있고 인제 그래서 옛날에는 꼭 그 풀을 싹혀서 썼지. 그냥 쓴 분들이 별로 없다 그래요. 옛날에는 스님들이 또 많이 그런 걸 하셨더라구요 보몬. 인제 스님들 찾아가서 얘기도 듣고 뭐 이렇게 하다보면 인제 그렇게 나오더라구요.

@ 그러면 풀 한 번 쭈는데 십 년 걸린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그렇죠. 인제 고거를 미리미리 그냥 십 년 전서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냥 밀가루 그냥 개 가지고 쓰몬은 그거는 버리니깐 작품을 버리고 이카니깐 십 년 전서부터 좋은 작품을 할라몬은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래 걸리는 게 십 년 걸린다 이런 얘기.

@ 그럼 그 풀 쏠 때 처음에 인제 밀가루랑 보리쌀 두 개를 같이 넣나요?

아니 따로 따로. 밀풀보다는 보리풀이 접착력이 더 강해요.

@ 그거를 그러면은 싹힐 때는 어떻게 하나요?

인제 향아리에다가 이렇게 담궈 가지고 물을 뿜 노른은 그제 전부 싹어요. 막 그 구데기도 생기고 막 그러지.

@ 대충 그 기간은 얼마 정도인가요?

응, 한 에 육 개월에 한 번씩 물을 갈아줘야 돼요 싹으먼은.

@ 그때 물은 어떤 물을 쓰나요?

수돗물 같은 걸로. 다. 그래 여 앞에 이게 장독이 전부 풀 싹후는 거예요. 이게 여 단지가.

@ 몇 년마다 이렇게. 몇 연도에 처음 하고.

그렇죠.

@ 풀을 할 때 쇠용기는 안 된다고 뭐 이런 게 있던데요.

쇠용기는 들 수가 없죠. 거기다 철분이 있어 가지고 녹이 나 가지고 그 되돌어 앉죠. 그 우리 그 전통 옹기래야지 빨강게 녹이 나지. 뭐 그냥 물에 담귀노면 쇠는.

@ 보리풀 할 때 보리만 그러면 이렇게 썩히나요. 아니면 뭐 거기 첨가물?

아뇨, 보리만 썩히는 거예요 보리만. 이게 저 보리쌀을 물에다 침전을 시켜 가지고 썩히면은 이게 인제 보리가 전부 썩으면은 앙금이 앉고 위에 껍데기는 동동 뜨지.

@ 거기다 또 뭐 소금 뭐 넣지 않는다고 이런 것도 있던데요.

소금 넣으면 안 되지. 소금을 넣으면 염분이 있어 가지고 작품이 변질될 수가 있지.

@ 썩히고 나서 육 개월에 한 번 물 갈아 주고 이런 반복을 하고 최종적으로 한 십 년간 계속 그렇게.

그렇지. 인제 거 거저 십 년 동안 썩후고 나면 거기에 하얀 뭐 진짜 눈보다 더 하얀 앙금이 앉아요. 그 인제 앙금을 그 전분이지. 이제 녹말이죠. 녹말만 남는 거예요. 다 썩히 내 빠리고 그래 가지고 인제 그걸 널어서 말려요. 널어서 말리면 고게 다시 분말이 돼요. 밀가루마냥 분말이 되면 인제 분말을 모아놔다가 내가 필요할 때 그 인제 분말을 다시 물에 타가지고 풀어 쓰는 거죠.

@ 그때 뭐 그 전분 얼마. 또 녹말 얼마 물 얼마 이런 비율 같은 거 이런 거.

인제 그거는 풀을 많이 쭈다 보든 아 요거는 된풀을 쓸 때는 좀 되게 하고 물을 적게 넣구 또 묽은 풀을 쓸 때는 물을 많이 넣어 가지고 인제 그 필요성에 따라서 풀로 쓰는 거예요.

@ 그 된풀과 묽은풀 그 된풀은 어디에?

인제 그 단단히 붙일 때는 거 된풀을 써야 되고 작품 같은 데는 되풀 되게 풀을 쓰면 안 돼요. 작품은 좀 묽게 해가지고 이렇게 붙여야지.

@ 늦봄에 이 풀을 쏜다고 이렇게 돼 있던데 뭐 계절을 따로.

아뇨, 봄에 인제 그 늦봄이 아니라 인제 한 삼 월달 쯤. 삼 월달 쯤 인제 거 밀가루를 향아리다 저 담어 가지고 전부 침전을 시키는 거지. 그때가 인제 그 가장 존 이유는 금방 썩지도 않고 오래 거 밀가루가 풀어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날이 날이 그 저기

너무 더우면은 금방 이게 부패가 돼 가지고 너무 빨리 부패가 되도 안 되거든요. 어느 정도 물하고 밀가루하고 다 혼합이 됐을 때 인제 썩기 시작을 해야지. 이제 존 거지.

@ 풀은 저을 때 이렇게 저을 때 왼쪽으로 젖고 이런 것도 있나요?

그건 없어요.

@ 저을 때 그 나무주걱이나 꼭 뭐 이런 걸로 젖나요?

나무주걱으로 젓어야지. 나무나 주 인제 나무주걱이나 아니믄 인제 또 나무로다가 꺾아가지고 부스는 젓는 거, 쇠는 대믄 안 돼요.

@ 보통 얼마 정도 젖나요?

인제 끓기 시작해서 어 한 삼십 분 이상 오래 끓여야지 풀이 좋은 풀이 돼요.

@ 전분을 만들어서 그걸 다시 또 물을.

물에다 불려 가지고 인제 풀을 쑤는 거예요.

@ 그럼 대충 물에다가 어느 정도.

아, 그때는 그 상관이 없어요. 물에 넣으믄은 전분은 물하고 그 저기 빨리 빨리 이렇게 혼합이 돼요 전분은.

@ 몇 분 끓이고 이런 건 관계없습니까?

아니죠. 한 이제 끓기 시작했을 때 고때서부터 한 삼십 분은 계속 끓여야 되는 거야.

@ 또 뭐 이 체 거르기 같은 것도 있나요?

그렇죠. 근데 인제 거 체에다가 된풀을 인제 걸러 쓰고 묽은풀도 인제 거기에 혹시래도 거 녹물이나 다른 불순물이 들어갔을까 봐 체에다 거르는 거지.

@ 전분을 물에 끓일 때는 뭐 용기는 뭐 따로 어떤 걸 하나요?

대개 인제 전부 플라스틱이죠.

@ 플라스틱에다, 끓일 때?

끓일 때는 저기에다가 솔.

@ 무슨 솔.

대개 인제 무쇠솔이나 아니믄 그 저기 그게 뭐야 양은솔 뭐 이런 데다.

5. 배접지 이야기

@ 배접 할 때 종이는 주로 어떤 종으로 쓰시나요.

종이, 배접 할 때 쓰는 종이는 인제 그 우리나라 한지. 그 전부 딱으로만 된 한지로 갖다가 쓰는 거죠. 닥지, 그 한지 맨드는 데에다 일부러 부탁을 해요.

@ 요즘은 그걸 직접 그 선생님이 만드시거나 그러진 않고 그냥.

부탁을 하지. 거 인제 어 부탁하는 이유는 요즘에 딱이로만 하믄은 단가도 비싸고 또 수지타산이 안 맞으니깐 종이 만드는 분들이 또 중국 딱이나 월남 딱 이런 걸 많이 섞어써요. 그라믄 질이 약하 종이 질이. 그래 가지고 특별히 인제 단가를 한 장당 단가는 비싸지만 그 별도로 우리 거는 이렇게 맨들어주소 하고. 다른 딱이나 뭐 수입딱 같은 능지 말고 우리는 딱이로만 넣어 가지고 이렇게 해주쇼 부탁을 해 가지고 뜨는 거죠.

@ 선생님은 그럼 직접 그 딱은 만들어 보시진 안 하셨나요?

예, 만들어보돈 안 하 첨이.

@ 대충 어떻게 만드시는지.

거 만드는 방법은 전부 알지.

@ 대충 한 번 말씀 좀.

인제 그 딱나무를 거 인제. 일년생이래야 되는 거요. 오래된 거는 안 되고 일년생 되믄은 이 엄지손가락보다 굵어요. 요걸 벼 가지고 그걸 딱나무를 이렇게 묶어 가지고 삶는 거예요. 삶어 가지고 인제 그걸 꺼 저 꺼죽을 뺏기는 거지.

@ 그 삶을 땀 어디다.

그냥 일반 거 뭐 큰 거저기 솔에나 아니든 그 저 뭐기 뭐야. 도라무깡이라 그러지. 왜 석유통 반 잘라 가지고 이런 데다 삶고 그러카죠. 인제 그걸 에 꺼. 꺼죽을 뺏겨 가지고 우에 그 파란 고저 고걸 칼로 뺏겨내는 거예요 그라든.

@ 파란 게 그게 뭐예요?

거죽, 겉대, 나무껍질, 그라든 그 안에 하얀 저 부패 같은 게 나와요 인제 그거를.

@ 백핀가요? 백피?

그게 백피지. 인제 그게 뺏겨낸 게. 그걸 인제 그 백피를 또 잿물에다 삶는 거예요. 잿물이라고 하든은 인제 콩대 메밀대 뭐 이런 거를 태워 가지고 재를 내요. 그 재를 해 가지고 물을 붓고 재에다가 그니깐 삶는 거예요. 또 그카든 그 잿물이 표백효과를 내는 거예요. 인제 거기다 삶아 가지고 다시 빨아서 인제 그거를 나무 매로다가 그걸 치는 거예요. 두드리는 거예요. 그걸 두드려 가지고 전부 거. 거기를 피야 되는 거예요 섬유질을.

@ 섬유질을.

예, 인제 그 섬유질을 다 두드려 가지고 피든은 인제 곱게 피야지 좋은 종이가 나오는 거든. 거 인제 물에다 타 가지고 고걸 황기초라는 풀이 있어요. 그 풀을 풀대궁이 인제 나오는데 뿌리하고 뿌리하고 대궁을 거 저기 거 나무 방맹이로 두드려 가지고 물에다 담그면은 풀이 나와요 풀. 인제 거 풀을 그 종이에다가 거저 섬유질 저 친 데에다가 섞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종이를 뜨는 거지. 이게 종이를 떠 가지고 인제 건조시켜 가 건조대에 인제 건조시켜 가지고 나오는 거지.

@ 대충 그 종이 뜨고 말리는 거는 몇 번씩 한 번에 이렇게 말리시는 건가요?

인제 그 말리는 거는 햇볕에다 말리는 양건지도 있고. 인위적으로다 강제적으로다 말리는 게 있어요. 그거는 인제 철판에다가 불을 때 가지고 인제 뜨겁게 인제 에 물을 끓여서 철판에다가 이렇게 철판이 달을 거 아녀 물을 끓이면. 거기다가 붙여서 어거지로 말리는 거지. 인위적으로 그냥.

@ 그거는 따로 부르는 말 없나요?

그거는 그냥 거 철판지죠, 뭐.

@ 그럼 철판지는 별로 오래 가지는 않겠네요?

인제 오래 가는 거는 그 큰 차이는 없는데 인제 불에다 이렇게 해서 강제로 말린 거는 거 습이 차거나 뭐 이렇게 하면 늘어나고 줄어들고 뭐 이렇게 하는 게 많이 차이가 나요, 편차가. 양건지 같은 거는 자연적으로 말렸으니까 별로 쭈그러드는 것도 별로 많지 않고 늘어나는 것도 뭐 며칠을 해서 별로 안 많죠.

@ 지금 선생님 딱지라고 하는 거 딱으로 만든 그거 쓰시고 다른 건 또 안 쓰시나요?

다른 건 인제 거의 그 일반 그 배짜 표구사에서 쓰는 건 별로 안 써요. 인제 너무 질이 약해 가지고. 딱이 별로 안 들어가고 그 뭘 저 나무 그 저기나 뭐 이런 게 많이 들어 가 가지고 좀 약해 종이가.

@ 그 혹시 딱지 말고 배접지로 쓸 수 있는 거는 또 어떤 것들이 있나요? 종이로?

종이는 그 저기 뭐 나무로 맨들은 게 펄프, 펄프. 펄프하고 이기 저 딱하고 섞어서 쓰는 종이도 많아요.

@ 우리 예전에 써오던 이런 거 딱지 말고 다른 건 없나요?

거의 우리나라선 거의 딱지를 썼죠 뭐.

@ 생지 뭐 숙지 이런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생지 숙지 뭐 이런 거는 그 저기 딱지로 맨들은 게 아니고 그냥 그 펄프지나 어 저기 그 나무 종류로다 이렇게 맨드는 거죠.

@ 펄프라는 말은 우리말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수입 수입 해오는 거지.

@ 또 종이도 뒤에 그 초배지 재배지가 다르던데요?

그걸 저기 그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종이를 달게 써요 다르게. 근데 그거를 거기 에 차이가 똑같은 한지를 써 줘야지 수명이 오래 가는 거지. 그게 첨에 초배한다 그래

서 얇은 종이 아주 약한 종이를 발른다고 이게 그게 그런데 차이가 나는 요새 인제 초배지 하면 양지하고 이렇게 비슷한 종이를 초배할 때 쓴다구요. 그니깐 양지 같은 경우에는 한 삼 사십 년만 되면 파삭파삭 부서져요. 게 오래 가들 못하는 거예요. 그게 처음에도 처음과 끝이 전부 우리 그 좋은 한지를 써야지. 거 삼 사백 년 가도 끄떡이 없는 거지. 이 양지는 굉장히 그 깨끗은 한데 수명이 오래 못 가지. 그런 것도 양지 아니야.

@ 양지라 하는 거는 서양에서 들어왔다는 그런 거.

그렇지. 서양쪽이지.

@ 혹시 또 그 태지라는 것도 들어보셨나요.

그런 건 옛날에도 많이 썼어요. 태지도 마찬가지로 인제 그런 이끼 종류를 해 가지고 고걸 종이 뚜더 그렇게 뚜드려 가지고 그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 직접 만들어도 보셨나요?

아니, 못 만들 만드는 건 못해. 종이하고 만드는 건 인제 저하고는 저기가 틀리니깐.

6. 비단 이야기

@ 선생님 그 비단도 이렇게 취급하시나요? 비단.

비단도 많이 쓰죠.

@ 어떤 종류가 있나요?

비단은 인제 인조가 있고 저 명주가 있고.

@ 대충 선생님 쓰시는 거는 어떤 거 많이 쓰시나요?

인제 인조도 많이 쓰고 명주도 많이 써요.

@ 둘이 차이가 있나요?

인제 명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곱고 인조는 좀 거칠고.

@ 비단은 어디다 많이 쓰시나요?

인제 가에 그 뭐 에 글씨 가에다가 그 이쁘게 붙여주는 건데 사람을 말하면 옷 입히는 거나 똑같아요. 색깔을 인제 고기에 맞는 색깔을 그림이나 글씨에 맞는 색깔을 골라 가지고 고기다가 인제 비단을 붙여 가지고 치장을 하는 거죠.

@ 두 가지 그 외에 다른 거는.

거의 인제 없죠 뭐.

@ 이 비단도 많이 쓰나요?

많이 쓰죠. 거의 다 배첩에는 비단이 안 들어가는 게 없이니깐 거의 쓰지.

@ 그러면 이 비단은 따로 그냥 구입하시나요? 아니면. 뭐.

따로 구입하고 또 명주 같은 거 인저 또 물을 들여서 쓰기도 하고.

7. 배첩과 관련된 도구

@ 배첩을 하실 때 도구 같은 거는 인제 어떤 것들 있나요?

도구가 많죠 인제 솔 종류도 있고.

@ 솔 종류는 어떤 거가 있나요?

인제 아까 말씀 하신 대로 문지름귀얄 뭐 저기 물귀얄 물솔귀얄, 풀솔귀얄 뭐 이런 게 많이 있죠.

@ 또 어떤 게 있나요?

칼 종류도 인제 재단칼도 있고, 예, 나무 깎는 칼도 있고, 또 일자칼이 있고.

@ 일자칼은 어디다 쓰시는 건가요?

인제 그 뭐 같은 거 나무에다 뭐 묻었을 때 고걸 끌어내는 거를 많이 쓰는 거죠. 재단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

@ 대칼 같은 것도 있나요?

대칼도 많죠. 대칼은 전부 만들어 쓰는 거예요. 내가 인제 필요할 때 대나무로다가 깎아 가지고 바로 고 뒤에 있는 게 대칼이에요. 거기 그런 거.

@ 이걸 어디다 쓰는 거예요?

인제 작품을 끼고 또 작품에 인제 그 작품 필 때 필 때도 저런 대칼로 해 가지고 꾸겨지고 뭐 한데 쇠를 대면 종이가 딱딱 떨어지니깐 이게 대나무 대를 대면 나무 종류를 대면 찢어지질 잘 안 해요. 그래서 인제 고런 세밀한 그 작업을 할 때는 고런 대칼로다가 인제 그 만들어 가지고 필요한 대로 여러 가지 만들어 가지고 쓰는 거죠. 어 또 째게도 대나무로 만들어서 쓰고.

@ 집게는 대부분 어떤 용도로 쓰나요?

고것도 인제 종이 들고 땡길 때 송곳 같은 것도 쓰죠.

@ 송곳은 어떤 곳에.

송곳은 인제 그 에 자르는 선 자르는 선을 이렇게 맞출 때 송곳으로 찍어 가지고 표를 해 가지고 저 쓰는 것도 있고 인제 거 접을 때 비단 같은 거 접을 때 송곳으로 이렇게 눌러 가지고 짜국을 내가 이렇게 접는 거 반듯하게 접을라든 고런 것도 쓰고.

@ 용도가 다를 때 이름은 뭐 그냥 다 송곳이라고 특별히 붙이는 이름은 없나요?

특별히 붙이는 이름 없죠. 인제 송곳도 내가 찍는 송곳이 있고, 그 저기 구역을 파는 송곳이 있고 그렇지. 인제 저기 찢르는 송곳은 거 둥그스름하고 인제 구역을 뚫는 송곳은 삼각이 저 가지고 모서리로 들어가면서 모서리로 구멍이 파지는 거지.

@ 가위도 있나요?

예, 가위도 있지. 가위는 인제 그 옛날에 쓰던 가위도 있고 또 요즘에 잠자리피라고 해서 갈아 쓰는 가위도 있고 일회용 가위 요새는 일회용 가위들 많이 쓰죠. 인제 그런 거는 절단할 때 거 비단이나 뭐 이런 거 붙일 때 인제 이렇게 많이 찢르고 이럴 때 많

이 쓰는 거죠.

@ 자는 어떻게 쓰나요?

자도 인제 자는 인제 기억자가 있고 티자가 있고 일반 그 반듯한 자가 있고 치수를 재는 자가 있고 또 이렇게 자를 때 쓰는 자가 있고.

@ 자를 때.

예, 대고 자를 때 반듯이 대고 자를 때.

@ 작업을 할 때는 올려놓고 하는 이런 거는 주로.

인제 작업대에다 올려놓고 하고 여 또 대패 같은 것도 있어야 되고.

@ 대패요? 대패는 뭐 톱이나 대패.

예, 톱하고 대패 다 있어야 되죠.

@ 톱은 어떤가요?

인제 고운톱이 있어요. 아주 섬세하게 잘리지는 톱, 그라고 거칠은 톱은 여기 쓰는데 해당이 안 되고.

@ 대부분 건조판은?

인제 작품을 붙여 가지고 붙여가지고 거기다 말리는 거지. 그카면 평평하게 되는 거 그래 인제 건조판이 문살 마냥 인제 짜 가지고 위에다 한지를 발라서 쓰는 것도 있고 또 옛날에는 그런 식으로 많이 썼고 지금은 화판에다가 화판에다가 또 이렇게 건조대를 만들어가지고 화판으로다 하는 것도 있고.

@ 주걱 같은 거는 어떤 것이 있나요.

나무주걱도 있고 또 일자 나무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 선생님만 쓰시는 도구 같은 거 특별히 있나요.

그런 건 인제 전부 만들어 쓰는 거죠 뭐. 인제 그 삼각대, 삼각대를 삼각적으로 짤

때 쓰는 뭐 이렇기. 사십오 도 지나 고런 것들 만들어 쓰고 뭐. 또 망치 같은 것도 그 저기 나무망치로 해 가지고 나무망치를 만들어 쓰고.

8. 두루마리(족자) 이야기

@ 구체적인 작업 할 때 거 인제 선생님 가장 잘하시는 건 어떤 것이 있나요, 다 잘하시지만. 액자인가요?

액자보다는 족자를 많이 해 두루마리.

@ 족자 종류도 있을 것 같은데.

족자 종류는 뭐 이렇게 어떤 종류라고 하긴 그렇고 형태에 따라서 전부 틀리는 거 니깐. 비단이라든가 뭐 쓰는 것에 따라서 전부 틀리니깐 어떤 족자다 할 게 없지. 통틀어서 족자죠 뭐. 두루마리라 그러죠. 우리말로 두루마리.

@ 아, 두루마리.

명족자라는 건 뭐 그냥 보통 많이 이렇게 하는 게 명족자고 이리카고. 평족자는 한 가지로 해 가지고 비단을 한 가지로 딱 쓰는 기 평족자 이런 기지.

@ 평족자나 명족자를 선생님 두루마리라 그러셨는데 그럼 평족자나 명족자를 따로 우리 순수말로 혹시 선생님 예전에 뭐라고 부르신 거 없어요?

우리말로도 순수하게 불른 게 두루마리여요. 예, 그게 인제 만다. 풀풀 만다 해 가지고 두루마리라 그러지. 그게 옛날 옛날서부터 내려온 말이에요.

@ 그 혹시 이중선 족자라는 것도 들어보셨나요?

예, 그런 거는 인제 그 붙이기 나름인데 그거 선을 두 개 노른 이중선이라고 그거는 맨드는 사람에 따라서 이중도 놓고 삼중도 놓고 할 건데. 그런 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선 하나 더 놓으든 두 개 누른 이중선이고.

@ 선은 뭐로 만드나요?

인제 거 종이 같은 거 물들여 가지고 고런 걸로 인제 배접을 종이를 한 장 붙여 가

지고 이렇게 해서 거 뒤에다 종이를 붙이고 가늘게 비단으로 마무리를 시켜 가지고 이게 가늘게 보이게 하는 게 그게 선이에요.

@ 또 혹시 뭐 이거를 선생님이 따로 부르시는 말은 없나요?

그렇게 뭐 그렇게 특별나게 부르는 거 없어요. 하는 사람 따라서 뭐 이중족자다 뭐 이중선족자다 삼중선족자다 뭐 그냥 그 저 이중 뭐 비단족자다 뭐 이렇 하는데 거의 두루마리는 그냥 통틀어서 두루마리라고 하지. 그걸 하나하나 그냥 설명을 할라든 이게 이거는 두 개 넣어서 이중선이다 뭐 이 설명을 하는 거지 통괄적으로 그냥 두루마리다, 이렇게.

@ 두루마리가 두루마리 들어가는 명칭 같은 게 처음 하실 때 어떤 게 있나요?

곁에 인제 비단 붙이는 거를 우에다 붙이는 거는 천, 천장이라고 하고, 밑에 붙이는 거는 하단이라고 하고, 마구리는 이이 끼는 거 양쪽 봉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 그 일본말 아닌가요? 마구리.

마구리는 일본말이고 우리 우리나라 말로는 뭐 귀마개, 옆에 귀를 그렇게 붙여서 막 아준다 해서 귀마개 뭐 이렇게 많이 쓰는데.

@ 천장, 그리고 하단, 그리고 귀마개, 또 다른 거는 뭐.

잠깐, 내가 적어놓은 거 보여줄게. 생각이 안 나네. 아니 이견 이견 끈, 끈을 승대라고 하고 이게 여게 박는 못 이게 끈을 뗄 수 있는 못을 동비라고 하고.

@ 그 선생님 한자어 같은데 우리말로는 이런 거 특별히 선생님 부르실 때는.

이런 거 특별히 지금 맨들어 낸 게 우리나라 말로 정확하게 이렇게 펴낸 게 없어요. 게 인제 이런 거를 전부 거 중국 거 저기서 많이 따 가지고 한 거지. 이것도 인제.

@ 선생님 그냥 부르실 때 여기를 뭐라 그러시나요?

평소에 할 때 족자못이라고 그라쥬 전부.

@ 이 부분은 평소엔 뭐라고 하시나요?

이견 인제 우리가 할 땐 천두라고도 하고 천강이라고도 하고 지두라고도 이거 다 여

기 거 지금 중국 한자로다가 표현을 한 거거든요.

@ 평소에 쓰시는 말로 좀.

이게 평소에 쓰는 거는 이거 인제 우리가 이거는 저고리라고 하고 이거는 밑에 붙이는 거는 치마 요건 저 중간에 붙이는 거는 중선.

@ 중선은 뭐 따로 그 저기 저고리나 치마 이런 말 안 쓰고 그냥 중선이라고.

그렇죠. 중간에 붙인다고 해서 그냥 중선, 여게 여게 인제 여게 여게 중간에 있는 게 뜨는 게 중선.

@ 중선은 뭐로.

그것도 비단으로다가 인제 붙이는 거죠.

@ 여기에 인제 그 실제 작품이 들어가는 거.

그렇죠. 요기 인제 그 저 화지.

@ 화지. 그 다음에 이 아래는 뭐 따로 뭐 요 부분은.

요 부분 이게 요거 요렇게 해서 중간, 어 중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건 인제 치마, 밑에 요기서 요 치마라고 하는 거.

@ 치마, 그리고 요기는.

인제 요거는 우리나라 귀, 귀마개.

@ 이 안에 이 들어간 귀마개 안에 들어간 그 안에 들어간 건 주로 뭐가 들어가요?

거 저 나무요. 이게 인제 에 요걸 우리말로 인제 저기 축 축이라 그라지. 그라고 나서 저기 축인데 가생이 또 끼는 거예요. 요건 별도로 나무가 아니라 깎아 가지고 끼는 거고 이게 위에 요거는 천관이라는 거는 우리나라 말로 반달이라고 그러지 반달. 나무를 반달같이 깎았다고 해 가지고 반달.

@ 승대라고 하는 건.

끈, 끈, 우리말로 끈이지.

@ 그 끈은 대부분 뭐로 만드시나요?

인제 그 목실로 해 가지고 고걸 인제 엮는 거예요. 거 엮어서 짚 거지.

@ 그 뒷면은?

뒷면은 크게 따로 불리는 게 없어요 우리나라.

@ 이 부분은 뭐 이렇게 탑관인가요?

탑관이라 그라는데 인제 우리말로는 이기 요거를 거 보호대지. 이기 축을 이 축을 이기 떨어지지 않게 종이를 한 번 덧대주는 거라 보호대를.

@ 깃은 어떤 건가요? 깃.

깃은 요런 양쪽으로 접는 거를 깃이라고 그라지. 깃 접, 깃 접는다고 그라지. 이게 인제 천을 이렇게 찢으면은 여게 그 저기 천 실이니깐 보풀이 날 거 아니여. 그래서 요렇게 접어 가지고 붙여요. 이게 이게 깃을 접는다고 하는 거지.

@ 또 풍지는 어떤 건가요?

풍지는 이것들을 풍지라 그라는 거죠. 이거 대나무가.

@ 축꼬리는?

축은 이것들을 축이라.

@ 그러면 인제 어떻게 인제 작품 이렇게 만드시는지 과정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인제 침에 이렇기 작품을 가져오든 그 작품이 인제 그 물감이 물감이 번지는 건가 안 번지는가 그것부터 확인을 해야 돼요. 물을 칠해서 번지 번지는 거는 인제 안 번지게 그 처리를 해야 하는 거니깐. 그렇게 하고서 에 물을 뿌려 가지고 작품을 꾸밈없이 전부 솔 솔로다가 펴야지. 그러구서 뒤에다가 인자 한지를 붙이는 거여. 붙이고 인제 그 다음에 말든 다음에 인제 그 때 가지고 조런 대칼로 떼 가지고 그거를 인제 잘르는 잘르는 잘려야지. 재단을 해야지. 재단할 때 아까 말씀하신 송곳이 필요한 거고 재단칼이

필요한 거고 재단자가 필요한 거요. 그거를 정확히 사귀를 맞춰 가지고 그걸 절단을 해 가지고 그 각이 딱 맞아야 되는 거야. 그게 인제 그 각이 정확하게 맞을라든 그 송곳이 로다 점을 찍어 가지고 점대로 잘르든 정확하게 가시면 가심 각이 맞는 거야. 이게 접는 것도 인제 상하로 다 접고 또 하단으로 해 가지고 양쪽으로도 접고 이렇고든 각이 정확하게 맞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인제 작품 그 재단한 데다가 색지를 붙이는 거지.

@ 그때 색지는 어떤.

그건 색지는 인제 황금색도 될 수 있고 파란색도 될 수 검은색도 될 수 있고 이 여러 가지니깐 거기에 작품에 맞는 색깔을 거게 배합을 해서 넣는 거지. 이게 그 선을 인제 붙이고 색지를 잘라 붙이고 거 우에다 비단을 붙이면서 선을 맨드는 거지. 아까 말씀한 대로 이중선 족자다 뭐 이카는 게 그게 그 얘데요.

@ 종이 붙이고 또 그 다음에 또 어떤.

인제 그 답에 인제 거 방금 말씀한 대로 인제 잘르고서 인제 귀를 접어야지. 그래야지 인제 천이 보풀이 안 나지. 그 답에 인제 귀를 접었으믄 아까 말씀드린 이 축과 반달을 붙일 수 있는 거 요런 봉집을 접어 가지고 봉집을 맨들어야 되는 거요. 뒤에다가 인제 연필로다가 정확하게 거 가지고 반듯하게 이걸 봉집을 붙이야 되는 거야. 요걸 요걸 이렇게 해서 요기다 봉을 대면 붙일 수 있는 봉집을 만드는 거지.

@ 봉집.

이게, 저 접어가지고 요렇게 접어 가지고 인제 이렇게 인제 뒤에다 요렇게 대면은 이게 열어질 거 아니야 열어질 거. 여기 풀칠을 하라니깐 여기는 풀칠을 하고 이게 그런 봉집을 만들어야 된다고. 고 답에 인제 종이로 전체 또 다시 배접을 또 이배접을 하는 거죠.

@ 그리고 이 이런 것들은 언제.

인제 고 배접해서 또 이배접 해 가지고 어 인제 거기에 크기에 따라서 삼배접도 할 수 있고 많게는 열두 번도 해야 돼요. 큰 거는 클수록 작품은 클수록 뒤에다 한지를 많이 붙여줘야 이게 오래 돼도 이게 중심을 이렇게 잡을 수가 있잖아요. 큰 데다가 몇 장만 붙이면은 이게 별로 그냥 약할 거 아니에요 찢어지고. 그니깐 작품이 얼마나 크느냐에 따라서 이배접도 할 수도 있고 삼배접 사배접 십이배접까지 고게 작품에 따라서.

@ 선생님도 직접 십이배접까지 하신 적 있나요?

아, 그럼요. 인자 큰 거는 길이가 한 십오 메다에 거저 폭이 한 십 메다 정도 그런 것들 하는 나무 나무 봉이 아까 이 봉이 이렇게 굵어요. 이렇게 굵은 게 십 메다든 혼자 들기 힘들지 나무 무게만 해도. 그걸 지탱해 줄라든 한지를 여러 번 발려야지. 그카고 또 큰 거는 속에다가 배접하기 전에 속에다 삼베도 붙여야 돼요. 그래야 그 중심을 그게 저 잡아주거든 무게를 잡아준단 얘기. 그렇기 때문에 어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이게 일반 사람들이 큰 거는 뭐 화선지 두 장이다 뭐 한 인저 삼 메다 뭐 일 메다 이런 것들은 크게 크다고라 하는데 큰 거는 뭐 십팔 메다 십 십이 메다 이렇게 되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거는 이 족 두루마리 하나든 여기를 다 차지하지 큰 거는.

@ 그 다음 뭐 뒷면 타격 솔질하기 이런 것도 있나요?

그건 인제 거 족자를 인제 두루마리를 거 풀을 뭍었으니깐 풀기를 거저 약간 거저기 문질러 가지고 뽀뽀한 풀기를 죽여주는 거지. 그게 인제 구슬로도 하고 또 유리병이나 뭐 이런 걸로도 하고 인제 뒤에다가 거 파라핀 같은 것 약간 칠해 가지고 그냥 문질러 문 종이가 보푸래기가 나니깐 그래 가지고 풀기를 죽여주는 역할 하는 거예요 그건.

@ 또, 배접하고.

또 배접을 인제 이배접하고 그 답에 인제 거 지금 말씀하신 거 저기 타격 구슬 같은 걸로 문질러는 거 고걸 하는 거고 고 답에 인제 봉 달고 반달 달고 고 답에 인제 족자못 이렇게 달고 못 그래서 끈 매고 이카든 하나의 족자가 완성이 되는 거죠.

@ 그런 거 하나 하시면 좀 여쭙보기 좀 그런데 가격은 어느 정도.

가격은 인제 그 만드는 데 따르셔도 거의 차이가 많이 나는데 보통 뭐 오만 원에서 또 많게는 한 삼사십만 원 또 하는 거 있고.

@ 아주 뭐 썩 비싼 건 아니네요.

그렇지.

@ 아까 말씀하신 십이배접 뭐 이렇게 하는 거는 되게 돈이 많이 들어 갈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 거는 인제 그 몇 천 단위로 들어 가죠. 그건 크기가 엄청나게 크니깐.

9. 액자 이야기

@ 액자는 그 구조가 어떤가요?

인제 액자는 구조가 인제 평면인 평액자가 있고, 이중액자가 있고 인제 평액자보단 이중액자를 많이 하지.

@ 그 두 개 차이는 어떤 거가 있나요?

인제 거 입체, 입체가 인제 속으로 들어가게 많이 입체를 시키고 평액자는 그냥 평면으로 하는 거고.

@ 액자도 다 이런 명칭이나 있을까요.

인자 평액자는 그냥 평액자고 고 답에 남정식 있고, 외형식 있고 오당식 있고 그런 거지.

@ 그거 오당식은 어떤 거?

작품이 액자 속에서 튀어나오게 하는 거 돌출되게 하는 거 남정식은 들어가게 하는 거, 외형식은 인제 들어가게 하면서 또 나무 테 테에다가 또 선을 박는 것도 있고 그런.

@ 액자도 모양에 따라서 각각 이름이 다 있지 않나요?

그렇지. 근데 인제 저기 그 액자는 가에 인제 테를 거 액자 아 테라고 하지. 액자테.

@ 또 테의 종류도 뭐 여러 가지가 있나요?

근데 그거는 없어요. 족자마냥 그렇게 없어요.

@ 그 살 같은 것도 있나요?

그거는 인제 문살 같이 짜는 게 인제 그거 그거를 엮어서 짜는 거를 액자는 거의다가 그 나무로 해 가지고 이게 문살마냥 짜 가지고 하는 거예요.

@ 따로 뭐 그거를 세로살이다 뭐 기둥살이다 이런 말은.

그런 거 있죠, 속살. 가운데, 안에다 대는 거. 겉살은 이 저기 뚱그랴게 이렇기 대는

게 겹살이여. 겹살은 나무 두께도 속살보다는 약간 두꺼워야 돼.

@ 그 액자 만드실 때 대충 어떻게 그 과정은 어떤가요?

액자 만들 때는 침에 인제 그 액자들을 짜야죠.

@ 액자들. 역시 그 치수가 있어서?

그렇지. 정확하게 인제 작품 크기에 따라서 그 크기를 재야 되니깐 작품에 맞춰서 재야 되는 거지. 이게 그 겹대 겹대 인제부터 짜놓고 고 답에 인제 속살을 넣는 거고.

@ 작품은 그 안에 배접 같은 거?

거 안에다 종이를 여러 번 붙여야죠. 아까 얘기한 초배, 재배. 그것도 인제 재배도 몇 번 하느냐에 따라서 인제 크면은 클수록 여러 번 하고.

@ 비단 같은 거 따로 들어가나요?

비단도 들어가죠.

@ 유리는 언제 넣나요?

유리는 제일 마지막에 인제 옛날에는 유리 같은 게 없었어요.

@ 그럼 뭐로.

안 끼웠지 그냥. 옛날에는 액자가 아니고 인제 현판이라고 했지.

@ 현판은 혹시 만들어보셨나요?

그렇죠. 그건 유리만 빼면 현판이라 그러는 거요.

@ 그런가요?

유리만 끼우면 액자라고 옛날에는 유리가 없었잖아요.

10. 병풍 이야기

@ 병풍은 종류가 어떤 게 있나요?

인제 병풍은 일자병풍 연결병풍 연결병풍이 있고 인제 연결 죽 하나로 피은 연결이 되는 거 이거 각죽병풍이 있고, 혼인할 때 쓰는 병풍 인제 여자들이 혼수품으로 해가는 혼병 있고, 그카고 침병, 머리맡에 치는 거. 그 밖에 저는 인제 큰 대병 인제 거 경사 때 쓰는 거. 또 그걸 뭐라 그러나 저기 여자들 거 저 애기 낳을 때 쓰는 거 병풍이 있는데 그걸 뭐라 그러나 생각이 안 나네. 어, 그거는 그 저 그림이나 글씨가 아무도 없이 백병이야 그냥.

@ 아, 백병.

이게 애기 낳 때 그림 쳐다보든 혼 나가서 없잖아. 옛날에 그런 병풍이 다 있었어요. 그 저 사대부집안에는 애기 낳 때 이렇게 별도로 치는 병풍이 이름이 갑작시리 물으든 생각이 안 나.

@ 또 병풍 구조도 또 있을 거 아닌가요. 저 아까 두루마리처럼 뭐 위에 뭐 천장 있고 뭐 이런 거 있지 않나요?

그렇죠. 인제 그 병풍에 젤 그 작품이 인제 그 화지가 들어가는 거고 답에 화지 바로 옆에 중선이 들어가는 거고. 그 답에 젤 우에 저 치마, 저고리가 들어가는 거고 고 답에 인제 마무리선.

@ 또 뭐 그 마루나 마루테 뭐 이런 것도 있나요? 병풍에?

그런 건 없어요. 인제 병풍은 우리나라에서 이조 때서부터 계속 내려오는 건 발병풍, 밑에 발이 달린 거, 기둥에서부터 이 밑에까지 달린 발병풍이 있고.

@ 발병풍 혹시 만들어보셨나요?

저것도 지금 발병풍 만드는 거예요. 옛날 방식으로다가 똑같이. 그카고 인제 그 일본 사람들이 쓰는 인제 나무대는 나무를 저렇게 마무리 하는 저런 게 저기 우리나라 식이 아니라 일본식이라 저기 병풍 부채 뒤에 있는 거. 저런 식으로 나무를 줄 쫓대를 대 가지고 저렇게 하는 게 있고 근데 저게 우리나라 식인 줄 알아. 저건 일본식이거든. 우리나라는 이게 우에 이렇게 후레임 대는 게 없어요. 쫓대 대는 게.

@ 그 병풍 그림 처음에 만드실 때 병풍 좀 복잡할 것 같은데 병풍을 어떻게.

우선 작품 가지고 그 병풍을 얼마나케 맨들 것인가 그거를 인제 구상을 해야죠.

@ 구상을 하고.

그 답에 인제 그 거기 구상을 몇 자루다가 찢 것이나 구상을 했으면은 고거를 인제 맞춰 가지고 병풍기를 인제 그 맞춰서 짜야지. 틀을 짜야지. 인제 틀 짜는 건 아까 액자를 마냥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인제 속살 겉살 이렇게 해 가지고 고거를 문살 마냥 이렇게 엮어서 짜는 거예요. 다음에 인제 초배를 하고 재배하고.

@ 병풍이 하나도 있고 또 연결 됐을 때 연결은 어떻게 하나요?

고거는 인제 종이로다 연결을 하죠.

@ 그 종지도 약간 특수한 종이.

우리나라 한지 한지로다가 그 경첩마냥 문고리에 다는 경첩마냥 한지를 오려 가지고 그렇게 붙여요. 지그재그로다가 하나 떼어서{떼어서} 이렇게 붙이고 또 이렇기 반대로 하나 떼어서 붙이면은 이게 접었다 폈다 되거든? 인제 그런 식으로다 한지를 발라 가지고 연결을 시키는 거지. 고 우에다가 또 에 인제 뒤집어 가지고 또 한지도 한지 또 한번 발르고 그 답에 또 뒤집어서 인제 천을 발르고.

@ 천을요?

인제 삼베도 발르고 어 광목도 발르고 옛날에는 거의 다 삼베로 했죠. 인제 고런 식으로 연결을 하든 이게 썬보더 더 오래 가요. 쇠는 나무에다 박으면 나무가 녹이 나 가지고 상하잖아요. 근데 한지를 종이를 발르든 나무하고 종이하고는 융합이 돼 가지고 상하들 안 하요.

@ 그 다음 비단도 또 붙이고 이런.

인제 비단은 에 작품 붙이고 나서 비단을 붙이는 거여. 인제 종이를 저걸 한 장 한 장 저, 저기 틀을 짤 때는 이렇게 종이를 한 다섯 여섯 번 발르고 한 데다 뭉쳐서 그걸 간초롱이 해 가지고 뽀뽀하게 대패질을 하지. 대패가 그때 필요한 거예요.

@ 병풍은 나무도 들어가지 않나요?

나무가 많이 들어가죠.

@ 나무는 대부분 어떤 나무를.

나무는 인제 오동나무하고 또 소나무, 또 미송.

@ 세 가지 중에 어떤 게 가장 많이 쓰이나요?

옛날에는 오동나무를 많이 썼어요.

@ 오동나무를 많이 쓰는 이유가.

인제 가볍다고 해 가지고 오동나무가 가볍잖아요. 그래서 많이 썼는데 오동나무가 또 가벼운 대신 약해 잘 뿌러져. 그게 흠이지. 그게 소나무나 미송을 요즘에는 많이 써요. 그게 잘 뿌러지도 않고 그러니깐.

@ 그러면 그 저기 판 같은 거 깎을 때는 어떻게?

옛날에는 다 그걸 일일이 대패로 해 가지고 깎아 썼는데 요즘에는 인제 그게 인제 심들으니깐 목공소 같은 데 가서 자동 자동대패 뭐 이런 걸로다 깎는 거지.

@ 예전에는 그러면 직접 대패로 만들어보셨네요?

예전에는 다 대패로 깎아서 맨들었어요.

@ 그러면 소나무가 있고 그거를 서로 연결할 때는 어떻게.

인제 나무를 인제 제재소 같은데 가면 이런 나무가 있잖아. 그걸 인제 제재를 하는 거. 내가 필요한 용도대로 제재를 하는 거지. 그래 가지고 제재를 해가지 와서 나무를 인제 한 몇 년씩 말리는 거지. 말려 가지고 대패질을 해 가지고 그래 하고서 인제 짜기는 거죠. 짜기를 시작하는 거지.

@ 그 보통 클 때 큰 거는 서로 연결도 해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연결을 연결은 인제 이런 거지 뭐여. 끝 같은 걸로다가 이렇게 파 가지고서 파가지고서 같이 이렇게 엮어주는 거지. 이렇게 속 들어가게 이렇게 디근자 식으로 해 가지고 우에도 이렇게 끼면은 똑같이 면이 맞을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다 엮어서

짜는 거예요.

@ 뭐 이름 같은 거 혹시 생각나시나요?

고건 이름을 잘 모르겠네.

@ 그리고 그 담에 인제 비단 붙이고 그 다음에?

그렇죠. 밑에 하단은 치마라고 하고 위는 저고리라고 하지. 치마는 좀 넓고 위는 저고리는 좀 작잖아. 그니깐 우에 작은 데는 저고리, 큰 데는 치마라고.

11. 고서 장정 이야기

@ 이것은 뭐죠?

오침법.

@ 다섯 개가 있어서요.

예, 다섯 구멍을 해 가지고 인제 꿰맨다 그래서 오침법 그러카고 우리나라만 오침법을 쓰지. 저 중국이나 일본은 사침이에요.

@ 오침하는 특별한 이유 같은 건 있나요.

어. 오침하는 게 좋은 게 뭐냐하든 이게 인제 가생이는 이게 좁게 하고 가운데는 넓게 해야지. 이게 똑같이 하든 여기가 질 잘 마모가 돼요. 마무리가 여게 망가지고 이런다고. 책이 가차이 꼬매야지 좋은 거지. 그라고 요거를 꼬맬 때 인제 실을 짤 때는.

@ 이게 실인가요?

예. 이게 인제 묵실 이걸 세 번 이렇게 해 가지고 세 번 재 가지고 하면은 되는 거요. 그면 하나가 딱 꼬매져. 양을 이게 재 가지고 해야지. 얼마가 들어갈지 모르잖아.

@ 세 번을 하고 그러면 얼추 맞다고 하는 건가요.

그렇지. 그 책 꼬매는데. 이 무명 이게 묵화실에는 이 밀랍을 칠해줘야 질겨요 실이.

이게 그래서 예. 옛날서부터 이거 꼬맬 때는 이 밀랍을 꼭 칠해 가지고 꼬맸다고 그래서 인제 요거를.

@ 요건 뭔가요?

꼬매는 바늘이요.

@ 그냥 바늘이라 그러나요?

그렇죠.

@ 요거는.

바늘귀가 있어야지 실을 꼬맬 거 아니여. 아주. 아주 옛날에는 요걸 대나무로도 해서 꼬매고 그랬죠.

@ 대나무 대나무바늘 뭐라 부르나요?

대바늘이지. 이게 책을 꼬맬라든 인제 첨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가생이부터 중간에서부터 할 수 있는데 가생이로 하는 게 쥔 좋아요. 이게 어느 정도 하고 거기서 인제 실이 들어가는 거죠 돌려 가지고.

@ 엇갈려서 하는 거네요.

그렇죠. 이렇게 해야 끊어져도 잘 풀리도 않고 또 오래 가지.

@ 이거는 뭐라고 따로 부르는 이름이 있나요.

특별하게 부르는 용어는 없어요. 그건 이게 한 번 거 간 데를 몇 번씩 이렇게 지나가게 되지. 그래 실이 잘 풀리덜 안 해 끊어져두.

@ 이 끝에는 이렇게 한 번 더 해주는 건가요?

그렇지. 여기 여기까지 이렇게 매주는 거지. 한 번 돌려 가지고 여기도 매주는 거지. 그래야 이 책이 여기 망가지덜 않고 이렇게 오래 보는 보존이 돼요. 그라고 한지는 부드러운 거 가지고 이렇게 세워 놓으믄 구겨져요. 여기가. 그래서 꼭 그렇게 여러 번 왔다 갔다 해야지 좋은 거예요.

@ 바늘이 들어가는 이 구멍 저건 뭐라 그러나요?

예, 그거는 저저 송곳이로 옛날에는 송곳 그걸로다가 저기 두드려 가지고 구멍을 뚫렸어요. 이렇게.

@ 그러면 그게 뭐 책구멍이라 그러나요?

그렇죠. 책구멍이라 그러는 거죠. 별도로 인제 불르는 건 없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인제 율로 빼 가지고 이걸 묶는 거죠. 속에서 그라믄 아까 세 번 하믄은 딱 맞는다 그랬잖아. 그라믄 딱 길도 얹고 짧도 얹고 딱 맞잖아. 이 어느 책이든지 고령기 세 개를 하면은 딱 맞아요.

@ 실은 대부분 몇 개 정도 하나요?

묵실뿐이 안 썼어요. 이게 나이롱이나 뭐 이런 거 쓰믄은 그 저기 책이 상하요.

@ 묵실은 성분은 어떤 건가요?

무명이지. 목화솜.

@ 목화솜? 이런 거는 따로 파나요?

예, 팔아요. 인제 이런 목화. 무명실이 많이 안 쓰니깐 좀 귀해요. 서울 같은 데서 인자 한 번 사다놓고 많이 사다놓고 쓰는 거 이게 여기서 옥매듭을 저야지 안 지면은 인제 풀르는 게 저거.

@ 옥매듭은 뭐죠?

옥접 맨다는 거 하 옛날 말로다 옥접 맨다. 우리 전통 말이지. 옥접 매는 게 이렇게 해서 딱 풀을 수 없게. 이렇게 해서 찼맨단 얘기야. 이렇기 풀르 풀르. 이렇게 골을, 골을 내 가지고 찼매고 이렇게 고를 내 가지고 찼매는 거고 접은 풀리지잖아. 이거는 옥접 맨다는 거는 이렇게 찼매 가지고 한 번 찼매노믄 풀르지도 않는 거지 잡아댕기믄. 잡아댕겨도 안 풀러. 안 그렇잖아. 이게 옥접 매는 거고.

@ 또 다르게 매는 방법도 있나요?

다른 경우에는 그런 고내 가지고 매는 거 그니깐 아까 얘기한 대로 고 내는 거는 인제 풀를 때 풀르기 좋게 이렇게 찼매구 찼매잖아요. 그렇게 하면 풀를 거 예상하고서

이렇기 고를 낸다 얘기에 이렇기.

@ 고.

고를 낸다고 고. 그래 가지고 풀를 때 다시 풀를 때 이거 싹 잡아댕기고 다시 풀러지잖아. 옥매는 게 있고 고매는 게 있고 이렇게 해서 요걸 이걸 이렇게 쳐 놓으면은 어디서 땀는지를 모르잖아. 그래서 쳐놓으면 탁 덮으면 인제 맨 끝이 없단 얘기가. 안 보이잖아. 이게 속으로 들어가서 안 보이잖아. 그런 식으로 해서 옛날에 책을 많이.

@ 이거는 어디에 쓰는 건가요?

그거는 내 연장 맨들어 쓰는 거예요.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인제 그거 필요할 때 다 쓰느라고. 대나 대칼을 많이 써요. 그라고 대칼은 종이하구 대칼하고는 쇠를 대면 종이가 잘 찢어져도 나무 종이로 하든 종이로 안 찢어지는 거예요. 게 인제 오래 된 거 뭐 구겨진 거 뭐 이런 걸 피고 뭐 할라든 거 인제 대칼로다가 이렇게 밀어가매 피는 거지.

@ 밀랍 좀 한 번 밀랍은 성분이 뭐로 만드는 거죠?

이게 성분이 이거 왜 꿀벌 있잖아요. 꿀벌 그 집이에요. 그걸 인제 모아 가지고 녹혀서 이걸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인제 이조실록두 이런 밀랍번이라 그래 가지고 아까 이런 식으로다 책을 책을 인쇄를 해 가지고 여기다가 밀랍을 전부 먹였어요 이걸.

@ 책에다가요?

책에다 그래 가지고 이 책이 거 종이가 상하지 않게. 아주 코팅을 해버린 거지.

@ 그래 예전으로 말하면 코팅 같은 거네요.

그렇지. 지금은 코팅이지만 옛날에는 옛날에는 그게 코팅 방법이지.

@ 밀랍을 먹이면 뭐가 좋은가요?

예, 그라든 이게 바람이나 뭐 이게 통풍이 잘 안 되니깐 상하될 안 해.

@ 그럼 좀벌레가 안 먹나요?

그런 게 먹될 않지. 게 저기 이 꿀벌 집이나 이런 데는 거 좀이 먹될 못 해요. 그래

가지고 종이가 줌이 먹덜 안 하니깐 상하질 않지.

@ 그래서 오래 가나요.

오래 보관 할라고 이조실록을 갖다가 그 당시에 코팅을 한 거여. 그니깐 그 우리 조상님들이 머리가 굉장히 좋으신 거지. 코팅을 할 생각을.

@ 귀한 책 같은 경우 선생님 직접 다 이렇게 하신 것도 있나요?

그렇지. 다 맨드는 거지 그거를.

@ 밀랍 먹인다 그러나요?

그렇지. 밀랍을 인제 입히는 거지. 종이 위에다가 싹 입히는 거니깐.

@ 몇 번씩 하나요?

몇 번씩 하면은 이게 굳어 가지고 안 되고 두께가 틀려요. 이게 한 번에 탁 먹여야지 두께가 일정하고 짝 나오지.

@ 좀 힘드시죠? 장시간 매우 고맙습니다.

제 4 장 조사된 어휘

1. 배첩이란?

일반적으로 ‘그림의 뒷면이나 테두리에 종이 또는 천을 발라서 꾸미는 일’을 ‘표구(表具)’라 하는데, 이는 일제 강점기 시대에 일본의 표구법이 도입되면서 일반화된 용어로 알려졌다. 표구와 관련된 우리 전통적인 용어는 ‘장황(粧潢)’이 일반적이며, 여기에 ‘배첩’이라는 용어도 함께 쓰인다. ‘장황’이란 ‘비단이나 두꺼운 종이를 발라서 책이나 화첩(畫帖), 족자 따위를 꾸미어 만듦’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갖는데, ‘배첩’은 이러한 장황의 한 과정으로 서화의 뒷면에 종이나 천을 붙여 얇고 약한 비단이나 종이를 보강하여 보존하는 방법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배첩’만으로도 장황과 크게 차이가 없이 쓰여, ‘서화에 종이·비단 등을 붙여 족자·액자·병풍 등을 만듦으로써 거기에 미적 가치는 물론 실용성 및 보존성을 높여주는 전통적인 서화 처리 방법’으로 쓰인다.

그런데 ‘표구’라는 어형은 국어사 자료에 잘 드러나지 않는다. 『조선왕조실록』에서도 ‘표구’라는 용어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 대신 ‘장황’이란 용어가 널리 쓰였다.⁴⁾ 이렇게 본다면 ‘장황’이 역시 보다 오래된 한자어라고 할 수 있다. 또, 한자어 ‘배첩(裱貼)’도 보이는데, ‘배첩장(裱貼匠)’이란 표현을 찾아볼 수 있다.⁵⁾ ‘배첩’은 조선 왕조 초기부터 제도화되어, 배첩에 종사하는 사람은 도화서(圖畫署) 소속으로 궁중의 서화 처리를 전담하였다. 따라서 ‘배첩’은 ‘표구’라는 말보다는 보다 오래 전부터 사용된 용어임에 틀림없다.⁶⁾

우리나라는 고려 시대 이후 불교적 작품이나 회화 작품이 많이 제작되었고, 이들을 보존하고 장식하려는 목적으로 ‘배첩’ 기술이 발달되었다고 한다. 특히, 종이나 비단에 그려지는 그림은 쉽게 망실되기 때문에 재료적인 단점을 보완하고, 오래도록 보존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배첩 기술이었다.

배첩 작업에는 대체로 네 가지로 나뉜다. 즉, ‘병풍, 액자, 두루마리, 그리고 고서화 장정’이다. 그 중 두루마리가 가장 일반적인 작업 방법이다. 그것은 공간일 차지하지 않고,

4) 삼가 동자(董子)와 주자(朱子)의 격언(格言)을 좇아서 글 두 축(軸)을 만들어 장황(裝潢) 하여 올리니(謹撫董子、朱子之格言, 書成兩軸裝潢以進)〈성종 21년(1490) 경술 8월 25일(을사) 7번째 기사〉.

5) 배첩장(裱貼匠) 김길(金吉)은 금군을 제수하고(裱貼匠金吉禁軍除授)〈인조 6년(1628 무진) 10월 3일 2번째 기사〉

6) 그러나 〈표준국어대사전〉(1999)에는 ‘표구’와 ‘장황’이라는 단어는 올라 있지만 ‘배첩’이라는 단어는 올라 있지 않다.

휴대하기도 편하기 때문이다. 이들 배첩 작업은 각각의 필요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각각 장점과 단점이 있기 때문이다.

2. 재료

2.1. 풀

배첩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풀’이다. 배첩장 홍종진도 “첫째가 풀이고, 두 번째가 재료고, 세 번째가 기술이다”라고 말하는 데에서도 배첩에서 ‘풀’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풀’은 배접 때 주로 사용하게 되는데 벌레나 기타 곰팡이의 영양분으로 이용되면 작품에 손상이 가게 될 수 있고, 또 작품에 물이 배게 될 수도 있어 배접에 있어 그만큼 중요한 재료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배첩에 쓰이는 풀은 일반 풀과는 달리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 만들게 되는데, 보통 10년 이상의 제작 과정을 거친다고 한다. 배첩에 이용하는 풀의 종류와 만드는 과정, 그리고 재료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진 2] 풀

2.1.1. 주 재료에 따른 분류

1) 밀풀

밀풀은 ‘밀가루로 쏜 풀’을 말한다. 밀가루의 점성을 이용하여 만든 풀이라고 할 수 있다. 풀이 언제부터 사용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매우 이른 시기부터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국어사 자료에서도 15세기 자료인 『구급간이방』에 ‘밀프레 룡두마곰 환 밍ᄃ라’라는 표현에서 ‘밀풀’이라는 어형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산림경제』 등에서도 밀가루로 풀 쑤는 법이 나와 있는 점 등을 볼 때 전통적으로 밀가루로 풀을 쑤는 것이 일반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 {밀풀보다는} 보리풀이 접착력이 더 강해요.

2) 보리풀

보리풀은 ‘보리쌀’을 주재료로 하여 만든 것이다. 보리쌀을 물에 담가서 침전시켜서 오랫동안 썩혀서 앙금이 생기게 되는데 그것을 말려서 풀로 이용하는 것이다. 보통 ‘밀풀’보다는 보리풀이 접착력이 강하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는 밀풀을 더 많이 사용한다고 한다.

⇒ 그럼 그 풀 쓸 때 첨에 인제 밀가루랑 보리쌀 두 개를 같이 넣나요? 밀풀보다는 {보리풀이} 접착력이 더 강해요.

2.1.2. 물의 양에 따른 분류

1) 된풀

‘된풀’은 밀가루나 보리쌀로 만든 풀을 분말 상태로 보관하게 된다. 된풀은 보통 물을 적게 넣어 끓인 것으로 된풀을 단단히 붙일 때 주로 쓰게 된다.

⇒ 물을 많이 쑤다 보든 아 요거는 {된풀을} 쓸 때는 좀 되게 하고 물을 적게 놓구.

2) 묽은풀

분말 상태로 보관한 풀을 필요할 경우, 물을 붓고 끓여서 사용하게 되는데 물을 보통 보다 많이 넣게 되면 ‘묽은풀’이 만들어지게 된다. ‘묽은풀’은 보통 작품에 많이 쓰게 되는데 이것은 ‘된풀’을 쓰게 되는 경우, 나중에 분리할 때나 어렵고, 또 풀기가 작품에 배게 되기 때문에 작품의 배접 시에는 ‘묽은풀’을 사용하게 된다.

⇒ 또 {묽은풀을} 쓸 때는 물을 많이 넣어 가지고 인제 그 필요성에 따라서 풀로 쓰는 거예요.



[사진 3] 묽은풀

2.1.3. 풀의 재료

1) 밀가루

풀의 재료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것이 ‘밀가루’이다. 밀가루를 사용하여 풀을 쓰는 것은 조선시대의 어진 제작과 같은 경우에도 널리 쓰였다. 보통 밀가루를 물에 침전시켜 만든 전분을 사용한다.

⇒ 십 년 전서부터 쪽 풀을 쑤는데 그걸 어떻게 쑤는 현재 방법이 {밀가루를} 밀가루나 인제 보리쌀이나 이런 거를 에 물에다 담궜 가지고 그걸 썻춰야 되는 거예요.

2) 보리쌀

풀의 주재료로 ‘보리쌀’도 이용된다. ‘보리쌀’은 밀가루보다 찰기가 더 있기 때문에 보리쌀로 만들면 점성이 강한 특성이 있다. 그러나 보리쌀로 만든 풀은 곰팡이 균 등의 착상을 도와서 밀가루보다 작품이 쉽게 상하는 경향이 있어 현재는 보리쌀로 만든 풀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만들지 않는다고 한다.

⇒ 밀가루나 인제 {보리쌀이나} 이런 거를 에 물에다 담궜 가지고 그걸 썻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불순물이나 영양분 뭐 이런 게 인제 다 빠져나가니깐

3) 백반

‘백반’은 『표준국어대사전』에 의하면 ‘칼륨, 암모늄, 나트륨 따위의 일가(一價) 금속의 황산염과 알루미늄, 크롬, 철 따위의 삼가(三價) 금속의 황산염으로 이루어진 복염(複鹽)을 통틀어 이르는 말’로 되어 있는데, 짭은 맛이 나고 물에 녹으면 산성을 띤다고 한다.



[사진 4] 백반

백반은 예로부터 풀 쭈는 데에 이용되어 왔는데, 본초강목에는 “백반을 물에 타서 종이에 글을 써서 말리면 물이 서에 침투하지 못하니 그 약성이 습을 물리치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한다(백영미·이영희, 2008). 백반을 풀에 넣어 사용하면 배접 시 색깔이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한다.

⇒ 다른 거는 뭐 거기다가 숙지황도 넣구 또 여러 가지 넣는 넣어요 {백반도} 넣고.

4) 숙지황

숙지황(熟地黃)은 ‘생지황(生地黃)’을 아홉 번 찌고 아홉 번 말려서 만든 약재’로 알려졌다. ‘지황(地黃)’은 본래 현삼과의 여러해살이풀로 높이가 30cm 정도이며 6~7월에 연자주색 꽃이 핀다고 한다. 이것의 뿌리를 보통 한약재로 사용하는데, 풀을 쭈는데 숙지황을 넣으면 독초로 기능하여 좀벌레가 먹지 않는다고 한다.

⇒ 다른 거는 뭐 거기다가 {숙지황도} 넣구 또 여러 가지 넣는 넣어요.



[사진 5] 숙지황

5) 할미꽃뿌리

할미꽃은 『표준국어대사전』에 의하면 미나리아재빗과의 여러해살이풀로 높이가 30~40cm 정도로 알려졌다. 그리고 4~5월에 자주색 꽃이 줄기 끝에서 밑을 향하여 피고, 열매는 긴 달걀 모양의 수과(瘦果)로 5~6월에 익는다고 한다. 또, 독성이 있어 독초로 쓰인다고 한다. 할미꽃뿌리를 밀가루를 섞힐 때 넣어주게 되는데 균이나 벌레가 기생하는 것을 방지해 주기 때문이라고 한다.

⇒ 그때 들어가는 독초가 뭐 말씀하신 우리말 말씀하신 거 같은데 우리 그 독초는 그 저기가 있지요 {할미꽃뿌리}.

2.1.4. 풀 쭈는 과정

1) 담구다(담그다)

풀을 쭈기 위해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밀가루나 보리쌀을 물에 담그는 작업이 필요하다. 보통 3월 쯤에 수돗물을 항아리에 받아서 담그게 된다. 날씨가 너무 더우면 쉽게 부패가 되기 때문이다. 배첩장은 ‘담귀’와 같이 ‘담구다’로 설명하였다.

⇒ 인제 항아리에다가 이렇게 {담귀} 가지고 에 물을 뷔노믄은 그게 전부 썩어요.



[사진 6] 담그기

2) 침전시키다

보리쌀이나 밀가루를 가라앉혀서 침전시킨다. 그럴 경우 양금은 가라앉고 껍데기는 뜨게 된다.

⇒ 삼 월달 쯤 인제 거 밀가루를 항아리다 저 담어 가지고 전부 {침전을 시키는} 거지.

3) 썩후다(썩히다)

보리쌀이나 밀가루 양금을 항아리 안의 물에 담가 놓으면 그것이 전부 검게 썩게 된다. 이때 구더기도 생기기도 냄새도 고약해진다.

⇒ 이게 그만큼 거 풀이 중요하고 세 번째는 인제 이 그런 십 년씩 그런 {썩히서} 한 풀은 풀이 살아 있어요.



[사진 7] 썩후다(썩히다)

4) 물 갈아주다

밀가루 등을 물에 담가 두면 썩게 되고 불순물이 생기게 된다. 이때 물을 지속적으로 갈아 주게 되는데 대략 육 개월에 한 번 물을 갈아 준다. 그리고 이때 쓰는 물은 수돗물을 사용하면 된다고 한다.

- ⇒ 인제 향아리에다가 이렇게 담궈 가지고 에 물을 뉘노문은 그게 전부 썩어요. 막 그 구데기도 생기고 막 그러지. 한 육 개월에 한 번씩 {물을 갈아줘야} 돼요 썩으면은.

5) 말리다

밀가루나 보리쌀 등을 썩혀서 완전히 영양분이 빠져 나가고 앙금이 생기면 그것을 햇볕 등에 널어서 물기를 제거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래서 흰 가루 형태로 보존하게 된다.

- ⇒ 십 년 동안 썩후고 나면 거기에 하얀 뭐 진짜 눈보다 더 하얀 앙금이 앉아요. 그 인제 앙금을. 그 전분이지. 녹말만 남는 거예요. 다 썩혀 내빼리고. 그래 가지고 인제 그걸 널어서 {말려요}.

6) 풀썩다

흰 가루 상태로 있는 것을 끓여서 필요할 때마다 풀을 쑤게 된다. 보통 무쇠솥에 끓인다고 한다.

- ⇒ 그렇게 인제 풀이 되는 거죠. 그거 걸러 가지고 {풀을 쑤는} 거죠. 이 쑤 때마다 필요한 만큼 인제. 풀을 썬서 쓰는 거예요.

7) 체에 거르다

풀을 쑤 후에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고운체로 거르는 과정이다. 녹물이나 불순물이 들어가면 작품 손상의 직접적인 이유가 되기 때문이다.

- ⇒ 근데 인제 거 체에다가 된풀을 인제 걸러 쓰고 묶은풀도 인제 거기에 혹시라도 거 녹물이나 다른 불순물이 들어갔을까봐 {체에다 거르는} 거지.

8) 깨다

끓인 풀을 솔로 비벼서 잘 깨는 작업이다. 이때 덩어리가 지면 작품이 울퉁불퉁하게 되므로 덩어리가 없이 곱게 깨야 한다. 보통 풀솔귀얄로 깨게 된다.

- ⇒ 인제 고거를 미리미리 그냥 십 년 전서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냥 에 밀가루 그냥 {깨} 가지고 쓰면은



[사진 8] 깨다

2.2. 한지

우리나라 고유의 제조법으로 만든 종이를 ‘한지(韓紙)’라고 한다. 한지는 보통 닥나무 껍질 등을 원료로 하여 만든다. 특히 한지는 변형이 별로 없고 내구성이 좋아서 배첩용으로 널리 이용된다. 특히 작품이 클수록 종이를 많이 붙이게 되는데 작품이 큰 경우 십이 배접까지 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야만 전체 중심을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 ⇒ 종이, 배접할 때 쓰는 종이는 인제 그 우리나라 {한지} 그 전부 딱으로만 된 한지로 갖다가 쓰 는 거죠.

2.3. 딱(닥)

‘딱(닥)’은 ‘닥나무’의 준말인 ‘닥’이 어두경음화를 겪어 실현된 것이다. ‘닥’은 한지의 가장 중요한 재료인데, 닥나무의 껍질을 벗긴 백피를 삶아서 만든다. 닥나무도 한국산은 비싸기 때문에 중국산이나 베트남산 닥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만든 한지는 질이 떨어진다고 한다.

- ⇒ 요즘에 {딱이로만} 하믄은 단가도 비싸고 또 수지타산이 안 맞으니깐 종이 만드는 분들이. 또 중국딱이나 월남딱 이런 걸 많이 섞어쎬요. 그러믄 질이 약하.

2.4. 황기초

‘황기초(黃芪/黃耆草)’는 콩과의 여러해살이풀로 높이가 1미터 정도이다. 보통 ‘황기’나 ‘기초(芡草)’로 부르기도 하는데, 이것에 대한 고유어는 ‘단너삼’이다. 15세기의 국어사 자료에는 ‘튼너삼(『구급간이방』)’으로 나와 일찍부터 약재로 쓰였다. 물에 닥나무 껍질과 황기초를 이용하여 한지를 만든다.

- ⇒ 물에다 타 가지고 고걸 {황기초라는} 풀이 있어요. 그 풀을 풀대궁이 인제 나오는데 뿌리하고 뿌리하고 대궁을 거 저기 거 나무 방맹이로 두드려 가지고 물에다 담그믄은 풀이 나와요

2.5. 잣물

‘잣물’은 짚이나 나무를 태운 재를 우려낸 물로 예전에 주로 빨래할 때 썼다. 한지를 뜯 때, 닥나무 껍질을 벗겨낸 백피와 ‘콩대’나 ‘메밀대’ 등을 태운 잣물을 시루에 넣고 삶는 과정이 필요하다.

- ⇒ 백피를 또 잣물에다 삶는 거예요. {잣물이라고} 하믄은 인제 콩대 메밀대 뭐 이런 거를 태워 가지고 재를 내요.

2.6. 종이류

2.6.1. 건조 방식에 따른 분류

1) 양건지

닥나무와 황기초를 이용하여 종이를 뜨고 나면 말리는 과정이 필요하게 된다. 이때 햇볕에 말리는 종이를 ‘양건지’라고 한다. 햇볕에 말리면 자연적으로 건조가 되니까 줄어들거나 늘어나거나 하는 변형이 별로 없어 종이의 질이 좋게 된다. 다만 종이가 평평하지 않고 조금은 주글주글한 상태를 보인다. 족자에서 네 번째 배접 등에 사용된다.

- ⇒ 그거는 따로 철판에 뭐 이렇게 붙이는 그 종이는 {양건지} 햇볕에 말리는 양건지.



[사진 9] 양건지

2) 철판지

튼 종이를 말릴 때 끓는 물 위에 철판을 넣고 그 위에 널어 말리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말리는 종이를 ‘철판지’라고 한다. 불에다 강제로 말린 것이기 때문에 습이 차거나 변형이 되기 쉬운 단점이 있다. 겉면이 부드러워 초벌 배접 등에 쓰인다.

⇒ 그거는 따로 철판에 뭐 이렇게 붙이는 그거는 그냥 거 {철판지쥬} 뭐.



[사진 10] 철판지

2.6.2. 그 밖의 분류

1) 생지

보통 ‘생지’는 서구식 가공법에 따라 펄프로 만드는 것인데 백반 등의 물을 칠하지 않은 것을 생지라고 한다. 생지는 먹물 등이 잘 스며드는 특징이 있다.

- ⇒ {생지} 숙지 뭐 이런 거는 그 저기 딱지로 맨들은 게 아니고 그냥 펄프지나 어 저기 그 나무 종류로다 이렇게 맨드는 거죠.

2) 숙지

서구식 가공법에 따라 펄프로 만든 종이 중 백반으로 된 물을 칠한 것을 ‘숙지’라 한다. 숙지는 먹물 등이 잘 스며들지 않는 특징을 가졌다.

- ⇒ 생지, {숙지} 뭐 이런 거는 그 저기 딱지로 맨들은 게 아니고 그냥 펄프지나 어 저기 그 나무 종류로다 이렇게 맨드는 거죠.

3) 양지

‘양지(洋紙)’는 한지와는 다른 서양에서 들어온 종이의 의미이다. ‘洋-’은 ‘양약’이나 ‘양담배’처럼 일부 명사에 붙어서 ‘서구식의’ 또는 ‘외국에서 들어온’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이다. 한지에 비해 ‘양지’는 내구성이 부족하여 우그러지기 쉽고 오래 가지 못하는 단점이 있어, 배첩용으로는 잘 쓰지 않는다고 한다.

- ⇒ 그니깐 {양지} 같은 경우에는 한 삼 사십 년만 되면 파삭파삭 부서져요. 게 오래 가들 못하는 거예요.

4) 태지

‘태지(苔紙)’는 가는 털과 같은 이끼를 섞어서 뜬 종이인데 매우 질기다. 보통 액자나 병풍의 뒷면 마무리용으로 많이 사용한다.

- ⇒ {태지도} 마찬가지로 인제 그런 이끼 종류를 해 가지고 고걸 종이 뚜드려 가지고 그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2.7. 천과 비단류

2.7.1. 명주

‘명주’는 본래 무늬가 없이 명주실로 짠 피륙을 말한다. 그러나 현재는 비단이 화려한 무늬가 들어 가 있는 작물을 말한다면 보통 무늬가 없는 천을 명주라고 한다. 무늬가 없는 천에 필요한 물을 들여 사용한다.

- ⇒ 또 {명주} 같은 거 인제 또 물을 들어서 쓰기도 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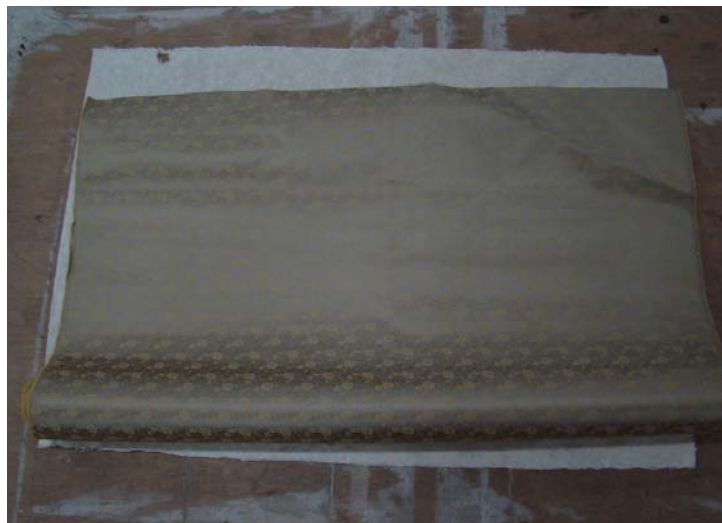


[사진 11] 명주

2.7.2. 인조비단

인조비단은 화학섬유를 주원료로 한 인공 섬유 비단인데, 일반 비단보다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이용하기도 한다고 한다. 또, 인조비단은 풀이 잘 붙지 않는 성질이 있다고 한다. 배첩에서는 일반 액자에 많이 사용한다.

⇒ 그거 {인조비단} 고거를 인제 크기를 적당하고 이쁜 크기로다가 재단을 해 가지고 인저 붙여 가지고 다시 한번 또 전체적으로 뒤에를 또 한지로다 배접을 하는 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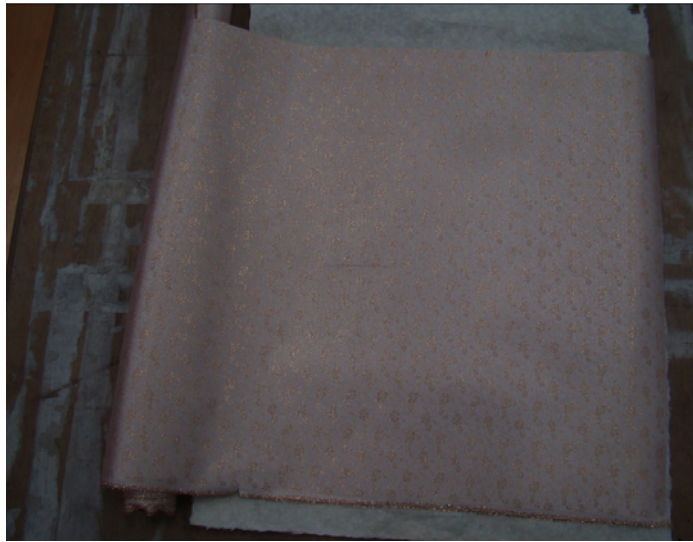


[사진 12] 인조비단

2.7.3. 금사비단

비단 중에서 가는 금실이 들어가 화려한 비단이 ‘금사비단’이다. 화려한 만큼 값도 비싸고 배접용이나 띠를 두르는 데 많이 이용된다. 그리고 불화(佛畵)나 그림 등에 많이 이용한다.

⇒ 그 저거 인조하고는 다르지. 이런 비단하고 다르지. 이거는 인제 {금사비단이라고} 해 가지고 이게 실이 금, 금실이 들어간 거 짧게.



[사진 13] 금사비단

2.7.4. 삼베

‘삼베’는 삼실로 짠 베를 말하는데 이른 시기부터 이용했던 피륙이다. 국어사 자료에서도 ‘삼뵈’<가례언해6:24>로 나타나 이와 같은 사실을 방증한다. 배첩에서는 종이로 초배나 재배 등을 하고 단단해지도록 삼베 등을 이용하여 종이 위에 바르게 된다. 특히 작품이 큰 배첩에는 종이만 바르면 무게를 감당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삼베가 들어간다.

⇒ 인제 {삼베도} 발르고 광목도 발르고 옛날에는 거의 다 삼베로 했죠.



[사진 14] 삼베

2.8. 나무류

2.8.1. 미송

‘미송’은 소나무의 일종으로 목재로 많이 쓰인다. 미송은 강도가 약하지만 제재할 경우 무늬가 아름다워 여러 목재로 쓰일 수 있다. 주로 통나무째 수입되어 국내에서 제재된다. 배첩에서도 잘 부러지지 않기 때문에 널리 이용되는데, 병풍틀, 속틀, 액자틀 등에 이용된다.

⇒ 오동나무가 또 가벼운 대신 약해 잘 뿌러져. 그게 흠이지. 소나무나 {미송을} 요즘에는 많이 써요. 그게 잘 뿌러지도 않고 그러니깐.



[사진 15] 미송으로 짠 틀

2.8.2. 홍송

‘홍송(紅松)’은 소나무의 일종으로 재질이 강하고 결이 고와서 재목으로 많이 쓴다. 또 목재의 색깔이 붉은 빛을 띠기 때문에 홍송이라고 한다. 특히 배첩에는 병풍틀, 액자, 곁테 등에 이용된다.

⇒ 이게 병풍틀인데 요거를 인제 이게 속에는 오동나무이고 이게 곁에는 인제 소나무 이게 {홍송이요}.

2.8.3. 오동나무

오동나무는 습기를 방지해 주고, 벌레가 잘 먹지 않아 가벼운 특징이 있다. 그래서 옛날 가구 등에는 오동나무를 많이 이용했다. 그러나 오동나무는 가벼운 대신 약하기 때문에 부러지기 쉽다. 요즘에는 배첩에서 잘 이용하지 않다.

⇒ 인제 가볍다고 해 가지고 {오동나무가} 가볍잖아요. 그래서 많이 썼는데 오동나무가 또 가벼운 대신 약해. 잘 뿌러져. 그게 흠이지.

2.8.4. 참죽나무

참죽나무는 중국이 원산지이며, 높이 20m까지 자라는 큰 나무이다. 주로 우리나라의 전라도 지방에서 많이 자라는데, 대나무처럼 순을 먹는다 하여 대나무 죽(竹)자가 붙었다고 한다. 그 목재는 무늬가 아름다워 가구재로 이용한다. 참죽나무는 액자테에 사용하는데, 값이 비싸서 고급용에 사용한다.

⇒ 인제 {참죽나무가} 있고. 또 이런 미송이 있고 이런 건 인제 좀 싸게 해달라는 건 이런 걸로 해 주는 거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이게 나뭇금이 이게 비싸요. 이런 발독 같은 데 이런 집 옆에서 이렇게 하지. 이 나무가 그 순두 순두 순, 순 있잖아. 나오는 순, 새싹 있잖아, 나무순. 이것도 따서 먹는 게 이거여. 우리나라 이게 참죽순이라고 해 가지고 고소하니 맛있어요. 절에 가면 스님들이 그 저기 거기다가 인제 참쌀풀을 칠해 가지고 말렸다가 투각을 튀겨 가지고 먹지. 반찬해 가지고 이게 아주 쓸모 있는 나무야.

2.9. 밀랍

‘밀랍’은 ‘밀’로 쓰이는데, 벌집을 만들기 위하여 꿀벌이 분비하는 물질이다. 누런 빛깔로 상온에서 단단하게 굳어지는 성질이 있다. 흔히 광택제나 방수제 등으로 쓰이는데 고서 장정에서 많이 쓰인다. 고서 장정 중 실에 밀랍을 발라 책을 매면 오래 간다고 한다. 또 책표지를 만들 때 능화판에 밀랍을 발라 두드려 무늬를 만들어 표지로 이용한다.

- ⇒ 이 무명 이게 목화 실에는 이 {밀랍을} 칠해줘야 질겨요 실이. 이게 그래서 옛날서부터 이거 꼬맬 때는 이 밀랍을 꼭 칠해 가지고 꼬맸다고.



[사진 16] 밀랍

3. 배첩의 구조

배첩은 배첩의 방식이나 대상에 따라 두루마리, 병풍, 액자, 그리고 고서 장정 등으로 이루어진다. 이 중 고서 장정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작품에 따라 배첩 방법을 정하게 된다. 배첩 중 두루마리나 병풍은 구조의 명칭이 비슷한 것이 많다. 가령, ‘치마’나 ‘저고리, 화지, 중선’ 등은 공통적으로 사용한다. 그러므로 두루마리를 중심으로 대체적인 구조를 살펴보고 나머지는 해당 구조의 특징적인 것을 중심으로 기술하기로 한다.

3.1. 두루마리의 구조

3.1.1. 두루마리(족자)

‘족자(簇子)’는 ‘그림이나 글씨 따위를 벽에 걸거나 말아 둘 수 있도록 양 끝에 가름대를 대고 표구한 물건’을 의미한다. 그런데 ‘족자’는 한자어이고, 이것에 해당하는 고유어로 ‘두루마리’가 쓰인다. 그러나 ‘두루마리’의 사전적 의미는 ‘가로로 길게 이어 돌돌 둥글게만 종이’를 의하여 족자와 의미가 동일하지 않다. ‘두루마리’의 ‘돌돌 말다’라는 의미적 특성으로 인하여 ‘족자’의 의미로 두루마리가 쓰일 수 있던 것으로 판단된다. 배첩장 홍종진은 ‘족자’라는 말을 사용하지만 ‘두루마리’도 자주 사용한다. ‘두루마리’는 고서화를 휴대하기 편리하고, 공간 활용에 유리하기 때문에 많이 이용한다고 한다.

- ⇒ 비단이라든가 뭐 쓰는 것에 따라서 전부 틀리니깐 어떤 족자다 할 게 없지. 통틀어서 족자죠 뭐, {두루마리라} 그러죠. 우리말로 두루마리.



[사진 17] 두루마리 명칭

3.1.2. 천장(저고리)

두루마리의 윗부분에 해당되는 공간으로 화지의 위쪽에 해당된다. 윗부분에 위치하여 ‘천장’이나 ‘저고리’로 불린다. 배첩장은 두 가지 다 사용한다고 한다. 이 부분은 주로 비단으로 싸는 것이 일반적이다.

- ⇒ 곁에 인제 비단 붙이는 거를 우에다 붙이는 거는 {천장이라고} 하고.

3.1.3. 치마(마루)

두루마리의 하단에 해당되는 공간으로 화지의 아래쪽에 위치한다. 아래에 위치하기 때문에 ‘치마’나 ‘마루’로 불린다. 배첩장은 ‘치마’라고 하는데, 치마처럼 밑으로 갈수록 점점 넓어지는 특성이 있어서 ‘치마’라 부른다고 한다. 이 부분 역시 주로 비단으로 덮여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 ⇒ 이거는 저고리라고 하고 이거는 밑에 붙이는 거는 {치마}, 요건 저 중간에 붙이는 거는 중선.

3.1.4. 귀

두루마리 축의 양쪽 끝을 ‘귀’라고 한다. 놓여 있는 위치가 사람의 ‘귀’와 같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이 귀는 비단 등으로 잘 접어서 마무리하게 되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풀

등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 ⇒ 인제 그 담에 인제 거 방금 말씀한 대로 잘르고서 인제 {귀를} 접어야지. 그래야지 인제 천이 보풀이 안 나지.

3.1.5. 귀마개

두루마리 축의 양쪽 끝에 부착하는 장식물을 말하여 ‘귀를 막는 것’과 같은 모양을 취하고 있어 ‘귀마개’로 명명된 것으로 판단된다. 귀마개의 재료는 주로 상아나 자단, 흑단 등이 쓰이는데 요즈음은 플라스틱 제품도 널리 쓰인다고 한다.

- ⇒ 옆에 귀를 그렇게 붙여서 막아준다 해서 {귀마개} 뭐 이렇게 많이 쓰는데.



[사진 18] 귀마개

3.1.6. 중선

화지를 빙 둘러 쳐주는 비단으로 만든 띠를 ‘중선’이라고 한다. 이 ‘중선’을 중심으로 위쪽은 ‘저고리’ 아래쪽은 ‘치마’라 불린다. 다만 족자에서는 생략되는 경우가 많다.

- ⇒ 이거는 저고리라고 하고, 이거는 밑에 붙이는 거는 치마, 요건 저 중간에 붙이는 거는 {중선}.

3.1.7. 화지(주지)

그림이나 탁본 등 작품이 들어갈 부분을 말하며 보통 ‘바탕 종이’라고도 한다. ‘화지’도 쓰이지만 일반적으로는 ‘주지’라고도 한다. 배첩장 홍종진은 ‘화지’라고 한다.

- ⇒ 여기에 인제 그 실제 작품이 들어가는 거 요기 인제 그 저 {화지}.

3.1.8. 기둥

‘기둥’은 ‘어떤 물건을 밑에서 위로 곧게 받치거나 버티는 나무’를 의미하는데, 두루마리에서도 화지의 좌우에 위치하여 마치 두루마리의 기둥 역할을 한다고 하여 ‘기둥’이라고 한다.

⇒ 이걸 족자치마? 요건 {기둥}.

3.1.9. 반달

두루마리의 위쪽에 붙는 것으로 둥근 나무를 깎아 반달 모양으로 만든다고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한자어로는 ‘천관’이라고 하는데, 반달이 널리 쓰인다. 족자의 축과 비슷한 재질을 이용하는데 대부분 미송으로 만든다고 한다.

⇒ 이게 위에 요거는 천관이라는 거는 우리나라 말로 {반달이라고} 그러지. 반달. 나무를 반달 같이 깎았다고 해 가지고 반달.

3.1.10. 반달집

반달을 싸서 반달이 안에 들어가게끔 만들어진 곳이 ‘반달집’이다. 주로 종이로 만드는데, 반달의 무게를 지지해주고 위치를 고정해 주는 역할을 한다.

⇒ 위에는 반달집. 그게 없으면 붙일 수가 없어요.



[사진 19] 반달집

3.1.11. 축

‘축’은 두루마리의 균형을 잡아주는 ‘환봉(環棒)’을 말한다. ‘축’이나 또는 ‘족자축’이라고 한다. 대부분 나무를 둥글게 깎아서 사용하는데, ‘보름달’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

- ⇒ 우리말로는 인제 저기 축, {축이라} 그라지. 그라고 나서 저기 축인데 가생이 또 끼는 거예요. 별도로 나무가 아니라 깎아 가지고 끼는 거고.



[사진 20] 축

3.1.12. 봉집

‘봉집’은 액자를 고정시키는 ‘축’이 들어가는 곳이다. 두루마리의 하단에 위치하는데, 이 부분은 한지로 여러 번 배접을 하게 된다. ‘봉집’은 ‘축’이 봉 모양으로 생겨서 그것이 있는 곳이라는 점에서 명명된 것으로 판단된다.

- ⇒ 요런 봉집을 접어 가지고 {봉집을} 맨들어야 되는 거요. 뒤에다가 인제 연필로다가 정확하게 거 가지고 반듯하게



[사진 21] 봉집

3.1.13. 승대(족자끈)

‘승대’는 두루마리 윗부분의 끈을 말한다. 흔히 ‘족자끈’이라고도 한다. 족자끈은 보통 검은색, 흰색, 푸른색의 세 가지 색실로 짠 것을 쓴다.

⇒ 이건 이건 끈. 끈을 {승대라고} 하고 이게 여게 박는 못 이게 끈을 맬 수 있는 못을 동비라고 하고



[사진 22] 족자끈

3.1.14. 족자못(동비)

두루마리를 매달기 위한 것으로 달리는 ‘동비’라고도 한다. 일반적으로 ‘족자고리못’과 그 고리못을 장식하는 ‘고리 장식’의 두 개가 함께 사용된다. 고리못에 끼워 사용하는 고리 장식에는 국화형, 매화형 등의 형태가 있으며, 색깔도 금, 은, 동, 흑색 등 다양하다.

⇒ 평소에 할 때 {족자뭇이라고} 그라쥬 전부.



[사진 23] 족자뭇

3.2. 액자의 구조

3.2.1. 액자틀

액자의 골격을 이루는 전체 틀을 말한다. 작품의 크기에 따라 액자틀의 크기도 달라지는데 작품이 클수록 액자틀은 크고 무겁게 만들어진다. 나무의 재료는 미송이 쓰일 수 있다.

⇒ 만들 때는 첨에 인제 그 {액자틀을} 짜야쥬. 정확하게 인제 작품 크기에 따라서 어 그 크기를 재야 되니깐. 작품에 맞춰서 재야 되는 거지.



[사진 24] 액자틀

3.2.2. 액자테

액자를 둘러싸고 있는 테두리의 뼈대가 액자테이다. 액자테는 굽기가 일정하고 곧아야 하며 색깔이 고르게 칠하는 것이 중요하다. 테두리에 쓰이는 나무는 미송이 일반적이고, 중요한 작품에는 참죽나무도 쓰인다.

⇒ 근데 인제 저기 그 액자는 가에 인제 테를 거 액자테라고 하지 {액자테}.



[사진 25] 액자테

3.2.3. 속살

액자에서 ‘속살’은 액자의 틀을 더욱 단단하게 고정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속살’은 나무로 만드는데, 대부분 대각선으로 대고 굽기도 겹살보다 가늘다. 주로 이중액자에 넣게 된다.

⇒ 그거는 인제 문살 같이 짜는 게 인제 그거 그거를 엮어서 짜는 거를 액자는 거의다가 그 나무로 해 가지고 이게 문살마냥 짜가지고 하는 거예요. {속살} 가운데, 안에다 대는 거.

3.2.4. 겹살

액자의 겹에 문살처럼 대는 것을 ‘겹살’이라고 한다. 겹살은 가로살과 세로살 등이 있는데, 속살보다 굽기가 굽고 기둥 역할을 한다. 겹살과 속살을 합쳐 뒤편이 된다.

- ⇒ 살은 이 저기 뚱그랴게 이렇기 대는 게 {겉살이여}. 겉살은 나무 두께도 속살보다는 약간 두꺼워야 돼.

3.2.5. 중간대

속살과 겉살 사이에 대는 나무를 중간대라고 하는데 모양을 아름답게 내기 위해서 둥글게 깎는 경우가 많다.

- ⇒ 그거는 저기여, 중간대. 이게 {중간대를} 이렇게 좀 왜 이렇게? 아 속으로 이렇게 약간 둥그스름하게 한 거를 거 모양 내느라고.



[사진 26] 중간대

3.3. 병풍의 구조

3.3.1. 병풍키

병풍의 틀 아래 부분부터 윗부분까지의 크기를 ‘병풍키’라고 한다. 보통 작품을 보고 거기에 맞춰 병풍의 크기를 결정할 때 병풍키를 계산하게 된다.

- ⇒ 구상을 몇 자루다가 짤 것이냐 구상을 했으면은 고거를 인제 맞춰 가지고 {병풍키를} 인제 그 맞춰서 짜야지.

3.3.2. 병풍틀

병풍을 이루는 전체 몸체를 ‘병풍틀’이라고 한다. 병풍틀은 보통 나무로 제작하게 되는데 오동나무, 또는 미송이나 홍송 등이 쓰인다. 오동나무는 가볍기는 하지만 잘 부러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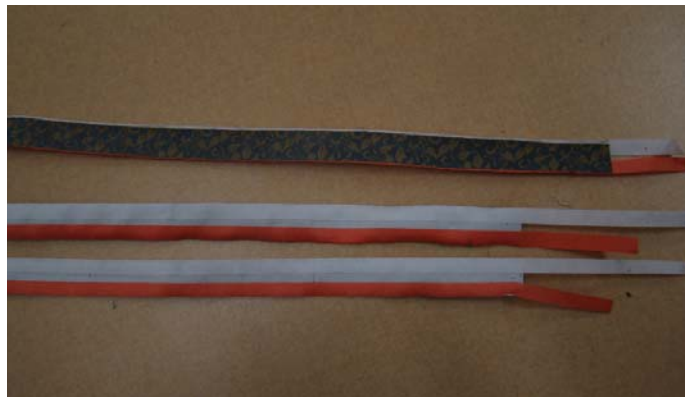
쉬운 단점이 있고, 미송이나 홍송은 무겁기는 하지만 튼튼한 것이 특징이다.

- ⇒ 요것도 지금 한 이백 년 정도 된 거지. 이게 {병풍틀인데} 요거를 인제. 에 이게 속에는 오동나무이고. 이게 곁에는 인제 소나무. 이게 홍송이요.

3.3.3. 마무리선

병풍의 저고리와 치마, 그리고 중선의 맨 바깥쪽의 테두리를 두르는 선이 마무리선이다. 이것을 ‘외선’이라고도 하는데 배첩장은 ‘마무리선’이라고 한다. 속에는 속지로 이루어지고, 곁에는 화려한 비단을 이용하여 만든다.

- ⇒ 인제 그 병풍에 그 작품이 인제 그 화지가 들어가는 거고. 담에 화지 바로 옆에 중선이 들어가는 거고, 그 담에 짚 위에 저 치마, 저고리가 들어가는 거고. 고 담에 인제 {마무리선}.



[사진 27] 마무리선

3.3.4. 발

병풍의 하단에 있는 받침대 모양으로 사람의 ‘발’에 비유하여 일반적으로 병풍발이라고 한다. ‘병풍발’은 일본식이나 중국식 병풍에는 없고 한국식 병풍에만 있는 특징으로 알려졌다. 병풍발이 있으면 이동 시에 편리함이 있으나 밑으로 바람이 들어오기 때문에 침병으로 쓰기에는 불편함이 있다고 한다.

- ⇒ 밑에 {발이} 달린 거 기둥에서부터 이 밑에까지 달린 발병풍이 있고.



[사진 28] 병풍발

3.3.5. 경첩

‘경첩’은 여단이문을 달 때 한쪽은 문틀에, 다른 한쪽은 문짝에 고정하여 문짝이나 창문을 다는 데 쓰는 철물인데, 보통 병풍이 여러 쪽일 때 쪽과 쪽을 연결시킬 때 이용한다. 경첩을 ‘돌쩌귀’라고도 하는데, ‘돌쩌귀’가 더 오래된 어형으로 판단된다.⁷⁾ 경첩은 병풍에서 종이와 종이를 연결하여 만드는데, 쇠를 이용하면 오래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 경첩 준다 하고 일본말로 돌쩌귀, 돌쩌귀. 그런데 우리말로 {경첩이라고} 접혔다. 요렇게 톱금 그어 가지고.



[사진 29] 경첩(옆면)



[사진 30] 경첩(앞면)

7) 배첩장은 ‘돌쩌귀’를 일본어라고 하였지만, 돌쩌귀는 고유어에 해당된다. 암돌쩌귀 수돌쩌귀<청구영언, 115>를 참고할 수 있다.

3.3.6. 병풍거죽

병풍의 전체를 쌓아주는 비단이나 천을 ‘병풍거죽’이라 한다. 보통은 감색이나 검정색 광목을 많이 사용하고 그 위에 다양한 비단 문양을 넣어 병풍의 품위를 높여 준다. 예전에는 삼베를 이용했지만 요즘은 비단과 광목이 주로 이용된다.

⇒ 선을 예쁘게 가늘게 뽑아 가지고, 그렇게 해서 붙이는 거지. 그렇게 하구 인제 고 담에는 여기 또 인제 {병풍거죽을} 싸는 거지.



[사진 31] 병풍거죽(옆면)



[사진 32] 병풍거죽

4. 제작 도구

4.1. 귀얄류

4.1.1. 문지름귀얄

‘귀얄’은 ‘풀이나 옷을 칠할 때에 쓰는 솔의 하나’로 주로 돼지털이나 말총을 넓적하게 묶어 만든다. 그 중 ‘문지름귀얄’은 배첩 시 화지와 비단이나 초벌배접 등에 풀을 비단이나 배접지에 풀을 묻히고 문지르는 데 쓰는 귀얄이다. 귀얄 중 가장 널리 쓰인다.

⇒ 인제 아까 말씀 하신 대로 {문지름귀얄} 물귀얄 물솔귀얄 풀솔귀얄 뭐 이런 게 많이 있죠.



[사진 33] 문지름귀얄



[사진 34] 문지름귀얄

4.1.2. 물귀얄

‘물귀얄’은 귀얄 중 물을 가볍게 뿌려줄 때 쓰인다. 건조판에 임시로 부착을 할 때나 또는 화지가 자리 잡는 과정에서 물을 뿌려 줄 때 주로 이용된다. 여기에 사용되는 털은 물의 흡수성이 뛰어난 사슴털 등이 좋다고 한다. 다른 말로는 ‘축임귀얄’로도 쓰인다.

⇒ 인제 아까 말씀 하신 대로 {문지름귀얄} 물귀얄 물솔귀얄 풀솔귀얄 뭐 이런 게 많이 있죠.



[사진 35] 물귀알



[사진 36] 문지름귀알

4.2. 칼

4.2.1. 주걱칼

‘주걱칼’은 작품이나 배접지 등을 자르는 데 이용하는데 주걱 모양 같이 생겼다고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또, ‘마름칼’이나 ‘재단칼’이라고도 한다. 배첩장 홍종진은 ‘재단칼’이나 ‘주걱칼’이라고 한다. 또, 여러 가지 모양이나 크기의 재단칼이 필요하기 때문에 직접 주문해서 사용한다고 한다.

⇒ {주걱칼이란} 거 가지고 재단을 하는 거예요. 사각이 반듯하게 맞게끔.



[사진 37] 주걱칼

4.2.2. 대칼

‘대칼’은 대나무로 만든 칼을 말한다. 이는 배접된 화지를 건조판에서 떼어낼 때, 또는 병풍에서 본래 붙어 있는 작품을 분리할 때, 그리고 작품을 펴는 데 등 비교적 작품에 손상이 가면 되지 않는 작업에 많이 이용된다. 쇠를 대면 작품에 무리가 가기 때문이다.

⇒ 대나 {대칼을} 많이 써요. 그라고 대칼은 종이하구 대칼하고는 쇠를 대면 종이가 잘 찢어져도 나무 종으로 하믄 종이가 안 찢어지는 거예요.



[사진 38] 대칼

4.2.3. 일자칼

두루마리나 병풍의 테두리 등에 이물질이 묻었을 때 그것을 긁어내는 칼이다. 또 대패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울퉁불퉁 튀어 나왔을 때도 이 일자칼이 이용될 수 있다.

모양이 작은 일자 형태이다.

⇒ 또 {일자칼이} 있고 나무에다 뭐 묻었을 때 고걸 꺾어 내는 거를 많이 쓰는 거죠.



[사진 39] 일자칼

4.3. 송곳

배첩에서 송곳은 대체로 두 가지로 용도로 쓰인다. 하나는 자를 부분을 눌러서 표시하는데 쓰일 수 있고, 하나는 구멍을 뚫는 데 쓰기도 한다. 물론 두 송곳은 크기가 달라 구멍을 뚫는 송곳이 더 크고 튼튼하다.

⇒ {송곳은} 인제 그 자르는 선, 자르는 선을 이렇게 맞출 때, 송곳으로 찍어가 지고 표를 해 가지고 저 쓰는 것도 있고 인제 접을 때, 비단 같은 거 접을 때, 송곳으로 이렇게 눌러 가지고 짜국을 내가 이렇게 접는 거, 반듯하게 접을라든 고런 것도 쓰고.



[사진 40] 송곳

4.4. 기억자

‘자’는 표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작품이나 배접지의 크기를 재는 데 꼭 필요한 도구이다. 그 중 기억자는 쇠로 만들어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직각을 재는 데 많이 이용된다.

⇒ 자도 인제 자는 인제 {기억자가} 있고 티자가 있고 일반 그 반듯한 자가 있고. 치수를 재는 자가 있고 또 이렇게 자를 때 쓰는 자가 있고.



[사진 41] 기억자



[사진 42] 기억자

4.5. 고운톱

배첩은 병풍틀과 같은 큰 나무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작은 톱을 이용하여 섬세한 작업을 필요로 한다. 섬세한 작업에 필요할 때, 톱날이 매우 고운 고운톱을 사용하게 된다.

⇒ {고운톱이} 있어요. 아주 섬세하게 잘러지는 톱.



[사진 43] 고운톱

4.6. 대패

나무나 종이 뭉치 등을 곱게 밀어서 고르게 해주는 연장이다. 쇠 날이 위에서 아래로 나무토막 속에 박혀 있어 이를 이용해 나무 등을 깎게 된다. 배첩에서는 병풍들이나 액자 틀 등을 제작할 때 쓰거나, 액자의 속살 등을 다듬을 때도 사용한다. 크기에 따라 큰 대패와 작은 대패가 있다. 크기가 큰 것은 틀을 깎을 때 이용한다.

⇒ 틀을 깎을 때는 이렇게 거. 종이를 한 다섯 여섯 번 발르고, 한 데다 뭉쳐서 그걸 간초롱이 해가지고 뽀뽀하게 대패질을 하지. 대패가 그때 필요한 거예요.



[사진 44] 작은 대패



[사진 45] 큰 대패

4.7. 건조판

‘건조판’은 화지나 비단 등을 배접한 후에 풀과 배접지 등을 말리기 위해 배접판에 붙여서 말리는 데 사용하는 나무판을 말한다. 보통은 얇은 나무판을 이용하는데 습기 등에

자주 노출되므로 통풍에 주의해야 한다.

- ⇒ 작품을 붙여 가지고 붙여 가지고 거기다 말리는 거지. 그카면 평평하게 되는 거, 그래 인제 {건조판이} 문쌀마냥 인제 짜 가지고 위에다 한지를 발라서 쓰는 것도 있고 또 옛날에는 그런 식으로 많이 썼고.



[사진 46] 건조판

4.8. 삼각대

삼각대는 두루마리나 액자 등에 삼각형의 모양을 자를 때 쓰이는 도구이다.

- ⇒ 인제 그 {삼각대} 삼각대를 삼각적으로 짤 때 쓰는 뭐 이렇기 사십오 도 자나. 고런 것들 만들어 쓰고.



[사진 47] 삼각대

4.9. 나무망치

나무로 만든 망치로, 쇠망치로 두드리면 깨지거나 우그러지기 쉬운 물건을 두드릴 때에 흔히 쓴다. 배첩에서도 액자 작업 등 부서지기 쉬운 작업에 쓰인다. 다만 오늘날에는 고무망치를 이용하기 때문에 많이 사용되지 않는다.

⇒ 또 망치 같은 것도 그 저기 {나무망치로} 해 가지고 나무망치를 만들어 쓰고.

4.10. 대바늘

‘대바늘’은 대나무로 만든 바늘인데, 한자어로는 ‘죽침’을 쓰기도 한다. 고서와 같은 귀한 책을 꿰맬 때 쇠로 된 일반 바늘을 사용하면 책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옛날부터 대나무로 된 바늘을 사용하였다.

⇒ {대바늘이지}. 이게 책을 꼬맬라든 인제 이 첩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가생이부터.



[사진 48] 나무 망치

4.11. 능화판

‘능화판’은 고서 장정에서 책표지에 들어갈 무늬를 박아 내는 목판이다. ‘능화(菱花)’는 마름의 꽃으로 주로 연못 등에서 자라는 풀의 꽃이다. 마름 꽃 무늬가 들어가 능화문으로 불린다.

- ⇒ 인제 이 판 이름을 {능화판이라고} 하는 거 판 이름 자체를 그라고서 이게 인제 에 여기에는 봉황새가 들어갔잖아요.



[사진 49] 능화판

4.11.1. 연꽃능화판

연꽃능화판은 목판에 연꽃 무늬의 모양이 들어가 그것을 책표지로 이용할 수 있다. 주로 불교 계통의 책의 표지로 많이 이용한다.

- ⇒ 저기 그 모양이 굉장히 여러 가지여. 이게 연꽃이 들어가면 {연꽃능화판} 또 국화가 들어가면 국화능화판.



[사진 50] 연꽃능화판

4.11.2. 국화능화판

국화능화판은 국화 모양의 문양이 들어가 있는 판을 말한다. 주로 일반 이야기책을 장정할 때 많이 이용한다.

⇒ 저기 그 모양이 굉장히 여러 가지여. 이게. 이게 연꽃이 들어가면 연꽃능화판 또 국화가 들어가면 {국화능화판}.



[사진 51] 국화능화판

4.12. 호박돌

호박돌은 일반적으로 집터 따위의 바닥을 단단히 하는 데 쓰이는데, 배첩에서는 능화판에 밀랍을 칠하고 책표지를 만들 때 그 문지름돌로 많이 쓰인다. 호박돌의 표면이 거칠지 않고 미끄러지지 않기 때문에 주로 이용된다.

⇒ {호박돌} 이게 돌이 또 거칠으면 이 종이가 휘잖아. 그러믄 이렇게 뒤에 대구.



[사진 52] 호박돌

4.13. 나무주걱

배접에서 사용되는 풀은 쇠와 가까이 하면 쉽게 변질되고, 작품을 버리게 된다. 그러므로 쇠 성분은 되도록 가까이 하지 않는데, 풀을 저을 때 그 주걱 또한 나무주걱을 이용한다.

⇒ {나무주걱} 나무주걱도 있고 또 일자 나무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4.14. 무쇠솔

풀은 말려서 전분 상태로 보관을 하게 되고 필요할 때 적당량을 물에 끓여서 사용하게 된다. 이때 풀을 끓이는 솔이 무쇠솔이다. 그러나 요즘은 무쇠솔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양은 솔에 끓이기도 한다.

⇒ 대개 이제 {무쇠솔이나} 아니든 그 저기 그게 뭐야 양은솔 뭐 이런 데다.

5. 제작 과정

5.1. 두루마리 제작 과정

5.1.1. 물뿌리다

작품에 있는 구김살을 없애기 위해 작품에 물을 뿌려서 구김살을 피는 과정이다. 작품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부드러운 솔로 눌러서 핀다.

⇒ 작품을 놓고 뒤에다가 얹어놓고 판을 이게 이제 배접을 하는 거여. {물을 뿌려} 가지고 구김살 없이.

5.1.2. 초벌배접하다

작품을 고정할 수 있게 뒤에 한지를 붙여서 처음 배접을 하는 단계이다. 그림이 클수록 배접은 몇 번 할 수 있다.

⇒ 그래서 이제 배접지 한지로다가 뒤에 이제 {초벌 배접을 하는} 거예요. 해 가지고 조 건조대에다가 붙여서 말리는 거지.

5.1.3. 말리다

초벌 배접한 종이를 건조대에 올려 놓고 물기를 말리는 단계이다. 물기가 완전히 마르지 않으면 작품이 변형이 되거나 오래 가지 못하게 된다. 건조대에 붙여서 말리는데 말리는 기간은 대체로 삼사일에서 일주일 정도이다.

⇒ 거기 건조 된 거기 다 작품을 붙였다가 다 말르면 한 삼 사 일 {말려} 가지고 그 담에 인제 그 걸 뜯어가지.

5.1.4. 재단하다

작품, 즉 그림이나 글씨에 맞게 전체 배접의 크기를 재서 마름질을 하는 것이다. 마름질은 자를 대고서 주걱칼로 네 귀가 일정하게 재단을 하게 된다. 비뚤어지면 작품이 고르게 되지 않기 때문에 반듯하게 자르는 것이 중요하다.

⇒ 주걱칼이란 거 가지고 재단을 하는 거예요. 사각이 반듯하게 맞게끔. 이게 {재단을 할} 때 이 인저 저런 대를 자를 대고서 하는데.

5.1.5. 띠대다

작품의 뒷부분에 하얀 띠를 두르는 것이다. 하얀 띠를 대는 것은 작품에 어울리는 천을 대기 위한 밑바탕의 기능을 하는 것이다. 이 띠는 이 띠를 통해 저고리와 중선 그리고 치마를 연결하는 연결고리 역할이다.

⇒ 이게 뽀뽀하게 그 잘르는 것도 잘라야 돼요. 잘라 가지고 인제 거기에 뒤에 {띠를 대고서} 인제 하얀 띠가.

5.1.6. 봉집달다

창호지로 봉이 축이 들어갈 수 있는 봉집을 만드는 것이다. 대체로 종이를 연결하고 뒤로 붙이면 표시가 나지 않는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지로 배접을 하게 된다. 한지로 배접을 한 상태로 한 달 정도 붙여 놓는다고 한다.

⇒ {봉집을 인제 거기다 달아야죠}. 게 창호지로다 인제 봉집을 예.

5.1.7. 축달다

봉집을 떼어서 아래 쪽에 축을 달게 된다. 붙여 놓은 봉집을 칼로 떼어서 그 안에 축을 넣고 다시 배접을 하게 된다.

⇒ 인제 아래 위 {축과 반달을 달으믄은} 인제 족자가 완.



[사진 53] 축달다

5.1.8. 반달달다

족자의 위쪽에 반달을 달게 된다. 반달은 동그란 모양으로 족자못 밑에 위치시킨다.

⇒ 인제 아래 위 {축과 반달을 달으믄은} 인제 족자가 완.

5.1.9. 족자못박다

족자의 끈을 매는 못이 족자못인데, 족자의 끈을 매고 족자못을 달게 되면 작업이 완성되게 된다.

⇒ 인제 여기다가 {족자못을 박아요}. 또 끈 매는 못. 그러고서 끈을 매믄은 인제 족자가 완성이 되는 거요.

5.2. 고서화 장정

5.2.1. 풀르다(풀다)

고서화 장정에서 기존에 묶여 있던 낡은 실로 매어져 있는 것을 푸는 과정이다. 실을 풀 때는 칼로 이용해서 잘라 내는 경우가 있고, 때로는 손으로 풀 때도 있다. 보통 배첩장은 ‘풀르다’로 설명하고 있는데, 표준어로는 ‘풀다’에 해당된다.

⇒ 고서화를 거 저기 책을 {풀러} 가지고 매는 거로 할까.

5.2.2. 실재다

고서화를 새로 묶을 수 있을 만큼의 실을 재는 과정이다. 보통 실이 너무 길어도 문제이고 짧아도 문제가 된다. 너무 길면 보기가 싫고 짧으면 장정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실을 정확히 재는 게 중요하다. 또 실은 보통 묵실 종류가 들어간다.

⇒ 요거를 꼬맬 때 인제 {실을 쥔} 때는 이게 인제 묵실, 이걸 세 번 이렇게 해 가지고 세 번 재 가지고 하면은 되는 거요.



[사진 54] 실재다

5.2.3. 밀랍칠하다

책을 꿰맬 실에 밀랍 칠을 해주는 과정이 필요한데, 밀랍 칠을 해 주면 실이 질기고 습기나 이물질로부터 보호해 주는 특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실에 꼼꼼히 밀랍을 칠해 준다. 밀랍은 보통 덩어리째 보관한다.

⇒ 이 무명 이게 묵화 실에는 이 {밀랍을 칠해줘야} 질겨요. 실이.



[사진 55] 밀랍칠하다

5.2.4. 구멍뚫다

책을 꺾멜 부분을 송곳으로 두드려서 구멍을 뚫게 된다. 가끔 전통 공구를 이용하기도 하지만 책에 손상이 갈 수도 있어 조심스럽게 다뤄야 한다. 책의 구멍은 대체로 다섯 개를 낸다. 우리나라는 구멍을 다섯 개 내서 책을 꺾매게 되는데 이를 오침법이라고 한다. 일본이나 중식은 바늘이 구멍이 네 개인 사침법을 이용한다.

⇒ 송곳 그걸로다가 저기 두드려 가지고 {구멍을 뚫었어요}.

5.2.5. 꼬매다(꺾매다)

바늘귀에 실을 넣어 미리 뚫은 책구멍 사이로 바늘을 이용하여 책을 꺾매는 과정이다. 보통 바늘은 대침 종류가 많이 이용된다. 역시 일반 바늘은 책에 무리가 가기 때문이다. ‘꼬매다’는 ‘꺾매다’에 대한 이 지역어의 방언형이다.

⇒ 이 무명 이게 목화 실에는 이 밀랍을 칠해줘야 질겨요 실이. 이게 그래서 옛날서부터 이거 {꼬맬} 때는 이 밀랍을 꼭 칠해 가지고 꼬맸다고.



[사진 56] 꺾매다

5.2.6. 옥접매다

옥접매는 것은 ‘실로 꺾맨 부분이 풀어지지 않도록 단단히 매는’ 것이다. 반대로 풀기 쉽게 맬 수도 있는데 그것은 고내는 것이다. ‘옥접’의 의미는 분명하지 않으나 ‘옴아매다’의 ‘옴’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⁸⁾

⇒ {옥접매는} 게 이렇게 해서 딱 풀릴 수 없게 이렇게 해서 꺾맨단 얘기야.

8) 배첩장도 홍종진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풀지 않게 매는 것’이라는 설명만 계속했다.

5.2.7. 찼매다(묶다)

고서화 장정에서 실로 맨 것을 마지막으로 조이고 묶는 것이 ‘찼매다’이다. 책을 지나치게 헐겁게 묶으면 힘이 묶은 것이 힘이 없게 되고, 짝 묶으면 책에 변형이 오게 되어, 묶는 것 역시 기술에 해당한다. ‘찼매다’는 ‘묶다’에 대한 이 지역의 방언형이다.

⇒ 이렇게 해서 딱 풀릴 수 없게 이렇게 해서 {찼매단} 얘기야.



[사진 57] 옥접매다

5.2.8. 문질르다(문지르다)

고서화 장정에서 책의 표지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이럴 경우 책의 표지가 될 것을 능화판에 올려 놓고 호박돌로 연속적으로 문지르는 작업이 필요하다. 물론 이때 능화판에는 미리 밀랍을 발라 놓는다. 그러면 능화판의 문양이 책 표지에 배겨나게 된다.

⇒ 요게 인제 한지로 이렇게 배접을 한 거를 여기다 대고서 요렇게 대고서 이 돌로 {문질르문} 무늬가 나와요.



[사진 58] 문지르다

5.3. 병풍 제작 과정

5.3.1. 구상하다

작품을 의뢰 받을 때 그 작품을 가지고 병풍의 크기나, 구조 등을 생각하여 정리하는 과정이다. 이것은 배접이 만족스러운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 우선 작품 가지고 그 병풍을 얼마나케 만들 것인가 그거를 인제 {구상을 해야쥬}.

5.3.2. 틀짜다

전체 틀에 대한 구상을 마치면 실제 병풍의 골격을 이루는 틀을 짜는 작업이 필요하다. 작품의 크기에 맞춰 병풍의 키도 정하게 된다. 병풍틀은 액자와 같이 가로살과 세로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네 귀를 교차시켜서 제작하게 된다.

⇒ 고거를 인제 맞춰 가지고 병풍키를 인제 그 맞춰서 짜야지. {틀을 짜야지}.

5.3.3. 초배하다

‘초배’는 병풍의 틀에 한지를 바르는 작업을 의미한다. 또, 작품에도 뒤에 배접을 하게 되는데 이것도 역시 초배라고 한다. 초배는 되도록 부드럽고 얇은 종이를 이용한다고 한다.

⇒ 그게 첨에 {초배한다} 그래서 얇은 종이 아주 약한 종이를 발른다고 이게.

5.3.4. 재배하다

이미 얇은 종이로 한 번 배접한 곳에 두 번째 종이를 바르게 된다. 이때는 처음 종이보다는 두껍고 질긴 종이를 쓰게 된다.

⇒ 문살 마냥 이렇게 엮어서 짜는 거예요. 고 다음에 인제 초배를 하고 {재배하고}.

5.3.5. 한지 발르다(바르다)

병풍의 각 족을 이어주는 한지를 바르는 작업이다. 병풍과 병풍을 연결할 때, 쇠나 다른 도구를 이용하지 않고, 한지와 천을 이용하여 배접하여 연결하게 된다.

⇒ 그런 식으로다 {한지를 발라} 가지고 연결을 시키는 거지.

5.3.6. 광목 발르다(바르다)

한지를 바른 후에 종이만으로는 병풍을 지지할 수 없으므로 중심이 잡히도록 광목을 바르게 된다. 광목은 한지보다는 좀 더 내구성이 있고 견고하기 때문이다. 광목 대신에 예전에는 삼베를 이용하기도 하였다.

5.3.7. 톱금내다

틀의 기둥살 양쪽 측면에 톱금을 내는 작업이다. 병풍과 병풍을 연결시키는 경첩을 내기 위해 연필로 표시를 해 주는 작업이다.

⇒ 우리말로로는 경첩이라고. 접혔다 요렇게 {톱금 그어} 가지고.

5.3.8. 물리다

병풍의 각 쪽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연결시키는 것을 ‘물리다’라고 한다. 병풍의 연결은 서로 어긋나게 연결을 하여 견고하게 만든다.

⇒ 다섯 번에서 여섯 번 두께로 붙이는 거죠. 요렇게 {물려} 가지고 물려 가지고 대패질을 매끈하게 해야 돼요.

5.3.9. 대패질하다

종이와 광목 등을 바른 것이 가지런하도록 대패질을 하는 과정이다. 서로 크기와 부피가 맞지 않으면 보기도 싫은 뿐 아니라 오래 가지 못하기 때문에 대패질을 하여 가지런하게 한다.

⇒ 종이를 한 다섯 여섯 번 발르고 한테다 뭉쳐서 그걸 간초롱이해 가지고 뽀뽀하게 {대패질을 하지}.

5.3.10. 테 발르다(바르다)

작품의 테두리에 천을 바르는 과정이다. 천은 보통 인조비단 뒤에 종이로 여러 가지 색을 내게 된다.

⇒ 인제 그렇게 하고서 여기에 그 {테발르고} 아까 얘기한 인제 그 마무리 그 인제 저기 저기를 대야지.

5.3.11. 보호대 대다

병풍 뒤에 병풍이 단단하도록 보호대를 대는 과정이다.

⇒ 인제 그렇게 하고서 여기에 그 테 발르고 아까 얘기한 인제 그 마무리. 그 인제 저기를 {대야지 보호대를}.

5.3.12. 작품 붙이다

배접이 모두 끝나고 작품을 병풍에 붙이는 과정이다.

⇒ 오동나무가 가볍구 벌레도 잘 안 먹고 그래 가지고 작품을 요기 이 {작품을 붙이는} 거죠.

5.3.13. 비단 붙이다

작품이 자리 잡게 되면 그 주위로 저고리와 치마, 중선 등에 적당한 비단을 붙이게 된다. 이때 비단은 인조비단을 사용하기도 하고 작품에 따라서는 화려한 금사비단을 사용하기도 한다.

⇒ 그 다음에 이 선을 붙이고 그 다음에 {비단을 붙이고}.

6. 배첩의 종류

6.1. 병풍의 종류

6.1.1. 작품의 구조에 따른 분류

1) 일자병풍

일자병풍은 여러 쪽의 병풍에 작품이 하나로 연결된 것을 말한다. 즉, 몇 쪽의 병풍에 그림이 하나밖에 없는 것이다. 이것을 연결병풍이라고도 한다.

⇒ 인제 병풍은 {일자병풍} 연결병풍 연결병풍이 있고 인제 연결 죽 하나로 피은 에 연결이 되는 거.



[사진 59] 일자병풍

2) 각족병풍

각족병풍은 일자병풍과는 달리 병풍의 각 쪽마다 별도의 작품이 붙어 있는 것을 말한다.

⇒ 죽 하나로 피문 에 연결이 되는 거 이거 {각족병풍이} 있고.



[사진 60] 각족병풍

3) 백병

그림이나 글씨가 붙어있지 않은 흰 종이 바탕의 흰 공백만의 병풍으로 주로 산모가 해산할 때 많이 사용한다. 작품이 있을 경우, 산모가 혼란스러워하기 때문이다.

⇒ 그거는 그 저 그림이나 글씨가 아무도 없이 {백병이야} 그냥.

6.1.2. 병풍의 크기나 구조에 따른 분류

1) 대병

대병은 크기가 큰 병풍을 말한다. 이때는 작품의 크기도 커서 전체적으로 규모가 크다.

⇒ 그 밖에 거는 인제 큰 {대병}.

2) 소병

‘소병’은 크기가 작은 병풍을 말한다. 대부분 우리나라에서는 발병풍 등이 크기나 규모가 작다.

⇒ 아까 조 작은 발 있는 거 그거는. 그거는 인제 {소병}.

3) 발병풍

병풍의 아래 부분에 발이 달려 있는 병풍이다. 병풍의 ‘발’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구조이다.

⇒ 밑에 발이 달린 거 기둥에서부터 이 밑에까지 달린 {발병풍이} 있고.



[사진 61] 발병풍

6.1.3. 용도에 따른 분류

1) 혼병

결혼식에 사용하는 병풍이다. 예전에는 여자들이 혼수품으로 준비했다. 혼병은 주로 부귀영화와 자손의 번성에 대한 소망을 기원하는 내용의 그림이 주제가 된다. 잔치 때는 제용감에서 모란을 그린 큰 병풍을 사용하며, 문벌이 높은 집안의 혼례에는 이것을 빌려다 쓰기도 했다고 한다.

⇒ 혼인할 때 쓰는 병풍 인제 여자들이 혼수품으로 해가는 {혼병} 있고.



[사진 62] 혼병

2) 침병

주로 잠을 잘 때 치는 병풍이다. ‘머리병풍’이라고 하는데 비교적 작은 것이 특징이다. 이것은 주로 사대부가 등 부잣집에서 사용했다.

⇒ 그카고 {침병} 머리 말에 치는 거.

3) 산신령병풍

주로 절 등에서 사용하는 병풍인데, 산신령 그림이 많이 그려져 있다고 해서 산신령병풍이라고 한다.

⇒ 또 {산신령병풍이} 있고 애기 날 때 병풍을 치고서 인제 애기 낳는.

6.2. 족자의 종류

6.2.1. 명족자

중국의 족자 양식으로 명조식(明朝式) 족자, 혹은 명나라 족자라고도 부른다. 이 족자의 특징은 족자 좌우의 양단 꾸밈새에 있다. 곧 양단을 색지 또는 표지와 대비되는 색깔의 비단을 이용하여, 일종의 선을 붙여준다. 이 선을 가리켜 명조선이라 칭한다. 그러나 배첩장 홍종진은 명족자는 비단을 두 가지 이상 쓴 것을 명족자라 부른다 하였다.

⇒ 명족자라는 건 뭐 그냥 보통 많이 이렇게 하는 게 {명족자고}.



[사진 63] 명족자

6.2.2. 평족자

‘평족자’는 우리 나라의 대표적인 전통 족자 양식이다. 비교적 색깔이 옅은 무지의 비단으로 꾸며주며, 양식에 있어서도 한민족 특유의 소박함과 여유로운 단순함을 그 특징으로 보여 준다. 배첩장 홍종진은 평족자를 하나의 비단을 사용하여 만든 족자라고 하였다.

⇒ 평족자는 한가지로 해 가지고 비단을 한가지로 딱 쓰는 기 {평족자} 이런 기지.



[사진 64] 평죽자

6.2.3. 이중선죽자

죽자의 좌우 양 기둥을 정확히 이등분하고, 이곳에 맞추어 표지 전체를 중(從)으로 마름질해 준 후 마름질의 양단에 좁은 색지를 붙여주고 여기에 잘라낸 표지를 다시 붙여서 얇은 계선 (界線)이 나타나게 한 죽자의 형식이다.

⇒ 인제 그 붙이기 나름인데 그거 선을 두 개 노른 {이중선이라고}.

6.3. 액자의 종류

6.3.1. 액자의 구조에 따른 분류

1) 평액자

평액자는 액자의 구조상 중간대가 없이 평면식으로 된 액자를 말한다. 평면으로 되어 있어 제작하기가 쉬운데, 서예 작품 등에 쓰인다.

⇒ 인제 액자는 구조가 평면인 {평액자} 있고.



[사진 65] 평액자

2) 이중액자

액자틀과 속살 사이에 중간대가 있는 액자이다. 전체적으로 튼튼한 구조를 가졌다.

⇒ 인제 액자는 구조가 평면인 평액자가 있고 {이중액자}가 있고.



[사진 66] 이중액자

6.3.2. 화지 부분의 입체 모양 등에 다른 부분

1) 남정식

화지 부분이 안으로 들어 가게 된 구조를 말한다. 액자테는 참죽나무나 홍송 등으로 하고 안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미송 등으로 제작한다.

⇒ {남정식}은 들어가게 하는 거.



[사진 67] 남정식

2) 오당식

오당식은 화지 부분이 밖으로 튀어나오는 구조이다. 이때 이러면 작품이 입체감을 높여 줄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림 등에 많이 이용한다.

⇒ 외형식 있고 {오당식} 있고 그런 거지.



[사진 68] 오당식

3) 외형식

외형식은 액자의 틀 중 네 귀를 접어서 둥글게 만든 것을 말한다. 이것은 액자의 안의 구조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액자테의 모양을 아름답게 한 것을 말한다.

⇒ {외형식} 있고 오당식 있고 그런 거지.



[사진 69] 외형식

제 3 부

연 구 결 과

제 5 장 마무리

제 5 장 마무리

지금까지 충청북도 지역의 민족생활어 조사 가운데 하나인 배첩과 관련된 어휘를 살펴보았다. 본 조사에서는 충청북도 무형문화재 제7호인 배첩장 홍종진을 직접 찾아가서, 배첩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배첩 관련 생활어를 조사하였다. 홍종진은 1999년도부터 충청북도의 배첩장으로 지정받아 현재 충청북도 배첩전수관을 운영하면서 후학을 지도하고 있다. 본 조사는 우선 배첩의 정의와 배첩의 종류 등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현재 배첩장이 작업하고 있는 배첩의 재료와 도구의 명칭을 조사하였다. 또, 배첩에 대한 다양한 종류의 명칭과 제작 과정을 조사하였다. 조사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배첩이란 ‘서화 등에 종이나 비단 등을 붙여 족자, 액자, 병풍 등을 만들어 작품의 미적 가치는 물론 실용성과 보존성을 높여 주는 전통적인 서화 처리 방식’이다. 그러나 배첩이라는 말은 ‘표구’라는 말에 눌러 『표준국어대사전』에조차 올라 있지 않다. 그러나 ‘표구’는 일본식 한자어이고, 배첩이 전통식 한자어이다. 특히, 『조선왕조실록』에 배첩(褙貼)이라는 말이 올라 있으므로, 표구라는 말보다 오래된 전통적인 용어임을 알 수 있다. 전통적인 배첩은 ‘병풍, 액자, 두루마리, 고서화 장정’ 등 크게 네 부분으로 나뉜다.

2) 배첩의 재료에는 풀과 종이 그리고 비단 등이 우선 꼽힌다. 그 중 풀은 배첩에서 가장 중요한 재료 중의 하나이다. 풀을 만드는 데에는 십 년 이상이 걸릴 정도이다. 풀은 밀가루를 재료로 쓰는 밀풀이 많이 쓰이고, 그 밖의 풀의 재료에는 백반, 숙지황, 할미꽃뿌리 등이 쓰인다. 풀 쑤는 과정은 밀가루 담그기, 침전시키기, 썬후기(썬히기), 물 갈아주기, 말리기, 풀쑤기 과정을 거친다. 그 밖에 배첩에 쓰이는 종이에겐 ‘한지’가 가장 널리 쓰인다. 그리고 배첩에 쓰이는 비단과 천에는 인조비단, 명주, 금사비단 등이 있다. 배첩에 쓰이는 나무는 미송과 홍송, 그리고 참죽나무 등이 있다.

3) 두루마리의 구조는 저고리(천장), 치마(마루), 기둥, 그리고 화지 부분이 중심을 이룬다. 저고리는 화지의 윗부분이고, 치마는 화지의 아랫부분이다. 그리고 화지의 양 축을 받치고 있는 것이 기둥이다. 그 밖에 족자축과 봉집, 그리고 반달과 반달집, 족자끈 등이 있다. 액자의 구조는 액자틀, 액자테, 속살, 겹살, 중간대 등이 있다. 병풍의 구조는 대체로

두루마리의 구조와 비슷하다. ‘저고리, 치마, 화지, 기둥’은 족자와 동일한 구조를 이룬다. 다만, 병풍의 특성상 전체 크기를 나타내는 병풍키, 그리고 병풍틀, 마무리선, 발, 경첩, 병풍거죽 등이 두루마리와 다르다.

이 중 두루마리의 구조는 사람의 모습을 본 따 이름을 지은 것이 특색이다. 저고리, 치마, 귀마개 등이 그것이다.

4) 제작 도구는 대표적으로 귀얄류가 중요하다. 특히, 풀이나 물을 축일 때 귀얄이 많이 사용된다. 그리고, 칼과, 송곳, 자 등이 필요하다. 그 중 칼은 주걱칼, 대칼, 일자칼 등이 있다. 그 밖에 고운톱, 건조판, 대패, 삼각대, 나무망치 등이 있다. 고서 장정에는 특별히 대바늘과 묵실, 그리고 능화판 등이 쓰인다.

제작도구의 이름은 제작 과정과 대체로 제작 과정과 해당 도구의 명칭이 결합되어 명명되거나 해당 도구의 모양이나 특성을 따서 명명되는 특징을 가졌다. 문지름귀얄, 풀솔귀얄은 전자의 예이고, 주걱칼, 고운톱은 후자의 예이다.

5) 두루마리의 제작 과정은 작품을 받아서, 작품의 구김을 없애고, 초벌배접과 재배를 하고 작품을 말리는 과정을 거친다. 그리고, 화지에 맞게 재단을 하는 과정이 있다. 그 외에 봉집과 축, 그리고 족자뭇을 달면 족자가 완성된다. 고서화 장정은 실을 재고, 밀랍칠을 우선한다. 밀랍칠을 하면 실이 질기고 습기로부터 보호해 주는 특징이 있다. 그리고 구멍을 뚫어 옥집매어, 찔매는(뚫는) 과정을 거친다. 병풍의 제작 역시 기본적으로는 두루마리의 제작과 차이가 없지만 병풍은 병풍틀을 짜는 데 시간이 걸린다. 특히 병풍과 병풍을 연결하는 부분이 여러 번 종이와 비단을 가지고 배접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6) 병풍의 종류는 쪽마다 작품이 있느냐 전체로 연결되었느냐에 따라 일자병풍과 각죽병풍으로 나뉜다. 그리고 그림이 전혀 없는 백병풍도 있다. 또, 구조에 따른 분류로 대병과 소병, 그리고 발병풍이 있다. 용도에 따른 분류에는 혼인 시 쓰이는 혼병, 잠을 잘 때 치는 침병, 그리고 주로 산사에서 쓰이는 산신령병풍이 있다. 족자는 비단이 하나의 종류만 들어간 평족자와 비단이 몇 가지 들어간 명족자로 구분된다. 액자는 평면식이나 입체식이냐에 따라 평액자와 이중액자, 그리고 남정식, 오당식 등이 있다.

이러한 배접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를 통해 다음과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1) 문헌조사와 현지조사를 병행함으로써, 문헌 자료와 현장에서 쓰이는 생활어를 비교할 수 있었다. 문명의 발달과 함께 제작방법은 전통방식을 따르더라도 요즘의 생활에 따라 생활어가 변하거나 소멸 과정에 있는 것들이 많았다. 특히 ‘제작 재료’나 ‘제작 도구’의 명칭은 그 변화가 크게 나타났다. 조사를 통해 소멸 과정에 있는 생활어를 확인하고, 이에

대응하여 쓰이는 현장의 생활어를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2) 배첩에 대한 분류 체계를 설정하고, 체계적인 어휘 수집을 수행해 봄으로써 배첩과 관련한 어휘망과 어휘 시소러스 구축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다.

4) 조사된 어휘의 표준국어대사전 등재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표준국어대사전의 설명을 점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뜻풀이를 보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5) 조사 결과물을 조사 어휘, 음성 자료, 사진 자료, 동영상 자료로 정리하여, 전자사전 형식의 『민족생활어사전』 편찬의 자료로 구축하였다.

그러나 배첩에 대한 조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지닌다. 지금까지의 조사와 연구에 대한 반성은 다음과 같다.

1) 전통적인 직업에서 사용하는 전문 용어가 한자어가 많고 여전히 일본식 한자어가 많아 이에 대한 고유어나 한국식 한자어의 개발이 시급한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또, 전문 용어를 확인할 수 있었지만, 여전히 많은 어휘에 대한 세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이다. 앞으로는 체계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방언이 반영된 전문 용어의 어원과 변화과정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2) 민족생활어 Web DB를 구축하여 국립국어원 홈페이지에서 일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조사된 모든 데이터를 주제 및 지역별로 구분하여 음성 자료, 사진 자료, 동영상 자료의 검색기능이 가능한 환경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장비의 부족 등으로 동영상 자료나 사진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보완을 해야 한다.

3) 배첩과 관련한 많은 제작 과정을 풍부히 담을 수 없는 사실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특히 작업 내용을 직접 조사할 계획이었으나 여러 가지 여건상 그 과정을 소상히 담을 수 없었다. 앞으로 이와 관련한 폭넓은 제작 과정이 직접 조사되어야 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이다.

참고 문헌

- 고수익(1997), 『표구미학개론』, 서울시립대학교 박물관.
- 국립국어원(1999), 『표준 국어대사전』, 두산동아.
- 김민수 편(1997), 『어원사전』, 태학사.
- 김주삼(2001), 『문화재의 보존과 복원』, 책세상.
- 라은영(2007), 「문화재 보존 복원과 배첩법 연구」,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화재관리국(1981), 『무형문화재 조사보고서』, 문화재관리국.
- 백영미·이영희(2008), 전통 배첩에 사용된 약제에 관한 문헌연구, 국제학술대회발표문.
- 서정범(1986), 『어원별곡』, 범조사.
- 안옥규(1996), 『어원사전』, 한국문화사.
- 이순애·정동수 엮음(1986), 『표구-한국의 전통 표구-』, 청아출판사.
- 임장혁(1997), 중요 무형문화재의 보존 현황, 한국민속학 29, 한국민속학회.
- 조흥운(1988), 장황 문화의 뜻과 길, 고문화 33, 한국대학박물관협회.
- 최광남(2001), 『문화재의 과학적 보존』, 대원사.
- 최창렬(1993), 『어원산책』, 한신문화사.

부록

06 배첩장 조사어휘(배영화)

표준국어 사전 등재여부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여부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여부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여부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여부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여부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여부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여부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여부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여부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여부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여부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여부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여부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여부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여부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여부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여부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여부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여부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여부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여부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여부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여부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여부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여부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여부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여부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여부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여부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여부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여부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여부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여부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여부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여부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여부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여부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여부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여부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여부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여부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여부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사전 등재영역	표준국어												

90 배채장 조사이후(배영환)

[illegible]

06 배첩장 조사어휘(배영환)

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1	소분류 2	상세 분류1	상세 분류2	원표제어 표준어	음역	발음 정보	뜻풀이	유래	기타정보	출전 정보1	출전 정보2	말티 정보 사진	말티 정보 음성	표준국어 사전 등재여부
수공업	배첩장	재료	물재료	상태			당그다	당구다	동	액체 속에 넣다.	인제 항아리애다가 이렇게 {당궤} 가지고 애 물을 뽀노른은 그개 전부 썩어요.		홍중진(청주)		0	0	
수공업	배첩장	재료	물재료	상태				뽀뽀하다	뽀	물기가 새거나 평평하다.	물기를 가져 약간 문질러가지고 {뽀뽀한} 물기를 죽여주는 거지.		홍중진(청주)			0	0
수공업	배첩장	재료	물재료	상태			벌레 먹다	벌거지먹다	구	벌레 따위가 풀의 영양분을 먹어 풀이 썩게 되다.	혹시나 {벌거지가 먹음} 수가 있으면 그 래도 비단이나 이런데 영양분 있으면 벌레가 먹음 수가 있으니까, 거 풀을 독초를 넣은 풀을 가지고 풀에 놓으면은, 거기서 벌새가 나기 때에 벌거지 종벌레가 근접을 못 하지.		홍중진(청주)			0	
수공업	배첩장	재료	물수는 과정	상태				침전시키다	동	물 쓰기 위해 일가루를 항아리에 담고 가리얌게 하다.	상 쉼덜 썩 인제 거 일가루를 항아리다 지 담여 가지고 전부 {침전을 시키는} 거지.		홍중진(청주)			0	
수공업	배첩장	재료	물수는 과정	상태			썩히다	썩썩하다	동	유기물이 부패 세균에 의하여 분해됨으로써 세 원래의 성질을 잃어 나쁜 냄새가 나고 형태가 뭉개지는 상태가 되게 하다.	이개 그만름 거 풀이 썩으라고 세 번째는 인제 이 그런 심 년썩 그런 {썩혀서} 한 풀 은 풀이 살아 있어요.		홍중진(청주)		0	0	0
수공업	배첩장	재료	물수는 과정	상태				물린다	구	물을 만들 때 일가루 등을 물에 넣고 썩히는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물을 바꾸어 주다.	인제 항아리애다가 이렇게 당궤가지고 애 물을 뽀노른은 그개 전부 썩어요. 막 그 구 데기다 썩고고 막 그러지. 한 애 육 개월에 한 번씩 {물을 갈아줘야} 돼요. 썩으면은.		홍중진(청주)			0	
수공업	배첩장	재료	물수는 과정	상태				말린다	동	말가루나 보리쌀 등을 썩혀서 완전히 영양분이 빠져나가고 양금이 생기면 그것을 햇 썰 등에 물기를 제거하다	심 년 동안 썩썩고 나면 거기에 하얀 뭐 진 파 노보다 더 하얀 양금이 앙어요. 그 인제 양금줄, 그 전부이지. 녹말만 남는 거예요. 다 썩혀 내버리고. 그래 가지고 인제 그걸 넣어서 {말려요}.		홍중진(청주)			0	0
수공업	배첩장	재료	물수는 과정	상태				풀썩다	동	배첩에 필요한 물을 썩다.	그렇게 인제 풀이 되는 거죠. 그거 걸려 가지고 {물을 썩는} 거죠. 이 썰 때마다 필요한 만큼 인제. 물을 쳐서 쓰는 거예요.		홍중진(청주)			0	
수공업	배첩장	재료	물수는 과정	상태				개다	동	기루나 당아진 것에 물이나 기름 따위를 쳐서 서로 섞이거나 풀어지도록 으깨거나 이 루 기다.	인제 고거를 미리미리 그냥 심 년 전서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가지. 그냥 애 말가루 그냥 {개} 가지고 쓰면은 그거는 버리니까.	이순애 외(1986)	홍중진(청주)	0	0	0	
수공업	배첩장	재료	물수는 과정	상태				시커무스름하다	뽀	빛깔이 시커먼 듯하다.	약간 이 독초가 섞였기 때에 기루가 {시커무스름하지}.		홍중진(청주)			0	
수공업	배첩장	재료	물수는 과정	상태				불린다	동	물 따위에 넣어 불룩하게 부풀게 하다.	물애다 {불려} 가지고 인제 물을 썩는 거예요.		홍중진(청주)			0	0
수공업	배첩장	재료						한지	뽀	우리나라 고유의 제조법으로 만든 종이. 먹 나무 껍질 따위의 성유를 원료로 한다.	종이. 배접 할 때 쓰는 종이는 인제 그 우리나라 {한지} 그 전부 먹으로만 된 한지도 갖다가 쓰는 거죠.		홍중진(청주)			0	0

06 배첩장 조사어휘(배영환)

항목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1	소분류 2	상세 분류1	상세 분류2	원표제어 표준어	음역	발음	병음	통사 정보	뜻풀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말티 정보 사진	말티 정보 음성	표준국어 사전 등재여부
수공업	배첩장	재료	한지재료				다	막			명	봉나무과의 낙엽 활엽 관목. 높이는 3미터 정도이다.	배첩 할 때 쓰는 종이는 이제 그 우리나라 한지. 그 전부 {막으로만} 된 한지로 갖다가 쓰는 거죠.		홍종진(청주)			0	
수공업	배첩장	재료	한지재료	다나무				겉대			명	갯개비의 거죽을 이루고 있는 단단한 부분.	그 파란 고거 고걸 길로 뻗어나는 거예요. 파란 게 그게 뭐예요? 거죽 {겉대} 나무껍질.		홍종진(청주)			0	0
수공업	배첩장	재료	한지재료					백피			명	다나무의 거죽을 벗겨낸 겉질.	그게 {백피지} 이제 그게 벗겨낸 게. 그걸 이제 그 백피를 또 찌물애다 삶는 거예요.		홍종진(청주)			0	
수공업	배첩장	재료	한지 만드는 과정					황기초			명	한지를 만들 때 다나무의 섬유질과 함께 섞이는 풀.	물애다 타 가지고 고걸 {황기초라는} 풀이 있어요. 그 풀을 물대공이 이제 나오는데, 뿌리하고, 뿌리하고 대공을 거 자기 거 나무 방랭이로 두드려 가지고 물애다 담그면은 풀이 나와요.		홍종진(청주)			0	
수공업	배첩장	재료	한지 만드는 과정					찢을		잔을	명	장이나 나무를 대운 재를 우려낸 물. 예전 애 주로 빨래할 때 썼다.	백피를 또 찢물애다 삶는 거예요. {찢물이 라고} 하든은 이제 콩대 메밀대 뭐 이런 거를 태워 가지고 재를 내요.		홍종진(청주)			0	0
수공업	배첩장	재료	한지 만드는 과정					메밀대		메밀대	명	메밀의 대줄기. 태워서 찢물을 만드는 데 쓴다.	찢물이라고 하든은 이제 콩대 {메밀대} 뭐 이런 거를 태워 가지고 재를 내요.		홍종진(청주)			0	
수공업	배첩장	재료	한지 만드는 과정					콩대		콩대	명	콩을 말아내고 남은, 잎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풀이 잘 붙어 땀감으로 쓴다.	찢물이라고 하든은 이제 {콩대} 메밀대 뭐 이런 거를 태워 가지고 재를 내요.		홍종진(청주)			0	0
수공업	배첩장	재료	한지 만드는 과정				두드려다	두드려다			동	소리나 나무를 잇따라 치거나 때린다.	겉 {두드려} 가지고 전부 거 거기를 피아 되는 거예요.		홍종진(청주)			0	0
수공업	배첩장	재료	한지 만드는 과정					뜨다			동	물속에 있는 것을 건져 내다.	섬유질 자진 데에다가 섞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종이를 {뜨는} 거지. 이게 종이를 떠 가지고 이제 건조시켜.		홍종진(청주)			0	0
수공업	배첩장	재료	한지종류					양간지			명	한지를 만들 때 햇볕에 말린 종이	이제 그 말리는 거는 햇볕애다 말리는 {양간지도} 있고.		홍종진(청주)	0	0		
수공업	배첩장	재료	한지종류					칠판지			명	한지를 만들 때 칠판 위의 불에 말린 종이	그거는 따로 칠판애 뭐 이렇게 붙이는 그 종이는 양간지 햇볕애 말리는 양간지 그거는 뭐 따든 건 부든은 말 없나요? 그거는 그냥 거 {칠판지죠} 뭐.		홍종진(청주)	0	0		
수공업	배첩장	재료	종이종류					생지			명	가공하지 아니한 뜬 채로의 종이인데, 백반 물을 칠하지 않은 종이.	{생지} 숙지 뭐 이런 거는 그 자기 먹지로 맨들은 게 아니고 그냥 풀프지나 어 자기 그 나무 종류로다 이렇게 맨드는 거죠.		홍종진(청주)			0	0
수공업	배첩장	재료	종이종류					숙지			명	종이 가공 단계에서 백반 물을 칠한 종이.	생지 {숙지} 뭐 이런 거는 그 자기 먹지로 맨들은 게 아니고 그냥 풀프지나 어 자기 그 나무 종류로다 이렇게 맨드는 거죠.		홍종진(청주)			0	

06 배첩장 조사어휘(배영환)

범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1	소분류 2	상세 분류1	상세 분류2	원표제어 표준어	용량/양	별음 정보	통사 정보	뜻풀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문단 정보 사진	문단 정보 음성	표준국어 사전 등재여부
	수공예	배첩장	종이종류					양지		명	서양에서 들어온 종이. 또는 서양식으로 만든 종이. 주로 목재 펄프를 원료로 하며 신 문용지, 인쇄용지, 필기용지, 포장용지 등으로 나뉜다.	요새 인쇄 초배지 하면 {양지하고} 이렇게 비슷한 종이를 초배할 때 쓴다구요. 그니까 양지 같은 경우에는 한 상 서실 년만 되면 파삭파삭 부서져요.		홍종진(청주)			0	0
	수공예	배첩장	종이종류					태지		명	기는 털과 같은 이끼를 섞어서 뜬 종이. 애 주 잘기다.	{태지도} 마찬가지로 인쇄 그런 이끼 종이를 해 가지고 고걸 종이 두드려 가지고 그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홍종진(청주)	이순애 외(1986)		0	0
	수공예	배첩장	종이종류					창호지		명	주로 문을 바르는 데 쓰는 얇은 종이	복집을 인쇄 거기다 들어야죠. {창호지로 다} 인쇄 봉집을.		홍종진(청주)			0	0
	수공예	배첩장	종이종류					초배지		명	초배하는 데에 쓰는 종이.	요새 인쇄 {초배지} 하면 양지하고 이렇게 비슷한 종이를 초배할 때 쓴다구요.		홍종진(청주)			0	0
	수공예	배첩장	종이상태					파삭파삭		부	보송보송한 물감이 있따라 가볍게 바스라지거나 깨지는 소리. 또는 그 모양.	양지 같은 경우에는 한 상 서실 년만 되면 {파삭파삭} 부서져요. 오래 가들 못하는 거예요.		홍종진(청주)			0	0
	수공예	배첩장	비단종류					명주		명	명 주실로 무늬 없이 짠 피복	재 {명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굵고 인조는 좀 거칠고.		홍종진(청주)		0	0	0
	수공예	배첩장	비단종류					인조비단		명	인조로 만든 비단	그거 {인조비단} 고거를 인쇄 크기를 적당하고 이쁜 크기보다가 재단을 해 가지고 인 지 붙여 가지고 다시 한 번 또 전체적으로 위패를 또 한지보다 배접을 하는 거야.		홍종진(청주)		0	0	
	수공예	배첩장	비단종류					금사비단		명	금실로 만든 비단	그 저거 인조하고는 달리지. 이런 비단하고 다르지. 이거는 인쇄 {금사비단이라고} 해 가지고 아예 실이 금 실이 들어간 거 품 게.		홍종진(청주)		0	0	
	수공예	배첩장	재료					광목		명	무명실로 서양목처럼 너비가 넓게 짠 배	인재 삼배도 발르고 {광목도} 발르고 옛날에는 거의 다 삼배로 했죠.	배접 시 종이 위에 바르는 천	홍종진(청주)			0	0
	수공예	배첩장	재료					색깔광목		명	아래 가지 색깔이 있는 광목	여기때다가 지금 이렇게 만드는데 여기때 다 인쇄 천을 광목을 발르는 거지 {색깔광 목}.		홍종진(청주)			0	
	수공예	배첩장	재료					삼배		명	삼실로 짠 천.	인재 {삼배도} 발르고 광목도 발르고 옛날에는 거의 다 삼배로 했죠.	배접 시 종이 위에 바르는 천	홍종진(청주)			0	0
	수공예	배첩장	재료					밀랍		명	벌집을 만들기 위하여 꿀벌이 분비하는 물질. 누런 빛깔로 상온에서 단단하게 굳어지 는 성질이 있다. 절연체, 광택제, 방수제 따위로 쓴다.	이 무명 이게 목화 실에는 이 {밀랍을} 칠 해야져. 질겨요 실이. 이게 그래서 옛날서부터 아거 꼬낼 때는 이 밀랍을 꼭 칠해 가지고 꼬맸다고.		홍종진(청주)		0	0	
	수공예	배첩장	재료				무명실	목실		명	숨을 자아 만든 실	인재 그 {목실로} 해 가지고 고걸 인쇄 역 는 거예요. 거 뛰어서 찢 거지.	두루마리의 끈의 재료	홍종진(청주)			0	0
	수공예	배첩장	재료				줄대	줄대		명	줄고 가늘게 쓰는 재료를 통틀어 이르는 말.	저런 식으로 나무를 줄 {줄대들} 대가지고 자롭게 하는 게 있고 근데 저게 우리나라 식인 줄 알아.		홍종진(청주)			0	

06 배첩장 조사어휘(배영환)

분류	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1	소분류 2	상세 분류1	상세 분류2	원표제어 표준어	출판명	발행권고	통사권고	뜻풀이	유래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문헌정보 권고 사진	문헌정보 권고 사진	표준국어 사전 등재여부
수공업	수공업	배첩장	재료	평종료					미송		명	소나무의 일종으로 목재로 많이 쓰인다.	소나무나 {미송을} 요즘에는 많이 써요. 그 게 잘 뿌러지도 않고 그러니까.		홍중진(청주)			0	
수공업	수공업	배첩장	재료	평종료					오동나무		명	현상과의 낙엽 활엽 교목. 높이는 15미터 정도이며, 잎은 마주나고 넓은 심장 모양이 다. 5~6월에 피고 열매는 꽃이 원주(圓珠)로서 로 가지 끝에 피고 열매는 달걀 모양의 삭 과(蒴果)로 10월에 익는다. 재목은 가볍고 고우며 휘거나 트지 않아 거문고, 장롱, 나 막신을 만들고 장원수로 재배한다. 우리나라 산 특산종으로 남부 지방의 인가 근처에 분 포한다.	인제 가법다고 해 가지고 {오동나무가} 가 법잡아요. 그래서 많이 썼는데 오동나무가 또 가벼운 대신 약해. 잘 뿌러져. 그게 울이 지. 그게 가. 소나무나 미송을 요즘에는 많 이 써요. 그게 잘 뿌러지도 않고 그러니까.	홍중진(청주)			0	0	
수공업	수공업	배첩장	재료	평종료					홍송		명	소나무의 하나. 재질이 무르고 결이 고와서 재목으로 쓴다.	이게 병풍들인데 요거를 인제 이게 속에는 오동나무이고 이게 겉에는 인제 소나무 이 게 {홍송이요}.		홍중진(청주)			0	0
수공업	수공업	배첩장	재료	백지재료					향죽나무	향죽나무	명	말구슬나뭇과의 낙엽 활엽 교목. 높이는 20 미터 정도이며, 잎은 어긋나고 우상 복엽인 데 파침 모양 또는 긴 타원형이다.	인제 {향죽나무가} 있고 또 이런 미송이 있 고 이런 건 인제 좀 싸게 해달라는 건 이런 걸로 해주는 거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이 게 나뭇금이 이게 비싸요.		홍중진(청주)			0	
수공업	수공업	배첩장	구조	두루마리구조					천장		명	지붕의 안쪽, 지붕 안쪽의 구조물을 가리키 기도 하고 지붕 밑과 반자 사이의 빈 공간 에서 바라본 반재를 가리키기도 한다.	천에 인제 비단 붙이는 거를 우에다 붙이 는 거는 {천장이라고} 하고.	<표준>에는 '천장'은 올라 있지만 두루마리의 뒷부분이라는 의미는 없 음	홍중진(청주)			0	0
수공업	수공업	배첩장	구조	두루마리구조					치마		명	여자의 아랫도리 줄 것으로, 두루마리나 평 풍의 그림 아래 부분을 일함	이거는 저고리라고 하고 이거는 밑에 붙이 는 거는 {치마} 요런 저 중간에 붙이는 거 는 중진.	<표준>에는 '치마'는 올라 있지만 두루마리의 아래 부분이라는 의미는 없음.	홍중진(청주)			0	0
수공업	수공업	배첩장	구조	두루마리구조					귀		명	두루마리나 저고리의 쇄 끝 부분.	인제 그 당에 인제 거 방금 말씀 한 대로 잘 드고서 인제 {귀틀} 접어야지. 그래야지 인 제 천이 보풀이 안 나지.		홍중진(청주)			0	0
수공업	수공업	배첩장	구조	두루마리구조					귀마개		명	두루마리의 귀를 막아주는 부분	옆에 귀를 그렇게 붙여서 막아준다 해서 {귀마개} 뭐 이렇게 많이 쓰는데.	<표준>에는 '귀마개'는 올라 있지만 '두루마기'의 세부 명칭으로는 올라 있지 않다.	홍중진(청주)	이순애 외(1986)		0	0
수공업	수공업	배첩장	구조	두루마리구조					승대		명	두루마리를 걸 수 있도록 연결한 끈	이런 이런 끈. 끈을 {승대라고} 하고 이게 어게 먹는 듯 이게 끈을 뗄 수 있는 듯을 뽕 비라고 하고.		홍중진(청주)			0	
수공업	수공업	배첩장	구조	두루마리구조					족자못	족자은	명	두루마리를 걸 수 있도록 만든 못	평소에 사용하실 때 평소에 할 때 {족자못 이라고} 그러죠 전부.		홍중진(청주)		0		
수공업	수공업	배첩장	구조	두루마리구조					동비		명	두루마리를 걸 수 있도록 만든 못	이런 이런 끈 끈을 성대라고 하고 이게 어 게 먹는 듯 이게 끈을 뗄 수 있는 듯을 {동 비라고} 하고.		홍중진(청주)			0	
수공업	수공업	배첩장	구조	두루마리구조					중선		명	두루마리의 가운데에 붙이는 비단으로 만 든 선	이거는 저고리라고 하고. 이거는 밑에 붙이 는 거는 치마. 요런 저 중간에 붙이는 거는 {중선}.	<표준>에는 '중선'은 있지만 두루마 리의 가운데 부분을 가리키지는 않 음.	홍중진(청주)	이순애 외(1986)		0	0

06 배첩장 조사어휘(배영환)

항목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1	소분류 2	상세 분류1	상세 분류2	원표제어 표준어	음역	음역	뜻풀이	유래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문헌 정보 표준어 사건	문헌 정보 표준어 사건	표준국어 사전 음역
수용형	배첩장	구조	두루마리 구조					명		그림을 그리는 데 쓰는 종이 좋은 종이.	여기에 인쇄 그 실재 작품이 들어가는 거요기 인쇄 그 자 {화지}.	두루마리의 그림이 들어가는 부분			0		0
수용형	배첩장	구조	두루마리 구조					명		어떤 물건을 밑에서 위로 관계 받치거나 버티는 나무. 또는 그런 형상으로 보이는 것.	이런 죽자치마? 요런 {기둥}.	두루마리의 '기둥'은 <표준>에 올라 있지 않다.			0		0
수용형	배첩장	구조	두루마리 구조					명		물론 알도록 되어 있는 물건의 가운데 끼는 막대.	우리말로는 인쇄 저기 죽 {죽이라} 그러지. 그리고 나서 저기 죽인데 기생이 또 끼는 거예요. 별도로 나무가 아니라 꺾어 가지고 끼는 거고.				0		0
수용형	배첩장	구조	두루마리 구조					명		두루마리 죽의 끝 부분으로 반달형으로 꺾은 것	별도로 나무가 아니라 꺾어 가지고 끼는 거고. 이게 위에 죽이라는 건은 우 리나라 말로 {반달이라고} 그러지. 반달 나무를 반달 같이 꺾었다고 해 가지고 반 달.	<표준>에 '반달'은 올라 있지만 두루마리의 '반달'은 올라 있지 않다.			0		0
수용형	배첩장	구조	두루마리 구조					명		두루마리의 '반달'에 해당하는 한자어	별도로 나무가 아니라 꺾어 가지고 끼는 거고. 이게 위에 오거는 {천관이라는} 거는 우리나라 말로 반달이라고 그러지.				0		
수용형	배첩장	구조	두루마리 구조					명		두루마리의 반달이 들어 있는 점	요기다 봉점 이렇게 위에 위에는 {반달점}.				0		0
수용형	배첩장	구조	두루마리 구조					명		두루마리의 죽을 보호해주는 덧대주는 종이	천관이라. 그러는데 인쇄 우리말로 는 이기 오거를 거 {보호대}지. 이기 죽을 이 죽을 이기 떨어지지 않게 종이를 한 번 덧대주는 거라 보호대를.				0		
수용형	배첩장	구조	두루마리 구조					명		두루마리의 죽을 보호해주는 덧대주는 종이로 보호대와 동일하다.	{천관이라} 그러는데 인쇄 우리말로 는 이기 오거를 거 보호대지.				0		
수용형	배첩장	구조	두루마리 구조					명		두루마리의 봉을 넣어두는 부분	요런 봉점을 접어 가지고 {봉점을} 만들어 아 되는 거요. 위에다가 인쇄 여판문다가 정확히 거 가지고 반듯하게 이걸 봉점을 붙어야 되는 거야.				0		
수용형	배첩장	구조	두루마리 구조					명		지그리나 두루마리의 목에 둘러대어 위에서 머물 수 있도록 된 부분. 위의 가장자리 는 봉점으로 쓴다.	것은 요런 양쪽으로 접는 거를 {갓이라고} 그러지. 갓 접는다고 그러지. 이게 인쇄 천을 이렇게 찰라만은 여게 그 저기 천 실이 나고 부풀이 날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접어 가지고 붙여요. 이게 이게 것을 접는다고 하는 거지.	<표준>에는 두루마리의 '갓'의 의미는 올라 있지 않다.			0		0
수용형	배첩장	구조	두루마리 구조					명		두루마리를 넣어 두는 함	고급 두루마리는 인쇄 요런 함이 있어요 {두루마리함}.				0		
수용형	배첩장	구조	두루마리 구조					명		네모지게 각이 지게 만든 열쇠	네모 막 적으니까 {각열쇠}라고 이게 모양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불려요.					0	
수용형	배첩장	구조	두루마리 구조					명		봉이 모양을 한 열쇠	봉이 모양으로 만들어진 {봉어열쇠고} 거 모양에 따라서 다 불려요.					0	

06 배첩장 조사어휘(배영환)

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1	소분류 2	상세 분류1	상세 분류2	원표제어 표준어	용칭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말단 정보 사진	말단 정보 음성	표준국어 사전 등재여부
수공업	배첩장	구조	액자 구조				명	액자를 이루는 나무로 만든 전체 뼈대	만들 때는 정에 인제 그 {액자들을} 짜야 조. 정확하게 인제 작품 크기에 따라서 어 그 크기를 재야 되니깐, 작품에 맞춰서 재야 되는 거지.	홍중진(청주)			0	
수공업	배첩장	구조	액자 구조		액자테		명	액자를 둘러싸고 있는 결의 둘레	근대 인제 저기 그 액자는 거에 인제 테를 거 액자테라고 하지 {액자테}.	홍중진(청주)			0	
수공업	배첩장	구조	액자 구조		속살		명	액자의 속에 대는 살	실은 이 저기 통그렇게 이렇기 대는 게 결<표준>에는 '속살'이 올라 있기는 실이여}. 결살은 나무 두께도 {속살보다는} 얇아. 결살은 나무 두께와 돼.	홍중진(청주)			0	0
수공업	배첩장	구조	액자 구조		결살		명	액자의 결에 대는 굵은 살	실은 이 저기 통그렇게 이렇기 대는 게 결<표준>에는 '결살'이 올라 있기는 실이여}. 결살은 나무 두께도 속살보다는 얇아. 결살은 나무 두께와 돼.	홍중진(청주)			0	0
수공업	배첩장	구조	액자 구조		결대		명	액자의 결에 대는 굵은 대	작품에 맞춰서 재야 되는 거지. 이게 그 {결대} 결대 인제부터 짜놓고 고 다음에 인제 속살을 놓는 거고.	홍중진(청주)			0	0
수공업	배첩장	구조	액자 구조		종간대		명	액자의 테두리 안쪽에 지르는 대	그거는 저기여. 종간대. 이게 {종간대들} 이렇게 종와 이렇게? 아 속으로 이렇게 약간 동그스름하게 한 거를 거 모양 내는 거고.	홍중진(청주)			0	
수공업	배첩장	구조	액자 구조		뒤판		명	액자의 뒷부분에 대는 판	가장 먼저 만드는 건 이 {뒤판} 이게 짜는 거.	홍중진(청주)			0	0
수공업	배첩장	구조	액자 구조		상중판		명	액자의 뒷면에 상중으로 대는 판	고 다음에 인제 오거 팔래고. 이게 뒤판이라 그러나요? 뭐라 그러나요? 이게 {상중판이라} 그러지.	홍중진(청주)			0	
수공업	배첩장	구조	병풍 구조		저고리		명	병풍의 그림 뒷부분을 가리키는 것으로 한 병의 뒷면에 덧대어 쓰는 말	병풍에 하단은 에 치마라고 하고 위는 {저고리라고} 하지.	홍중진(청주)			0	0
수공업	배첩장	구조	병풍 구조		병풍키		명	병풍의 아래부터 위까지의 크기를 나타내는 말	구상을 몇 자루다가 팔 것이냐 구상을 했으면은 고거를 인제 맞춰 가지고 {병풍키를} 인제 그 맞춰서 짜야지.	홍중진(청주)		0	0	
수공업	배첩장	구조	병풍 구조		병풍틀		명	병풍을 이루는 전체 몸체	요것도 지금 한 이백 년 정도 된 거지. 이게 {병풍틀인데} 요거를 인제. 에 이게 속에는 오동나무이고. 이게 결에는 인제 소나무. 이게 홍송이요.	홍중진(청주)	이순애 외(1986)	0	0	
수공업	배첩장	구조	병풍 구조		마무리선		명	병풍의 테두리를 두르는 비단으로 만든 선	저고리가 들어가는 거고. 고 다음에 인제 {마무리선}.	홍중진(청주)			0	
수공업	배첩장	구조	병풍 구조		받		명	병풍의 하단에 있는 받침대 모양으로 사람이나 '말'에 비유하여 쓰이는 말	밑에 {받이} 달린 거 기둥에서부터 이 밑에 <표준>에는 병풍의 받침 올라 있지 않다.	홍중진(청주)			0	0

06 배첩장 조사어휘(배영화)

분류	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1	소분류 2	상세 분류1	상세 분류2	원표제어 표준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문단 정보 사진	문단 정보 영성	표준국어 사전 등재여부
수공예	배첩장	도구	칼	칼				대칼	대나 {대칼을} 많이 써요. 그리고 대칼은 종이허구 대칼하고는 쇠를 대면 종이가 찢어져지도 나무 종이로 하든 종이가 안 찢어지는 거예요.	작품을 보관할 때 주로 쓴다	홍중진(청주)		0	0	0
수공예	배첩장	도구	일지칼	일짜칼				나무 등을 긁어낼 때 쓰는 일지 모양의 칼	또 {일지칼이} 있고 나무에다 뭐 문었을 때 그렇게 긁어내는 거를 많이 쓰는 거요.		홍중진(청주)		0	0	
수공예	배첩장	도구	집게	집게		집게		물건을 집는 데 쓰는. 끝이 두 가닥으로 갈라진 도구.	또 {집게도} 대나무로 만들어서 쓰고, 그것도 인제 종이 들고 영질 때.		홍중진(청주)			0	
수공예	배첩장	도구	대패					나무를 곧게 밀어 깎는 연장. 직육면체형의 작고 단단한 나무토막에 직사각형의 면 한 쇠 날이 위에서 아래 바닥까지 비스듬히 박혀 있으며, 쓰임에 따라 여러 종류가 있다.	물을 찢을 때는 이렇게 종이를 한 다섯 여섯 번 벌리고 한 데다 웅쳐서 그걸 간조를 이 해가지고 뺏듯하게 대패질을 하지, {대패가} 그때 필요한 거예요.		홍중진(청주)	0	0	0	0
수공예	배첩장	도구	송곳					작은 구멍을 뚫는 데 쓰는 도구. 쇠로 만들며 끝은 뾰족하고 자루가 달려 있다.	{송곳은} 자르는 선을 이렇게 맞출 때 송곳으로 찍어 가지고 표를 해 가지고 저 쓰는 것도 있고 집을 때 바단 같은 거 집을 때 송곳으로 이렇게 눌러 가지고 제국을 내가 이렇게 잡는 거.		홍중진(청주)	0	0	0	0
수공예	배첩장	도구	잠자리피					잠자리피 모양의 갈아 쓰는 가위	옛날에 쓰던 가위도 있고 또 요즘에 {잠자리피라고}해서 갈아 쓰는 가위도 있고. 일회용 가위, 요새는 일회용 가위를 많이 쓰죠.	잠자리피 모양의 가위라는 의미는 몰라 있지 않음	홍중진(청주)		0	0	0
수공예	배첩장	도구	지역자	지역짜				지역자 모양의 자	지도 인제 자는 인제 {지역자} 있고 티자가 있고 일반 그 반듯한 자가 있고. 지수를 채는 자가 있고 또 이렇게 자를 때 쓰는 자가 있고.		홍중진(청주)		0	0	
수공예	배첩장	도구	재단자					배첩에서 재단할 때 쓰는 자	재단을 해야지. 재단할 때 아까 말씀하신 송곳이 필요한 거고 재단칼이 필요한 거고 {재단자}가 필요한 거요.		홍중진(청주)		0	0	
수공예	배첩장	도구	고운톱					톱날이 매우 가는 톱으로 정밀한 작업에 쓰임	{고운톱이} 있어요. 아주 성세하게 팔리지 않는 톱.		홍중진(청주)		0	0	
수공예	배첩장	도구	간조판					배첩 작업을 하고 물기를 말리는 기다란 판	작품을 붙여 가지고 붙여 가지고 거기다 말리는 거지. 그거면 평평하게 되는 거. 그때 인제 {간조판이} 문질 마냥 인제 짜 가지고 거 위에다 한지를 발라서 쓰는 것도 있고. 또 옛날에는 그런 식으로 많이 썼고.	이순애 외(1986)	홍중진(청주)	0	0		
수공예	배첩장	도구	간조대					물건 따위를 말리려고 설치한 대.	그래서 인제 배접지, 한지루다가 뒤에 인제 조별 배접을 하는 거예요. 해 가지고 조 {간조대}에다가 붙여서 말리는 거지.		홍중진(청주)		0	0	0

06 배첩장 조사어휘(배영환)

구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1	소분류 2	상세 분류1	상세 분류2	원표제어 표준어	월명란	별칭/종교	통사 정보	뜻풀이	유래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월명란 정보 사진	월명란 정보 음성	표준국어 사전 등재여부
수공예	배첩장 도구							화판		명	그림을 그릴 때 종이나 천을 받치는 판.	또 옛날에는 그런 식으로 많이 썼고 지금은 {화판에다가} 화판에다가 또 이렇게 건조대를 만들어 가지고 화판으로도 하는 것도 있고.		홍중진(형주)			0	0
수공예	배첩장 도구							상각대		명	서진기나 기관총, 신헌 기구 따위를 얹어 놓는, 세 발이 달리고 쇠로 된 받침대.	인재 그 {상각대} 상각대를 개 삼각적으로 만들 때 쓰는 위 이렇기 사십오 도 저나. 고런 것을 만들어 쓰고.		홍중진(형주)		0	0	0
수공예	배첩장 도구							나무양치		명	나무로 만든 양치. 쇠양치로 두드리면 깨지거나 우그러지기가 쉬운 물건을 두드릴 때에 쓴다.	또 양치 같은 것도 그 자기 {나무양치로} 해가지고 나무양치를 만들어 쓰고.		홍중진(형주)		0	0	0
수공예	배첩장 도구							바늘		명	옷 따위를 짓거나 꿰매는데 쓰는 가는 바늘이 뾰족한 쇠로 된 물건. 한쪽 끝에 있는 것은 구멍에 실을 꿰어서 쓴다	고매는 {바늘이요}.		홍중진(형주)			0	0
수공예	배첩장 도구							대바늘		명	대로 만든 바늘. 끝이 곧고 뾰족한 뜨개질용 바늘이다.	{대바늘이지}. 이게 책을 꼬매러는 인제 이 정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가성이부터.		홍중진(형주)			0	0
수공예	배첩장 도구							능화판		명	화 길정에 마름꽃의 무늬를 박아 내는 판.	아. 인제 이 판 이름을 {능화판이라고} 하는 거 판 이름 자체를 그러고서 이게 인제에 여기에는 봉황새가 들어갔잖아요.		홍중진(형주)		0	0	0
수공예	배첩장 도구							연꽃능화판		명	연꽃 문양이 들어간 능화판	자기 그 모양이 굉장히 여러 가지여. 이게. 이게 연꽃이 들어가면 {연꽃능화판} 또 국화가 들어가면 국화능화판.		홍중진(형주)		0	0	
수공예	배첩장 도구							국화능화판		명	국화꽃 문양이 들어간 능화판	자기 그 모양이 굉장히 여러 가지여. 이게. 이게 연꽃이 들어가면 연꽃능화판 또 국화가 들어가면 {국화능화판}.		홍중진(형주)		0	0	
수공예	배첩장 도구							호박틀		명	전더 따위의 바닥을 단단히 하는 데 쓰는 둥글고 큰 틀. 지름이 20~30cm이다.	{호박틀} 이게 틀이 또 거칠은은 이 종이거 휘잡아. 그러는 이렇게 뒤에 대구.		홍중진(형주)		0	0	0
수공예	배첩장 도구							나무주걱		명	틀을 지을 때 사용하는 나무로 만든 주걱	{나무주걱} 나무주걱도 있고 또 일자 나무 또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홍중진(형주)			0	
수공예	배첩장 도구							무쇠술		명	무쇠로 만든 술.	대개 인제 {무쇠술이나} 아니는 그 자기 그 개 뭐야 양은술 뭐 이런 데다.		홍중진(형주)		0	0	0
수공예	배첩장 도구							양은술		명	양으로 만든 술.	대개 인제 무쇠술이나 아니는 그 자기 그 개 뭐야 {양은술} 뭐 이런 데다.		홍중진(형주)		0	0	0
수공예	배첩장 제작과정							옷을 입히다		구	배첩에서 작품에 배첩 틀을 하여 새로 단장을 하다	그림을 그려오면 옷을 입혀주는 건 바로 배첩장이 {옷을 입혀주는} 거지.		홍중진(형주)			0	
수공예	배첩장 제작과정							물뿌리다		구	작품에 있는 구멍을 없애기 위해 물을 뿌린다.	작품을 놓고 뒤에다가 얹어놓고 편을 . 이게 인제 배첩을 하는 거여. {물을 뿌려} 가지고 구멍실 없이.		홍중진(형주)			0	

06 배첩장 조사어휘(배영환)

항목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1	소분류 2	상세 분류1	상세 분류2	원표제어 표준어	올림말	별음 정보	통사 정보	뜻풀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문단 정보 사진	문단 정보 음성	표준국어 사전 등재여부
수공업	배첩장	제작과 공	두루마리 제작과					초벌배접하다		구	작품의 뒤에 한지를 붙여서 처음 배접을 하 다.	그래서 인쇄 배접지 한지로다가 뒤에 인쇄 {초벌 배접을 하는} 거예요. 해 가지고 초 간조대메다가 붙여서 말리는 거지.		홍종진(청주)			0	
수공업	배첩장	제작과	두루마리 제작과					말리다		동	초벌 배접한 종이를 간조대에 물기를 제거 하다.	거기 건조 된 거기 다 작품을 붙였다가 다 말리면 한 상 사 일 {말려} 가지고 그 당에 인재 그걸 뜯어가지.		홍종진(청주)			0	0
수공업	배첩장	제작과 공	두루마리 제작과					재단하다		동	글씨나 그림에 맞게 비단 등을 반듯하게 자 르다	주걱칼이란 거 가지고 재단을 하는 거예요. 사각이 반듯하게 못개끔. 이게 {재단을 할} 때 이 인자 저런 대를 자를 대고서 하는데.		홍종진(청주)			0	0
수공업	배첩장	제작과	두루마리 제작과					따대다		구	작품에 어울리는 하얀 띠를 대다	이게 뽀뽀하게 그 잘르는 것도 잘라야 대 요. 잘라 가지고 인쇄 거기에 뒤에 {띠를 대 고서}. 인쇄 하얀 띠가.		홍종진(청주)			0	
수공업	배첩장	제작과	두루마리 제작과					봉집달다		구	두루마리 하단의 봉집을 놓다	{봉집을 인쇄 거기다 달아야죠}. 게 찰호지 로다 인쇄 봉집을 예.		홍종진(청주)			0	
수공업	배첩장	제작과 공	두루마리 제작과					숙달다		구	두루마리 하단의 숙을 달다	인재 아래 위 {숙과 반달을 달으론은} 인쇄 숙자가 완.		홍종진(청주)			0	
수공업	배첩장	제작과	두루마리 제작과					반달달다		구	두루마리 하단의 숙의 반달을 달다	인재 아래 위 숙과 {반달을 달으론은} 인쇄 숙자가 완.		홍종진(청주)			0	
수공업	배첩장	제작과 공	두루마리 제작과					숙자못바다		구	두루마리 상단의 숙자못을 바다	인재 여기다가 {숙자못을 바다요}. 또 곤 매는 못. 그라고서 곤을 매론은 인쇄 숙자 가 완성이 되는 거요.		홍종진(청주)			0	
수공업	배첩장	제작과 공	평문제 평문제 제작과					구상하다		동	예술 작품을 창작할 때, 작품의 골자가 될 내용이나 표현 형식 따위에 대하여 생각을 정리하다.	우선 작품 가지고 그 평풍을 얼마나게 맨들 것인가. 그거를 인쇄 구상을 해야죠.		홍종진(청주)			0	0
수공업	배첩장	제작과 공	평문제 평문제 제작과					틀짜다		동	평풍의 골격을 이루는 틀을 만들다	고거를 인쇄 및 취가지고 평풍 키를 인쇄 그 맞춰서 짜아지. {틀을 짜아지}.		홍종진(청주)			0	
수공업	배첩장	제작과 공	평문제 평문제 제작과					초배하다		동	평풍의 틀에 한지로 처음 바르다	그게 참에 {초배한다} 그래서 앞은 종이 아 주 약한 종이를 발른다고 이게.		홍종진(청주)			0	0
수공업	배첩장	제작과 공	평문제 평문제 제작과					재배하다		동	평풍의 초배한 곳에 한지로 두 번째 바르다	문실 마냥 이렇게 뒤어서 짜는 거예요. 고 다음에 인쇄 초배를 하고 {재배하고}.		홍종진(청주)			0	0
수공업	배첩장	제작과 공	평문제 평문제 제작과				한지 바르다	한지 바르다		구	한지로 평풍이나 두루마리의 밑바탕에 틀 을 칠해 바르다	그런 식으로다 {한지를 발라} 가지고 연결 을 시키는 거지.		홍종진(청주)			0	
수공업	배첩장	제작과 공	평문제 평문제 제작과				상배 바르다	상배 바르다		구	한지를 바른 후에 중심이 잡히도록 상배를 바르다	인재 {상배도 발르고} 과목도 발르고. 예. 첫번에는 거의 다 상배로 했죠.		홍종진(청주)			0	

06 배첩장 조사어휘(배영환)

수공명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1	소분류 2	상세 분류1	상세 분류2	원표제어 표준어	설명	뜻풀이	유래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문단 정보 사진	문단 정보 음성	표준국어 사전 등재여부
수공명	배첩장	제작과 공	평문제 작과공				광목 바르다	광목 칠한다	한지를 바른 그 위에 단단해지도록 광목을 바른다	인제 삼베도 발르고, 어 {광목도 발르고}에, 옛날에는 거의 다 삼베로 했죠.		홍중진(청주)			0	
수공명	배첩장	제작과 공	평문제 작과공					물린다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물게 하다	다섯 번에서 여섯 번 두개로 풀이는 거죠. 요렇게 {물려} 가지고 물려 가지고 대패질을 매끈하게 해야 돼요.		홍중진(청주)			0	0
수공명	배첩장	제작과 공	평문제 작과공				가지런히 하다	간초롱이하다	어긋이 총이 나지 않고 고르게 하다	종이를 한 다섯 여섯 번 발르고, 한 데다 물쳐서 그걸 {간초롱이에} 가지고 뽕뽕하게 대패질을 하지.		홍중진(청주)			0	
수공명	배첩장	제작과 공	평문제 작과공					대패질하다	대패로 가지런히 하다	종이를 한 다섯 여섯 번 발르고, 한 데다 물쳐서 그걸 간초롱이 해가지고 뽕뽕하게 {대패질을 하지}.		홍중진(청주)			0	
수공명	배첩장	제작과 공	평문제 작과공					뜸금그다	재단하기 전에 뜸으로 금을 그다	우리말로는 경첩이라고. 접혔다 요렇게 {뜸금 그어} 가지고.		홍중진(청주)			0	
수공명	배첩장	제작과 공	평문제 작과공					경첩주다	평공의 쪽과 쪽의 연결 부분을 연결시키다	{경첩준다} 하고, 또 에 일본말로 뽕뽕거, 뽕뽕거 그런데 우리말로로는 경첩이라고.		홍중진(청주)			0	
수공명	배첩장	제작과 공	평문제 작과공					작품틀이다	배집이 된 후 본 작품을 틀이다	오동나무가 가볍구 벌레도 잘 안 먹고, 그 래 가지고, 작품을 요기, 이 {작품을 틀이 는} 거죠.		홍중진(청주)			0	
수공명	배첩장	제작과 공	평문제 작과공					비단틀이다	작품의 주변에 비단을 틀이다	그 다음에 이 선을 붙이고, 그 다음에 {비단 틀이요}.		홍중진(청주)			0	
수공명	배첩장	제작과 공	평문제 작과공					중선틀이다	작품과 배첩 비단 사이에 이중으로 비단 선을 틀이다	작품을 붙이고서 이게 여 비단을 이게 인제 중선, {중선부터 붙이고}.		홍중진(청주)			0	
수공명	배첩장	제작과 공	평문제 작과공					저고리틀이다	작품의 윗부분의 비단을 틀이다	그 다음에 인제 이게 말르고 나면 이게 인 제 {저고리 치마를 붙이는} 건데.		홍중진(청주)			0	
수공명	배첩장	제작과 공	평문제 작과공					치마틀이다	작품의 아래 부분의 비단을 틀이다	그 다음에 인제 이게 말르고 나면 이게 인 제 저고리 {치마를 붙이는} 건데.		홍중진(청주)			0	
수공명	배첩장	제작과 공	평문제 작과공					포개틀이다	서로 엇갈려 감쳐 틀이다	그렇죠, 엇붙이는 거지, {포개붙이는} 거 지, 이렇게 많이 서노면은 억하잖아요. 엇 붙이는 거지.		홍중진(청주)			0	
수공명	배첩장	제작과 공	평문제 작과공					테발르다	작품의 테두리에 천을 바르다	인제 그렇게 하고서 여기에 그 {테 발르고} 아까 얘기한 인제 그 마우리, 그 인제 자기, 자기를 대어지, 포호대들.		홍중진(청주)			0	
수공명	배첩장	제작과 공	평문제 작과공					보호대하다	평공의 뒤에 보호대를 대다	인제 그렇게 하고서 여기에 그 테 발르고, 아까 얘기한 인제 그 마우리, 그 인제 자기, 자기를 {대어지 보호대들}.		홍중진(청주)			0	
수공명	배첩장	제작과 공	평문제 작과공					의뢰틀이다	평공의 한쪽만 틀이고 다른 쪽은 틀이지 않 아 이어 틀이다	근데 일본식은 {의뢰 틀인다}는 얘기여 띄 워.		홍중진(청주)			0	

06 배첩장 조사어휘(배영환)

번호	단어	종류	소분류 1	소분류 2	상세 분류1	상세 분류2	원표제어 표준어	음역	뜻풀이	용례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문단 정보 사진	문단 정보 음성	표준국어 사전 등재여부
수공업	배첩장	제작과 공	평물제작과 공					구	평물의 한 쪽과 다른 부분을 연결하기 위해 구멍을 뚫다	인제 어기메다가 끝로다가 {구벽을 파} 가지고 요것만큼 파는 거예요.		홍중진(청주)			0	
수공업	배첩장	제작과 공	평물제작과 공					평	평물의 연결 부분을 서로 맞추다	어기에 또 거 요것만큼 또 나오게. 요기서 요렇게 이거, 나오게 해 가지고 이렇게 {깨는} 거지.		홍중진(청주)			0	0
수공업	배첩장	제작과 공	평물제작과 공					평	평물의 연결 부분의 구멍을 서로 꿰어 맞추다	이렇게 거 못을 안 막고 그냥 저렇게 {꿰어 맞추기}로 해 가지고.		홍중진(청주)			0	
수공업	배첩장	제작과 공	평물제작과 공	상태				평	구가 먹먹할 정도로 놓고 강하게 자꾸 물리는 소리가 나다	남 이렇기 끝로 파가지고 이렇기 깎 거지. 그러니깐 쇠가 안 들으니깐 몇 백 번이 가도 이게 틀어 지금 풀어놔도 {뺨뺨하잖아}.	한지로 배접하던 오래도록 변형이 없다는 의미	홍중진(청주)			0	0
수공업	배첩장	제작과 공	액자제작과 공					구	액자의 배대를 이루는 틀을 만들다	액자 만들 때는 청에 인제 그 {액자들을 짜 아조}.		홍중진(청주)			0	
수공업	배첩장	제작과 공	액자제작과 공					평	액자의 겉에 대는 나무를 짜다	{겉대 인제부터 짜놓고} 그 당에 인제 속실을 놓는 거고.		홍중진(청주)			0	
수공업	배첩장	제작과 공	액자제작과 공				속실뚫다	평	액자의 속에 들어가는 실을 뚫다	겉대 인제부터 짜놓고그 당에 인제 {속실을 놓는} 거고.		홍중진(청주)			0	
수공업	배첩장	제작과 공	액자제작과 공				틀다	평	틀이거나 랑기거나 얹히거나 합쳐진 것 위를 그렇지 아니한 상태로 되게 하다.	고서화를 거 자기 책을 {틀러} 가지고 매는 거로 할까.		홍중진(청주)			0	0
수공업	배첩장	제작과 공	고서장정제작과 공					구	책을 꿰맬 수 있을 만큼의 실을 짜다	오거를 꼬맬 때 인제 {실을 꿰} 때는 이게 인제 묵실, 이걸 세 번이렇게 해 가지고 세 번 짜 가지고 하면은 되는 거요.		홍중진(청주)			0	
수공업	배첩장	제작과 공	고서장정제작과 공					구	실에다 단단하도록 밀림질을 하다	이 무명 이게 묵화 실에는 이 {밀림을 칠해 줘야} 잘거요. 실이.		홍중진(청주)			0	
수공업	배첩장	제작과 공	고서장정제작과 공					구	실이 틀어갈 수 있도록 책에 송곳으로 구멍을 뚫다	송곳 그걸로다가 자기 두드려 가지고 {구멍을 뚫었어요}.		홍중진(청주)			0	
수공업	배첩장	제작과 공	고서장정제작과 공				꿰매다	평	못 따위의 해지거나 뚫어진 대를 바느질로 꿰거나 엮어매다.	이 무명 이게 묵화 실에는 이 밀림을 칠해 줘야 잘거요 실이. 이게 그래서 옛날사부터 이거 {꼬맬} 때는 이 밀림을 꼭 칠해 가지고 꼬맸다고.		홍중진(청주)	0		0	0
수공업	배첩장	제작과 공	고서장정제작과 공					평	실로 꿰맨 부분이 풀어지지 않도록 단단히 꿰매다	{꼭죽매는} 게 이렇게 해서 막 풀을 수 없게 이렇게 해서 꿰맨단 얘기야.		홍중진(청주)			0	
수공업	배첩장	제작과 공	고서장정제작과 공					평	끈이나 줄 따위로 열 때 풀기 편하게 매다. 끈이나 줄 따위로 열 때 풀기 편하게 매다.	{고내는} 가는 인제 풀을 때 풀리기 좋게 이렇게 꿰매구. 꿰매잖아요.		홍중진(청주)			0	

06 배첩장 조사어휘(배영환)

원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1	소분류 2	상세 분류1	상세 분류2	원표제어 표준어	설명	뜻풀이	유래	기타정보	출전정보1	출전정보2	원디 정보 사진	표준국어 사전 등재여부
수공업	배첩장	제작과 공	고서장 제작과 공				류다	평매다	근, 줄 따위를 매듭으로 만들다.	이렇게 해서 막 풀 수 없게 이렇게 해서 (쥔앤단) 매기(아).		홍중진(청주)		0	0
수공업	배첩장	제작과 공	고서장 제작과 공					치자물들이다	치자물에 한지를 담가 놓아 물들이다.	떡 같은 거 절편 같은 것도 이 {치자물}로 들 어요).		홍중진(청주)			0
수공업	배첩장	제작과 공	고서장 제작과 공				문지르다	문질르다	무엇을 서로 눌러 대고 이리저리 밀거나 비 비다.	오개, 인쇄, 한지로 이렇게 배접을 한 거를 어기다 (대고서 오렇게 대고서 이 돌로 {문 지르든} 두드려가 나워요.	홍중진(청주)	0	0	0	0
수공업	배첩장	책	병풍 종 류					일지병풍	전체 병풍에 작품이 하나로 연결된 병풍	인제 병풍은 {일지병풍} 연결병풍 연결병 풍이 있고 인제 연결 쪽 하나로 피른 에 연 결이 되는 거.		홍중진(청주)		0	0
수공업	배첩장	책	병풍 종 류					연결병풍	일지병풍과 같음.	인제 병풍은 일지병풍 {연결병풍} 연결 병 풍이 있고.		홍중진(청주)		0	0
수공업	배첩장	책	병풍 종 류					각쪽병풍	연결병풍 중 하나로 피인 쪽 연결된 병풍	쪽 하나로 피른 에 연결이 되는 거 이거 {각 쪽병풍이} 있고.		홍중진(청주)		0	0
수공업	배첩장	책	병풍 종 류					발병풍	병풍의 아래부분에 발모양의 받침이 달린 병풍	밑에 발이 달린 거 기둥에서부터 이 밑에까 지 달린 {발병풍}이 있고.		홍중진(청주)		0	0
수공업	배첩장	책	병풍 종 류					흔병	흔인할 때 치는 병풍	흔인할 때 쓰는 병풍, 인제 여자들이 혼수풍 으로 해가는 {흔병} 있고.		홍중진(청주)	이순애 외(1986)	0	0
수공업	배첩장	책	병풍 종 류					침병	마리맡에 치는 병풍, 보통 두 쪽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침병} 머리 밑에 치는 거.		홍중진(청주)	이순애 외(1986)	0	0
	배첩장	책	병풍 종 류					마리병풍	마리맡에 치는 병풍으로 보통 잘 때 사용하 다.	또 그거 저 잘 때 치는 {마리병풍}.		홍중진(청주)		0	0
수공업	배첩장	책	병풍 종 류					대병	큰 병풍으로 대부분 흔시때 쓴다	그 밖에 거는 인제 큰 {대병}.		홍중진(청주)		0	0
수공업	배첩장	책	병풍 종 류					소병	크기가 작은 병풍	아까 조 작은 발 있는 거 그거는, 그거는 인 체 {소병}.		홍중진(청주)		0	0
수공업	배첩장	책	병풍 종 류					백병	아무 글씨나 그림이 없는 병풍	그거는 그 저 그림이나 글씨가 아무도 없이 {백병}이야 그냥.		홍중진(청주)		0	0
수공업	배첩장	책	병풍 종 류					산신령병풍	산신령 그림의 병풍	또 {산신령병풍이} 있고 애기 날 때 병풍을 치고서 인제 애기 낳는.		홍중진(청주)		0	0
수공업	배첩장	책	누룩마 리 종 류					명죽자	보통 여러 가지 비단을 쓰는 죽자	명죽자라는 건 왜 그냥 보통 많이 이렇게 하는 게 {명죽지고}.		홍중진(청주)	이순애 외(1986)	0	0
수공업	배첩장	책	두루마 리 종 류					평죽자	한 가지 비단만 사용하여 만든 죽자	평죽자는 애 한가지로 해 가지고 비단을 한 가지로 막 쓰는 거 {평죽자} 이런 거지.		홍중진(청주)		0	0

06 배첩장 조사어휘(배영환)

주 요 단 어	대 분 류	중 분 류	소분류 1	소분류 2	상세 분류1	상세 분류2	원표제어 표준어	출판명	발음 장르	용사 장르	뜻풀이	유래	기타정보	출전장르1	출전장르2	문단 장르 사진	문단 장르 영성	표준국어 사전 등재여부
수공업	배첩장	장류	두루마리 장류					이중전책자		명	책자의 테에 두 개의 선을 넣은 책자	인제 그 불이 나뵈는데 그거 선을 두 개 노은 {이중선이라고}.		홍중진(청주)	이순애 외(1986)		0	
수공업	배첩장	장류	두루마리 장류					상중전책자		명	책자의 테에 세 개를 비단선을 넣은 책자	하는 사람 따라서 뭐 이중책자다 뭐 이중선 책자다 {상중선책자다}.		홍중진(청주)			0	
수공업	배첩장	장류	두루마리 장류					비단책자		명	비단으로 만든 책자	그냥 그 저 이중 뭐 {비단책자다} 뭐 이렇 하는데, 거의 두루마리는 그냥 뽕틀아서 두 루마리라고 하지.		홍중진(청주)			0	
수공업	배첩장	장류	역지종 장류					평책자		명	책자의 구조가 평면인 책자	인제 역지는 구조가 평면인 {평책자}가 있 고.		홍중진(청주)	이순애 외(1986)	0	0	
수공업	배첩장	장류	역지종 장류					이중책자		명	책자의 구조가 이중으로 되어 입체식을 띤 책자	인제 역지는 구조가 평면인 평책자가 있고 {이중책자}가 있고.		홍중진(청주)	이순애 외(1986)		0	
수공업	배첩장	장류	역지종 장류					남정식(책자)		명	작품이 책자 속으로 들어가게 보이는 책자	{남정식은} 들어가게 하는 거.		홍중진(청주)		0	0	
수공업	배첩장	장류	역지종 장류					오당식(책자)		명	작품이 책자에서 튀어나오게 보이는 책자	외형식 있고 {오당식} 있고 그런 거지.		홍중진(청주)		0	0	
수공업	배첩장	장류	역지종 장류					외형식(책자)		명	작품이 들어가게 하면서 태에다 선을 박은 책자	{외형식은} 인제 그 들어가게 하면서 또 나 무 태. 태에다가 또 선을 박는 것도 있고.		홍중진(청주)		0	0	
수공업	배첩장	장류	장정 장류					사창(법)		명	책 장정 시 네 개의 바늘 구멍을 내어 꿰매 는 방법	저 중국이나 일본은 {사창이예요}.		홍중진(청주)			0	
수공업	배첩장	장류	장정 장류					오침법		명	책 장정 시 다섯 개의 바늘 구멍을 내어 꿰 매는 방법	다섯 구멍을 해 가지고 인제 꿰맨다 그래서 오침법 그러하고 우리나라만 {오침법}을 쓰지.		홍중진(청주)			0	

찾 아 보 기

ㄱ

가위	39
각죽병풍	49, 103
간초롱이	50
거죽	35
건조판	40, 89
걸르다	33
겉대	35
겉살	47, 79
경첩	50, 82
고내다	54
고운톱	40, 88
괘불	26
구급간이방	58
구녁	39
구멍뚫다	98
구상하다	50, 100
국화능화관	93
귀	73
귀마개	42, 74
귀알	83
귀접다	45
금사비단	69
기둥	75
기술	29
기역자	40, 88
김표영	17
깃접다	44
꼬매다	52, 98
꺾매다	52

ㄴ

나무깎는칼	38
나무껍질	35
나무망치	91

나무주걱	33, 40, 94
남정식	47, 108
능화관	91

ㄷ

담구다	62
대바늘	53, 91
대병	49, 104
대칼	39, 86
대패	40, 51, 89
대패질하다	101
독초	30
동비	42, 77
된풀	32, 59
두루마리	41, 73
딱	34
딱(닥)	64
딱나무	34
딱지	36
띠대다	95

ㄹ

마루	73
마름칼	85
마무리선	49, 81
말리다	63, 95
망치	41
메밀대	35, 65
명조선	106
명죽자	41, 106
명주	37, 67
목실	44
목화실	52
무쇠술	34, 94
문지름귀알	38, 83

문지름돌	93
문질르다	99
물 갈아주다	63
물감 번지다	44
물귀얄	38, 84
물리다	101
물뿌리다	94
물술귀얄	38
뭍은풀	59
미송	51, 70
밀가루	30, 60
밀랍	71
밀랍번	55
밀랍입히다	56
밀랍칠하다	97
밀풀	58

ㅁ

바늘귀	53
반달	43, 75
반달달다	96
반달집	75
발	81
발르다	37, 100
발병풍	49, 104
배첩	16
배첩장(褙貼匠)	57
백반	60
백병	49, 103
백피	35
변색	30
병풍거죽	83
병풍발	81
병풍키	80
병풍틀	80
보름달	76
보리쌀	30, 32, 59, 60
보리풀	59
보호대	44
보호대대다	102
붕	46
붕집	45, 76
붕집달다	95

부여전통학교	24
부패	35
분리	30
비단 붙이다	102

ㅂ

사슴털	84
사침	52
산신령병풍	105
삼각대	40, 90
삼베	46, 69
삼중	41
색지 붙이다	45
생지	36, 66
생지황(生地黃)	61
섬유질	35
성대	42, 77
소나무	51
소병	104
속살	47, 79
솔	38
송곳	39, 87
쇠용기	32
수돗물	31, 63
숙지	36, 67
숙지황	61
실재다	97
썩후다	30, 62

ㅇ

앙금	62
액자테	47, 79
액자틀	48, 78
양건지	35, 65
양은솔	34
양지	67
어진	60
연결병풍	49, 102
연꽃능화판	92
오당식	47, 109
오동나무	51, 71
오침법	52

옥매듭	54
옥점매다	54, 98
옹기	32
외선	81
외형식	47, 109
이배접	45
이중선	41
이중선죽자	107
이중액자	47, 108
인조	37
인조비단	68
일자병풍	49, 102
일자칼	38, 86

ㄸ

작은대패	89
작품 불이다	102
잠자리피	39
장황(粧纒)	57
재단자	45
재단칼	38, 85
재단하다	44, 95
재료	29
재배하다	100
잣물	35, 65
저고리	43, 73
전분	33
죽자	41
죽지끈	77
죽자못	42, 77
죽자못박다	96
좀벌레	30
주걱칼	85
주지	74
죽침	91
중간대	80
중선	43, 74
지두	42
지황(地黃)	61
짜기	51
짚르다	45
짚매다	54, 99
쫄대	49

짚게	39
----	----

ㄹ

참죽나무	71
책구멍	54
천강	42
천관	43, 75
천두	42
천장	42, 73
철판지	36, 66
초배하다	36, 100
초벌배접하다	94
축	43, 76
축달다	96
축임귀알	84
치마	43, 73
침병	49, 105
침전시키다	62

ㄴ

칼	85
콩대	35, 65
큰대패	89

ㄷ

대지	67
툽	40
툽금내다	101
틀짜다	100
티자	40

ㄹ

평액자	47, 107
평죽자	41, 106
표구	16
풀	29, 58
풀기 죽이다	46
풀르다	54, 96
풀슬귀알	38
풀쑤기	30

풀쭈다	63
풍지	44

ㅎ

하단	42
한지	36, 64
할미꽃뿌리	61

현판	48
호박돌	93
혼병	49, 105
홍송	71
화지	43, 49, 74
화관	40
황기초	35, 65
후불탱화	26

■ 연구책임자 : 강정희(한남대학교)

■ 공동연구원 : 배영환(한국학중앙연구원)

2009년도 민족생활어 조사 6

발 행 인 권 재 일

발 행 처 국립국어원

서울시 강서구 방화 3동 827

전화 : 02-2669-9775 팩스 : 02-2669-9727

인 쇄 일 2009년 11월 27일

발 행 일 2009년 11월 30일

인 쇄 크리홍보(주) (02-737-5377)
